

2022 동네문화추적단 활동보고서

상반기 동네문화추적단의 활동을 갈무리하며

동네문화추적단 활동 보고서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13개 팀의 동네문화추적단의 활동을 기록한 보고서이다. 1팀은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팀의 활동 영역 확정과 활동 방법인 문헌조사 기법, 인터뷰 기법, 현장 답사 기법(사진촬영 등)에 대한 기본 교육을 이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산문화도시센터와의 컨설팅과 상담도 함께 이루어졌고 이후 여러 번의 팀별 미팅과 중간 보고회, 두 번의 종합 발표회를 거쳐 이제 결과물이 나왔다.

상반기 동네문화추적단의 활동은 다음의 3가지 범주와 13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군산의 생태 문화에 대한 추적 활동이다. 비안도의 역사 문화, 은파호수공원 별빛다리의 생활문화, 팔마산의 생태, 군산의 우물, 도심 숲 공원, 하제 팽나무가 주제이다. 둘째는 군산의 역사 문화에 대한 추적 활동이다. 이업사 농장과 옥구 농민 항쟁, 군산의 근대 전후 교육기관, 군산의 옛 놀이, 옥구 들노래, 70년 개인사를 통해 본 군산의 경제와 문화를 추적하였다. 셋째는 군산 시민의 일상생활문화에 대한 추적 활동이다. 옥산 귀농일지, 신흥동 말랭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고 들으러 다녔다.

동네문화추적단은 이번 활동을 통해 문헌조사, 인터뷰, 현장 답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방법을 익혔고, 동시에 추적한 내용을 문서화 하여 기록하는 훈련도 충분히 하게 되었다. 아마도 동네문화추적단이 지속적으로 활동하여 군산의 역사·문화·생태를 조사 발굴하고 자료화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성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군산은 역사·문화·생태의 관점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4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첫째는 생태자산이다. 군산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8미터가 되는 서해 연안에 입지하며, 고군산군도 등 70여 개의 섬을 가지고 있다. 2021년 7월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된 금강하구언 갯벌(서천갯벌)과도 인접해 있고 동시에 금강과 만경강의 하구언 지역이며 호남평야의 시작 지점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적 특성에 기반한 문화가 발달하였다.

둘째는 일제 강점기 역사문화이다. 일제 강점기의 역사문화 유산이 가장 많이 남아 있고 또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군산이다. 그래서 군산은 일제 강점기 식민지 지배 당시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하다.

셋째는 군산이 우리나라 최고의 공원 도시라는 점이다. 군산은 선유도를 중심으로 하는 해상공원, 금강하구의 생태공원, 18개의 산으로 구성된 월명공원, 우리나라 최대 도심 호수공원인 은파호수공원이 있다. 즉 바다, 강, 산, 호수 곳곳에 공원이 있는 도시이다. 또 이러한 공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를 꽃피우고 있다.

넷째는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이다. 금강호수는 시베리아의 가창오리와 기러기가 겨울을 나는 곳이고, 금강하구언은 지구의 북반부 시베리아에서 남반부 호주를 오가는 도요새의 휴식지이다. 특히 나포 십자들과 금강호수는 수십만 마리의 가창오리 군무를 근접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로서 이러한 철새 도래지와 철새는 사진, 영상, 음악, 영화 등의 문화예술 활동에 깊은 영감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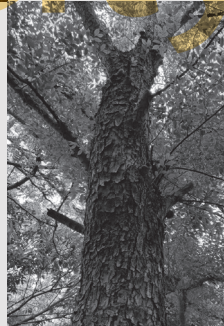

동네문화추적단의 활동을 통해 군산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역사·문화·생태자산이 발굴되고 기록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인들이 군산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데 필요한 자료를 만드는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를 기반으로 군산이 전 세계인과 공유하는 역사·문화·생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그날까지 동네문화추적단의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아울러 동네문화추적단을 지원하고 협력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2022.08

동네문화추적단 담당 문 정 현 | (사)아리울역사문화 대표

Contents

2022 동네문화추적단 활동보고서

		
 		<h3>I. 군산의 생태 문화 추적 활동</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안도의 역사와 문화 8 2. 은파호수공원 별빛다리의 생활문화 15 3. 팔마산의 생태 25 4. 군산의 우물 31 5. 도심 숲 공원 37 6. 하제 팽나무 48
	 	<h3>II. 군산의 역사 문화 추적 활동</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엽사 농장과 옥구농민항쟁 72 2. 군산의 근대 전·후 교육기관 91 3. 군산의 옛 놀이 105 4. 옥구 들노래 115 5. 70년 개인사를 통해 본 군산의 경제와 문화 125
		<h3>III. 군산의 시민 일상생활문화 추적 활동</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옥산 귀농 일지 140 2. 신흥동 말랭이 사람들의 이야기 143



2022 Gunsan City Culture

I. 군산의 생태 문화 추적 활동

- 1 비안도의 역사와 문화
- 2 은파호수공원 별빛다리의 생활문화
- 3 팔마산의 생태
- 4 군산의 우물
- 5 도심 숲 공원
- 6 하제 팽나무

1. 비안도의 역사와 문화

개요

조사자	송효선 · 소병주	
조사 동기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고군산군도의 여러 섬 중에서 최남단에 위치한 비안도에 평소 매력을 느끼고 있어 사라져 가는 섬 문화를 조사하여 기록으로 남기고자 함조사방법은 섬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섬과 관련된 관계자분의 인터뷰 조사, 문헌조사를 통해 비안도의 주요 어종이나 특산물, 자연경관 등 비안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정리조사의 결과물을 남겨 비안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탐방 정보 제공 및 미래 세대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	
활동 개요	컨설팅 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센터에서 방향성 체크를 위한 컨설팅문정현 전문위원과의 방문 상담문정현 전문위원과 전화 상담
	비안도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일시 : 5월 21일, 28일, 6월 1일활동 : 몽돌해변과 데크길, 만금정, 고분떼, 웅달샘, 당산, 조개더미 현장 답사, 주민 인터뷰
	인터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일시 : 5월 21일, 28일활동 : 마을 주민 인터뷰
	문헌자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일시 : 5월 2일 ~ 6월 28일조사 문헌 사이트 : 지역N 문화, 디지털군산문화대전 향토백과
	보고서 작성 및 워크샵 자료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일시 : 6월 6일 ~ 7월 21일보고서 10회 분 발송, 워크샵 중간발표, 최종 발표 ppt 발송
	워크샵에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중간 발표 (6월 16일)최종 발표 (7월 28일)

비안도(飛雁島)의 지리적 위치와 환경

- 비안도는 고군산군도의 가장 남쪽에 있는 섬으로 군산항으로부터는 약 43km, 가력도항에서 약 7km 떨어져 있어 거리상 군산보다 부안군에 가까움
- 경도 126°32', 위도 34°46'에 위치하고, 면적1.63km², 해안선 길이 6.6km, 인구는 144세대, 260명(남140명, 여120명, 2022년 5월 9일 옥도면사무소 등록기준)

- 이 섬은 고려 말부터 귀양지였으나 조선 중기부터 집단촌락이 형성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통합으로 두리도를 병합하여 비안도리라는 이름으로 옥도면에 속하고 있음
- 지형이 날아가는 기러기처럼 생겨서 비안도라 하였는데, 북부의 노구봉(191m), 남부의 남봉산(170m) 두 봉우리를 양 날개로 삼고 몽돌해변의 구릉과 습지, 중산을 몸통으로 보며, 반도처럼 뾰족하게 뻗어 나온 선착장 마을 입구가 머리 부분의 기러기 모습임
- 마을 주민에 의하면 비안도는 일명 날라리 섬이라고도 함. 날비(飛), 기러기안(雁), 섬도(島)자로 기러기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형국이기에 이런 땅 기운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비안도 사람들은 날라리기가 있어 목청이기가 막히게 좋고 노래를 잘해 비안도에서는 노래자랑 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멧과 가락과 낭만이 있는 섬으로 알려짐
- 동쪽과 남쪽 해안에는 간석지가 있는데, 이곳은 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바지락 체험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취락도 해안가 마을을 중심으로 분포함
- 서쪽 해안에서는 몽돌해안과 파도의 침식 및 퇴적작용으로 파식대 등이 형성된 해안절경을 볼 수 있음.

비안도 행정구역 변천과 입지

조선시대	전라도 부안현
1895년	전주부 부안군
1896년	전라남도 지도군 고군산면
1914년	두리도와 비안도를 통합하여 비안도리를 개설,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에 편입
1986년	전라북도 옥구군 옥도면으로 승격
1995년	군산시와 옥구군의 통합으로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기러기섬 비안도



선착장에서 본 비안도



비안도 지리적 위치

비안도 현황

마을주민

비안도에서 실제 살고있는 인구는 총 70세대 정도 전후 정도가 되고, 총 370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음. 연령대는 40대에서 80대까지이며, 80대는 2-3명이고, 모두 여자 분이다. 주민들은 김 양식 17명을 비롯하여 주

로 낙지잡이 6명, 주꾸미, 꽃게 등 모든 주민이 어업위주의 생활을 하고 있음.

생활

예전에는 논농사, 밭농사에 의지해 살았지만 지금은 어업활동의 수익이 좋아 농사는 거의 하지 않고 밭농사도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마늘, 상추, 양파 등을 텃밭 정도만 짓고 있음. 어업활동의 수익은 보통 일 년에 5천에서 1억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기에 농사는 거의 하지 않음. 그래서 외지로 나갔던 자녀들이 섬에 들어와 가업을 잇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어업활동도 기계화 되어 많이 편리해졌다고 함.

비안도 공공시설

새만금파출소 비안도 출장소, 비안도 어촌계, 비안도순복음교회, 폐교된 비안도초등학교, 발전소, 상수도시설 등

신항

새만금 신항이 비안도 앞섬인 두리도까지이고 이 신항이 완성되면 비안도는 두리도와 다리로 연결될 계획은 있지만, 그 시기는 잘 모르고 비안도가 선유도나 무녀도처럼 육지화되는 것은 반대라고 함.

비안도 현황



비안도 사람들

- 섬에 가려면 새만금 방조제 가력도항 선착장에서 정기 여객선을 타야 하는데 2019년 12월부터 운행되는 정기여객선은 동절기에는 2번 운행하며 하절기에는 3번 운행하고 있음.
- 교육시설로 비안도초등학교가 있었지만 2021년 3월 폐교되었고 이 밖에 비안도항, 순복음비안도교회, 비안도치안센터, 해양경찰비안도출장소, 비안도어촌계, 보건진료소, 발전소 등이 있음.
- 주민들의 생업은 농업보다 어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새만금 개발 전에는 멸치가 풍부하여 많은 수익을 올

- 리기도 했으나 새만금이 개발되면서 조류의 변화와 육지 축산단지 등의 오염된 물로 인해 멸치를 비롯한 각종 어종들이 사라져 비안도에서 떨어진 곳, 위도 앞바다 등 먼바다까지 나아가 어업활동 및 김 양식을 하고 있음.
- 김 양식은 추석 무렵 김 씨앗을 뿌린 뒤 한 달 정도 있다가 자라난 김을 갈라놓은 후 12월 초나 말부터 김을 수확하는데 첫 수확하는 김은 질이 별로 좋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수확하는 김이 더 좋다고 하며 이러한 김 양식은 주로 3월까지 함.
- 봄철이면 주꾸미, 낙지, 해삼, 꽃게 등을 잡고 여름철 금어기(6월 21일경부터 8월 21일)가 지나면 가을철 꽃게잡이 등의 어업활동을 하는데 이 밖에 바지락 채취를 비롯하여 광어, 농어, 도미 등도 어획하고 있음.
- 어업활동은 예전에 비해 지금은 기계화되어 편리해진 편이라고 하지만, 고령화와 부족한 일손 때문에 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할 수 밖에 없다고 함.
- 비안도에는 140~150여 척의 배가 있는데, 목적에 따라 김 채취를 위한 배, 양식장에 약을 하는 배, 꽃게 등을 잡는 배, 사람이 타고 다니는 배 등으로 나뉘어 이용되고 있었고, 집집마다 보통 1척 이상 많게는 4척의 배를 소유하고 있음.

비안도 둘러보기

웅달샘(구래샘,구례샘)

남쪽 땅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이 있었던 샘으로, 이 샘은 100년 이상되어 아무리 가물어도 365일 물이 마르지 않는 시원하고 맑은 샘이어서 식수로도 사용하였고, 여자들은 주로 12시까지, 남자들은 1시부터 몸을 씻었다고 한다. 현재의 이 샘은 약간의 물만 줄줄 새어나오고 있음.



구례샘에서 인터뷰하는 장면

용낭굴(용궁해변)

구례샘에서 해변 남쪽으로 쪽 돌아가면 용이 솟았다고 믿는 용낭굴(용궁해변)있으나 길이 없어 갈 수 없음.

당산

마을 뒷산 중턱에는 당산이 있고, 당산에는 당집도 있어 예전에는 당산제도 했었으나 박정희 대통령 때 미신타

파 운동으로 불태워졌고, 지금은 커다란 당산나무(팽나무)와 당집이 있었던 돌담만 약 4~5m 흔적으로 남아 있는데 비안도 사람들은 이 당산나무와 당집이 있었던 터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함.

당시 이 당집에 4점의 상과 2개의 큰 쌀독이 있었다고 한다. 쌀독 하나는 할아버지 또 하나는 당산 할머니를 모신 것으로 음력 정월 초사흘 날 새벽제를 지낼 때 남쪽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 닳았는데 부안 수역당(水域堂)에 있는 당산 할머니가 딸네 집에 건너오기 때문이라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이 곳은 제를 지낼 때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하고 마을 사람들은 춤을 추고 제가 끝난 후 음복을 하고 나서 농악을 치면서 당산마루에 베를 걸어놓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베의 양끝을 잡고 노래를 부르며 뛰어 노는 등 하루를 즐겁게 보냈다고 한다. 제가 끝날 무렵에는 동네 앞 바닷가에서 선창 제를 지내며 마을의 질병예방과 풍어를 기원하였다고 한다. 또한 집집마다 음식을 장만하여 뗏목에 실어 바닷가에 띄워 보내는데 이를 ‘시식’배라하여 마을의 액운을 모두 띄워 보낸다고 믿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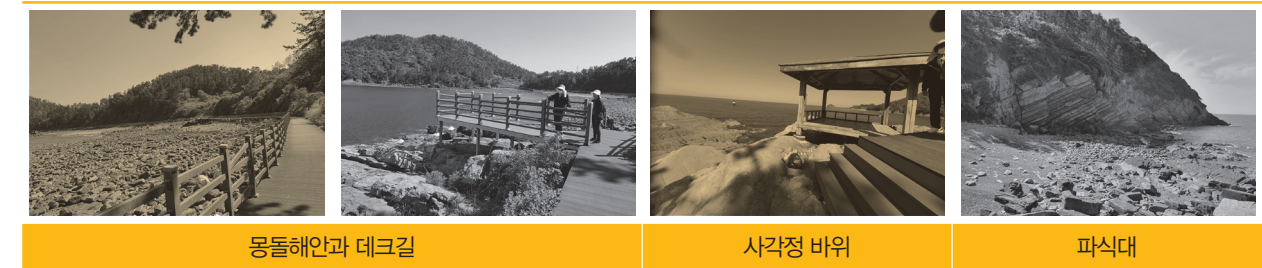
- 출처 : 지역N문화 -

띠벳놀이

한 해의 나쁜 액운을 모형의 배에 실어 바다에 띄워 보냄으로써 마을의 안녕과 해상 안전, 풍어를 기원하기 위한 마을사람들의 제사의식으로 객선을 타고 내리는 선착장 부근에서 정월 보름날에 했었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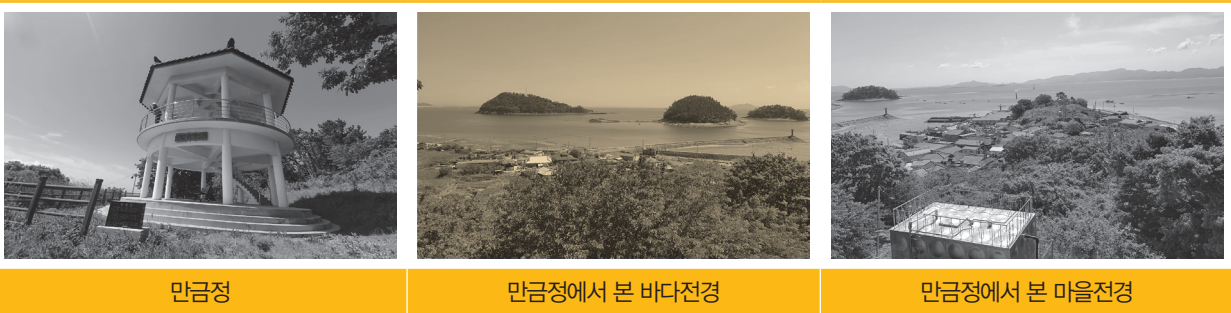
몽돌해안과 데크길

비안도 서쪽 해안에 오랜 시간동안 파도의 자극에 의해 만들어진 둥글둥글한 몽돌들이 해변에 700여m 이어져 있는데 사각정에 올라서면 파식대를 비롯한 해안 절경을 볼 수 있다. 또한 이곳은 광어, 도미, 갈치 등의 고급 어종을 낚을 수 있는 낚시 포인트 장소중의 하나이기도 함.



만금정

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팔각형모양의 전망대는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던 400여년 된 팽나무가 있었던 자리에 있음 비안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전라북도 강현욱 도지사가 2006년 5월에 세웠는데, 주민들은 강현욱 도지사의 호를 따라 만금정이라 이름 지었음.



고분떼 (고분군)

디지털군산문화대전 향토문화백과에는 어촌회관에서 서북쪽으로 약 700m떨어진 곳에 삼국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떼(고분군)가 있었다고 함. 찾아가 보니 인근에 비안도 전력발전소만 있고 잡초만 무성하였음.

초분

마을 주민은 고분떼는 모르고 초분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비안도에서는 정월에 돌아가신 분은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없다는 풍습과 집안의 운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짚으로 용마름을 짜서 초분을 만들어 3년 정도 두었다가 무덤을 만들어 매장 했다는 풍습도 있었다고도 함.



조개더미(패총)

디지털군산문화대전 향토문화백과에는 비안도 마을 남동쪽 구릉지대의 남쪽 기슭 하단부에 조개더미가 자리한다고 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었음.

조기너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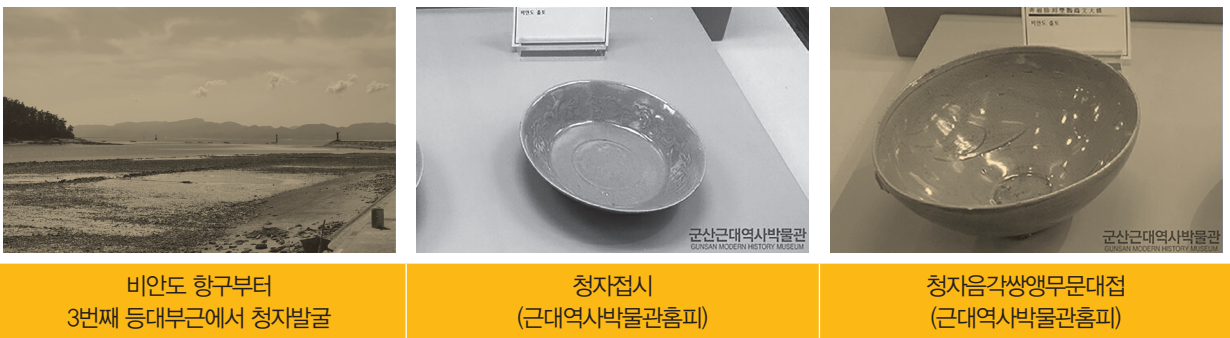
풍선(돛단배)을 타고 다니던 시절에 돌섬에서 조기를 많이 잡았는데 돌섬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조기너미라 했고, 칠산바다(영광, 위도,비안도 등)의 하나인 비안도에서 어획한 조기는 개화도 등에서 판매할 정도였다고 함.

고려청자

새만금 방조제를 막기 전에 물살이 엄청 빠를 때 바다 흙속에 묻혀있던 청자가 갯벌 밖으로 나와 비안도 앞 항구 3번째 등대 부근에서 발견되었는데 유물이 발굴되는 동안에는 어업활동이 두 달 정도 정지되는 등 불편을 겪었다고 함. 비안도 앞바다는 과거에 해상교역의 길목이었던 것으로 생각됨.

비안도 문화 추적 후기

- 고군산군도의 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등은 새만금 사업을 통해 육지화 되어 해양관광단지로 개발 및 발전하고 있지만, 비안도는 지리적으로 이곳과 떨어져 있어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섬으로서의 매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음.



- 현재의 비안도는 변변한 식당하나 없고 작은 슈퍼 하나 밖에 없는 개발이 전혀 되지 않아 비안도가 섬으로서의 다양한 매력과 멋을 발산하고 있었음.
- 2021년에 폐교된 비안도초등학교를 마을에서 운영하는 펜션으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며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가 있음
- 비안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지만 길이 없어 갈 수 없는 노구봉, 남쪽의 남봉산 등산로 개설과 해안가의 데크길 보수공사, 이밖에 몽돌해안, 파식대, 당산, 고분, 조개더미 등을 깊이 있는 연구와 보존, 적절한 개발을 통해 역사적, 문화적,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섬임을 알겠음.
- 비안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멋을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안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참고자료

이복웅(2009), 「군산지명의 유래」, 군산문화원
김중규(2001), 「군산역사 이야기」, 도서출판 안과 밖
<https://www.nculture.org/man/main.do>
<https://terms.naver.com/list.naver?cid=49359&categoryId=49359>

2. 은파호수공원 별빛다리의 생활문화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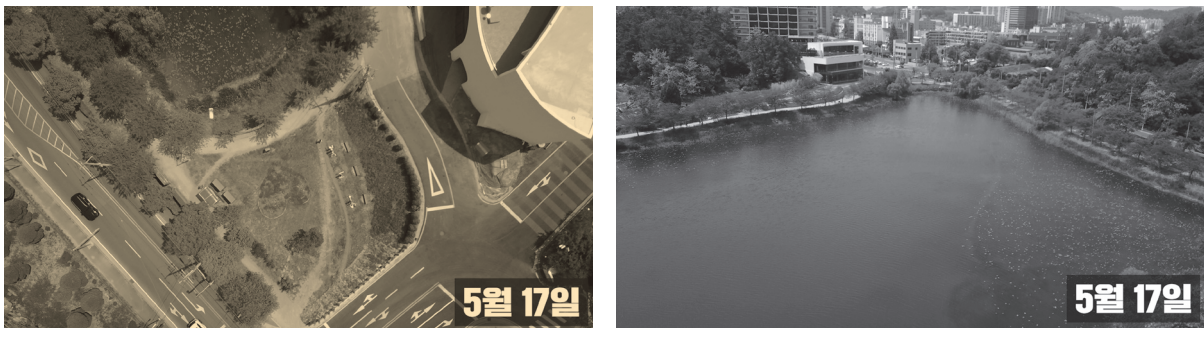
조사자	김수호 · 정다인								
조사 동기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들어 진지 얼마 안 된 별빛다리 광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지 궁금증에서 시작된 조사• 별빛다리에 찾아가 별빛다리 광장 풍경을 촬영하고, 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인터뷰 하는 형식으로 시민의 광장 문화를 조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별빛다리의 문화를 공유하게 함.								
활동 개요	<table><tr><td>컨설팅 받기</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에서 방향성 체크를 위한 컨설팅• 센터 전문위원과의 방문 상담• 센터 전문위원과 전화 상담</td></tr><tr><td>별빛다리 방문자 인터뷰와 사진 촬영</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7월 1일, 2일, 4일(오전, 오후), 5일(오전, 오후), 6일, 7일, 12일, 13일, 14일, 24일, 25일, 28일• 활동 : 은파의 별빛다리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산책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인터뷰와 영상자료로 담음</td></tr><tr><td>보고서 작성 및 ppt 워크샵 자료만들기</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6월 6일 ~ 7월 21일• 보고서 10회 분 발송• 워크샵 중간발표, 최종 발표 위한 ppt 발송</td></tr><tr><td>워크샵에서 발표</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 발표 (6월 16일)• 최종 발표 (7월 28일)</td></tr></table>	컨설팅 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에서 방향성 체크를 위한 컨설팅• 센터 전문위원과의 방문 상담• 센터 전문위원과 전화 상담	별빛다리 방문자 인터뷰와 사진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7월 1일, 2일, 4일(오전, 오후), 5일(오전, 오후), 6일, 7일, 12일, 13일, 14일, 24일, 25일, 28일• 활동 : 은파의 별빛다리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산책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인터뷰와 영상자료로 담음	보고서 작성 및 ppt 워크샵 자료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6월 6일 ~ 7월 21일• 보고서 10회 분 발송• 워크샵 중간발표, 최종 발표 위한 ppt 발송	워크샵에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 발표 (6월 16일)• 최종 발표 (7월 28일)
컨설팅 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에서 방향성 체크를 위한 컨설팅• 센터 전문위원과의 방문 상담• 센터 전문위원과 전화 상담								
별빛다리 방문자 인터뷰와 사진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7월 1일, 2일, 4일(오전, 오후), 5일(오전, 오후), 6일, 7일, 12일, 13일, 14일, 24일, 25일, 28일• 활동 : 은파의 별빛다리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산책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인터뷰와 영상자료로 담음								
보고서 작성 및 ppt 워크샵 자료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6월 6일 ~ 7월 21일• 보고서 10회 분 발송• 워크샵 중간발표, 최종 발표 위한 ppt 발송								
워크샵에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 발표 (6월 16일)• 최종 발표 (7월 28일)								

은파호수공원 기초 조사

5월 17일

은파호수공원 안에 있는 별빛다리를 답사하며 주변을 조사 하였다.(영상 촬영 및 드론 촬영)





은파 호수 공원의 영상

6월 12일

은파호수공원 입구에 있는 은파시민공원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 했다. 은파호수공원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도 표시되어 있는 미제 저수지 70여만 평의 호수 공원이다. 주변의 낮은 산과 더불어 100만평이 넘는 도심 속의 공원이다. 우리나라의 도심 호수 공원 중에서 제일 크며 자연 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공원이다. 은파호수공원 안에는 주차장, 물빛다리, 별빛다리, 공연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카페 및 음식점, 물놀이 보트장, 광장, 벚나무 산책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 문화추적단 중간 공유워크숍 이후 팀의 방향을 ‘별빛다리 광장 문화 조사’로 범위를 줄여 활동을 시작했다.



은파호수공원과 주변(드론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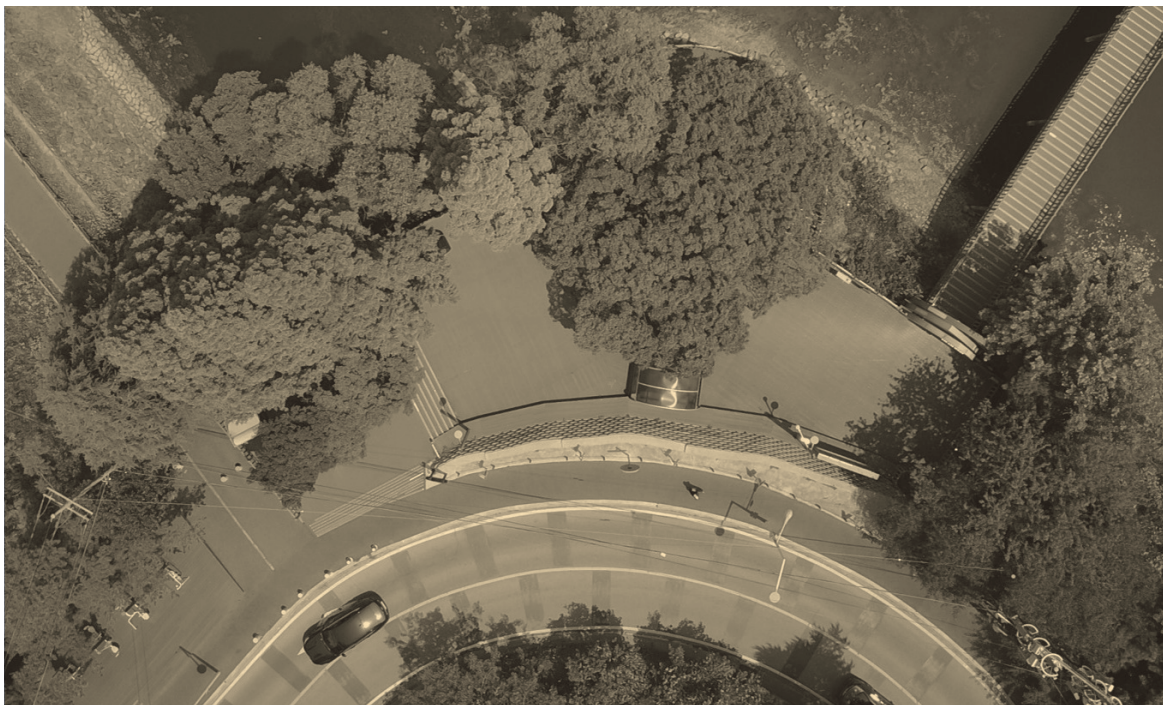
은파호수공원 별빛다리를 찾은 사람 인터뷰

INTERVIEW

7월 1일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hrbgwwlvF14>)

“은파호수공원 입구에서 여기까지 와서 잠깐 쉬었다가 스트레칭하고 가는 곳이에요. 여기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쉬면서 은파 호수 보면 참 좋아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사람 구경하기도 좋은 곳이에요.”

_ 광장 느티나무(김00 40대 여자)



별빛다리 시작점 광장



인터뷰 장소

7월 2일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rhnlHZOkPMZQ>)

“별빛다리를 걸으면서 수많은 생각들, 고민, 걱정을 하곤 하는데, 흙먼지떨이기에서 그런 생각들을 털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먼지떨이를 하고 나서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마음이 정말 가벼워질 거예요.”

_ 흙먼지떨이기계(정00 50대 여자)



인터뷰 장소

7월 4일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Dgwe__uRy9Q)

“이제껏 보지 못했던 각도에서 은파를 볼 수 있어서 새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존의 둘레길은 오르막 내리막이 심해서 힘들었는데 별빛다리는 다리를 통해 걷는 코스라 평지로 되어 있어 산책하기에 더 편한거 같아요.”

_ 별빛다리 (김00 30대 여자)



인터뷰 장소

7월 4일_밤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EJkrvD-LaYI>)

“흔들의자에서 혼자 앉아서 멍하니 은파호수공원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앉아서 멍하니 은파를 보는 시간이 있어요. 살면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_ 흔들의자 (이00 40대 여자)



인터뷰 장소

7월 5일_오전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Dgwe__uRy9Q)

“여기에 앉아서 친구나 가족들과 이야기 하는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의자도 편안하고 흔들흔들 흔들리니 더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해서 그런지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이야기 나눌 때도 있어요. 뭔가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곳이랄까요? 이런 의자가 은파 곳곳에 호수 바라보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_ 흔들의자(김00 50대 여자)



인터뷰 장소

7월 5일_오후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y73r5fW945Y>)

“생각을 정리할 때 종종 오는 곳이 별빛다리예요. 여기 오면 물소리, 바람 소리,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뭔가 도시와 분리된 느낌이라고 해야 해서 할까요? 그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생각 정리하러 걸으러 와요. 그냥 이어폰 없이 자연소리 들으며 머리를 정화 시키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오리가 있을 때도 있는데 그냥 보면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_ 김00 30대 남자



인터뷰 장소

7월 6일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4Tqqh8lBwuo>)

“은파호수공원 입구에서 여기까지 와서 잠깐 쉬었다가 스트레칭하고 가는 곳이에요. 여기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쉬면서 은파 호수 보면 참 좋아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사람 구경하기도 좋은 곳이에요.”

_광장 벤치(김00 40대 여자)



인터뷰 장소

7월 7일

“운동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쪽 직진으로 뺀 다리만 걸어서 끝에서 돌아오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좋아요.”

_ 별빛다리 (김00 60대 남자)



인터뷰 장소

7월 12일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kGHZAVMTQzQ>)

“예전에는 이곳이 그냥 지나치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항상 운동하고 가는 곳이죠. 그래서 그런지 체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_ 운동시설 (김00 40대 여자)



인터뷰 장소

7월 13일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KKS6HuP6mh4>)

“아이와 함께 별빛다리를 걸을 때마다 별빛다리 생겼다고 유모차를 끌고 처음 다리를 걸었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 유모차에 누워있던 아기가 벌써 커서 혼자서 걷고 뛰게 되었어요. 그때 생각하면서 별빛다리를 걸으면 ‘우리 애기 많이 컸네’ 생각이 들어요.”

_ (정00 30대 여자)



인터뷰 장소

7월 18일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txbYhENIAEI>)

“비 오는 날 은파경기 정말 좋은 곳은 별빛다리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데크로 되어있는 다리여서 그런지 흙 물을 일도 없고, 다리 위에 나무도 없어서 우산 걸리는 것도 없고 우산 쓰고 운동하기 정말 좋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주차해놓고 여기 올라와서 우산 쓰고 운동해요.”

_ 별빛다리 (고00 60대 여자)



인터뷰 장소

7월 24일

“가장 자주 이용하는 곳은 운동기구죠. 여기는 잠깐 숨도 돌릴 겸 몸 푸는 곳이에요. 여기서 허리도 돌리고 다리도 풀고 먼지도 털고 잠깐 의자에 앉아서 쉬었다 가는 곳이에요. 오늘은 축축해서 허리만 잠깐 놀리고 가네요.”

_ 운동기구(김00 40대 여자)



인터뷰 장소

7월 25일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keX6fGQpZlY>)

“별빛다리 만들어지기 전에는 밤에는 무서워서 이쪽(은파순환길)으로는 산책을 못 했어요. 근데 별빛다리 만들어지고 나서 밝아지기도 했고, 더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어서 여기서 자주 운동해요. 바로 물 위로 산책을 해서 그런지 바람도 잘 불고 답답한 느낌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생겼을 때는 바닥에 호수가 보이는 곳도 있었는데 지금은 잘 안 보여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재미있는 요소가 없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_ 별빛다리 (김00 40대 남자)



인터뷰 장소

군산시에 제안

은파호수공원 홈페이지

군산시에서 은파호수공원의 지리, 역사, 생태, 문화, 카페 및 식당 등 휴식 공간, 이용 방법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 하여 운영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은파호수공원 수질 관리 및 녹지 보존

은파호수공원은 호수와 더불어 주변 산림이 잘 보존 되어 조용히 산책하기 좋은 시민의 휴식 공간이다. 별빛다리를 찾는 시민들의 인터뷰 결과 조용히 산책하며 사색하고 휴식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파호수공원의 수질관리와 더불어 주변 산림에 대한 보존이 더욱 소중하다.

3. 팔마산의 생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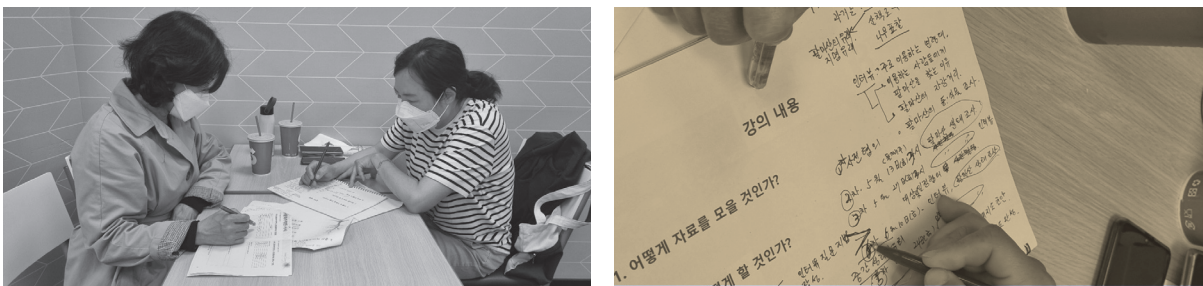
조사자	유복금 · 김정선	
조사 동기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 스스로 지역의 자산을 발굴하고 누리는 경우가 많지 않음• 군산의 관문 역할을 했던 팔마재 근처에 있는 팔마산의 생태를 정리하여 군산시민에게 알리고 싶음.• 조사 방법은 생태전문가와 동행하는 현장조사와 인근주민들의 인터뷰임• 조사를 통해 팔마산의 생태를 알아내고 생태지도를 제작함	
활동 개요	컨설팅 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에서 방향성 체크를 위한 컨설팅• 문정현 전문위원과의 방문 상담• 문정현 전문위원과 전화 상담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5월 1일, 27일, 28일, 6월 10일, 7월 15일• 활동 : 계획 세우기, 인터뷰질문 작성, 인터뷰결과 정리, 생태지도 만들기
	현장조사와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5월 13일, 6월 2일, 24일, 7월 8일• 활동 : 마을 주민 인터뷰 와 팔마산
	문헌자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5월 2일 ~ 6월 28일• 조사 문헌 사이트 : 지역N 문화, 오마이뉴스, 디지털군산문화대전 향토백과
	보고서 작성 및 워크샵 자료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6월 6일 ~ 7월 21일• 보고서 10회 분 발송,• 워크샵 중간발표, 최종 발표 위한 ppt 발송
	워크샵에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 발표 (6월 16일)• 최종 발표 (7월 28일)

회 의

1차 회의

- 일시 : 2022, 5.1(일)
- 장소 : 커피가게
- 회의 내용 : - 계획일정 세우기
 - 문헌조사 : 팔마산의 유래 알아보기(군산역사이야기 참고)
 - 생태조사 : 팔마산의 동물, 식물 조사

- 인터뷰 : 팔마산을 찾는 이유 질문, 팔마산의 자랑거리 질문
- 성과물 : 팔마산 생태지도 만들기



1차 회의 장면

2차 회의

- 일시 : 2022년 5월 27일
- 장소 : 아프리카 커피 케냐점
- 활동내용 : 인터뷰 질문지 만들기
 - (인근 거주민일 경우)동네에서 사시게 된 시기와 배경은?
 - 팔마산에 대해 아시는 것(유래, 변천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팔마산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산책을 하기 위해, 체육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경관이 아름다워 등)
 - 팔마산의 사계절 특징은 무엇인가요?
 - 팔마산의 좋은점,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 주기적 방문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 (앞으로)팔마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인터뷰 준비물

- 조사자 소개 명함 - 설문지
- 조사내용 활용 동의서 - 조사자 답례품(볼펜, 생수1병, 과자꾸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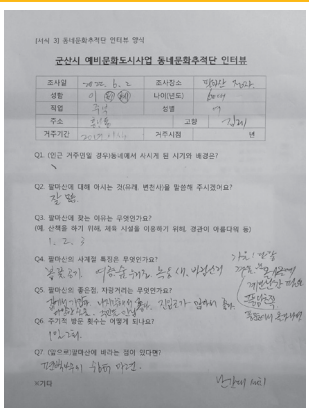
질문지에 관한 의견모으기



생태지도 밀작업

3차 회의

- 일시 : 2022년 6월 10일
- 장소 : 커피가게
- 활동 내용 : 인터뷰 결과 정리
 - 팔마산이 쾌적함을 유지하는 것은 팔마산 지킴이가 있어서 라고 함.
 -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매일 팔마산에 올라 길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고, 정자를 청소하는 등 자발적 봉사를 수년째 거듭하고 있다고 함.
 - 한일 아파트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너무 가파르고 힘이 들어 연세 드신 분들이 오르기를 힘들어 하시니 난간대를 설치해 주었으면 함.
 - 단체로 일찍 산을 찾는 사람들의 고성으로 거주민이 불편을 느끼므로 주의를 부탁하는 표지판을 설치해 주면 좋겠음.



인터뷰 결과지

4차 회의

- 일시 : 2022년 7월 15일
- 장소 : 커피가게
- 활동 내용 : 생태 지도 만들기
 - 위성사진을 준비
 - 방위 및 산책로/출입구 위치/정상/산책로를 따라 분포된 나무 표시
 - 확인 작업



생태 지도 초안



생태 지도 밀작업



팔마산 생태 지도

5차 회의

- 보고서 정리
 - ppt 완성하고 보고서 마무리 하기

문헌 조사

- 일시 : 2022년 5월 15일
- 장소 : 인터넷
- 조사내용 : · 2021. 12. 21 [군산을 걷다#51] ‘팔마산-팔마재’ 존재 – 정영욱 기자
 - “팔마광장오거리는 대로와 소로가 얹혀 있어 일반적인 도로와 달리 오거리를 형성, 여전히 우리와 가까이에 있다. 중앙로와 번영로, 해망로, 동팔마길, 경암로 등과 합쳐지거나 교차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 공간은 한때 광장이 존재했고, 그곳에서 시청 방향으로 몇 십 미터가량 다시 이전하기도 했으나 오늘날은 알아보기 힘들다”
- 군산야구 100년사를 취재한 조종안 기자가 다른 매체에 기고한 글
 - “1908년 일제가 호남평야 쌀 수탈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개설한 신작로(전군도로)를 ‘대한길’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팔마재를 넘어 가는 사람이면.....’대목이 눈길을 끈다. 당시엔 사람들이 고개를 넘어 다녔고, 기념비도 ‘고개(언덕 치:峙)’ 입구에 세워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서다. 옛 지도를 보면 팔마산은 경포천까지 뻗어 있었으나 한국전쟁 때 미군이 옥구선(군산-옥구)을 개설하면서 상당 부분 잘려 나간다.. 중략...”
 - “팔마산은 동홍암동에 있는 산으로 해발 43.7m이다. 지형이 여덟 마리 말이 있는 형국이라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산 서남쪽 아래에는 군산고등학교와 전주교대 부속초등학교 등이 있으며 이 산은 흥남공원으로 불리고 있다. 이곳 정상에서 보면 사방팔방으로 군산 시내가 눈에 들어오고 다른 산들이 연이어 보이는 그야말로 군산(群山)임을 보여준다. 이 야산은 한국전쟁기 이후 초가집과 판잣집 모양의 촌락들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2011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경관 숲이 조성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옛날에는 군산사범학교(지금은 군산고) 등의 뒷산이 팔마산이었고, 사정동 방면에서 한일아파트 쪽 철로 건널목 주변을 잇는 고개가 ‘팔마재’였단다. 팔마재는 철로를 따라 지금의 군산고 쪽에 있는 팔마산으로 도는 곳을 ‘바람매’라고 했다. 물론 바람매라는 말의 유래는 이곳의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바람이 돌면서 많이 분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 “그 당시만 해도 이곳 팔마재는 아침이면 회현, 대야, 옥산, 상평 등에서 지게는 물론 마차와 소달구지 또는 리어가, 짐자전거 등으로 쌀들을 싣고 와서 사고파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쳤단다. 이런 연유로 팔마재라 하면 군산의 관문이요, 또한 쌀시장이 형성된 곳이라 할 수 있다.”

현장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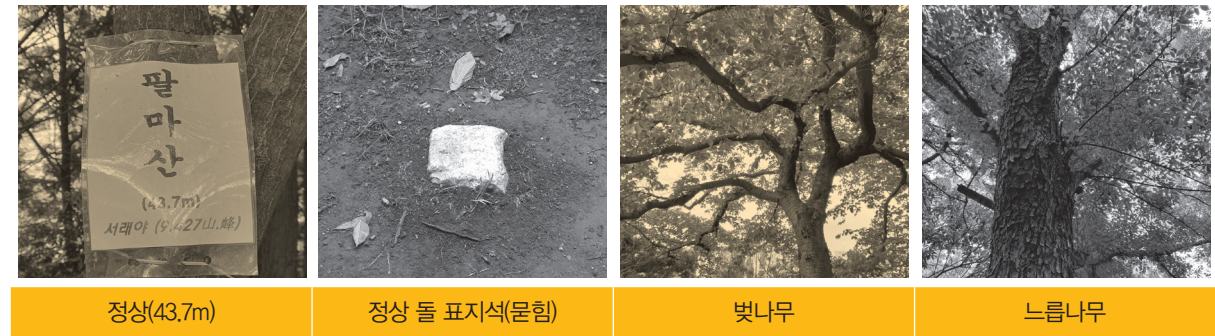
1차 현장조사

- 일시 : 2022년 5월 13일
- 장소 : 팔마산
- 활동내용 : – 북쪽에 위치한 입구의 팔마산(흥남공원) 이용 안내도 조사
 - 주출입구, 보조 출입구 및 산책로 조사, 탐방로 조사



2차 현장조사

- 일시 : 2022년 6월 24일
- 장소 : 팔마산
- 활동내용 : – 입구(북쪽, 한일아파트쪽)를 따라 계단을 오르며 서쪽으로 향한 길에 분포하는 식물 조사



3차 현장조사

- 일시 : 2022년 7월 8일
- 장소 : 팔마산
- 활동내용 : - 생태조사



4차 현장조사

- 일시 : 2022년 6월 2일
- 장소 : 팔마산(동쪽) 정자
- 활동내용 : 현장 조사
 - 산책로 파악하기현장 인터뷰 실시
 - 정자에 앉아 산에 오르는 분들에게 인터뷰 취지를 말씀드리고 협조 요청함. 팔마산에 대해 간 단한 대답은 했으나 자필로 쓰는 것에는 주저함.



참고자료
이복용(2009), 「군산지명의 유래」, 군산문화원
김중규(2001), 「군산역사 이야기」, 도서출판 안과 밖
<https://www.nculture.org/man/main.do>
<https://terms.naver.com/list.naver?cid=49359&categoryId=49359>

4. 군산의 우물

개요

조사자	성경아 · 강희선										
조사 동기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안에 있는 우물은 마을사람들의 의사소통의 장이었다. 우물의 장소성은 마을의 핵심역할을 하였다. 지금은 수돗물로 인해 각자 도생하게 되었지만 옛 시절 공동의 우물은 공동체의 핵심역할을 했다. 우물조사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의 흔적을 찾고 싶다.• 조사 방법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물에 관련된 인터뷰를 하거나 설화를 조사기록 함.• 군산시 전체가 아니라 회현면, 개정면, 옥산면, 해신동사무소 권역, 월명동사무소 권역에 있는 공동우물을 조사해서 기록으로 남기려 함.										
활동 개요	<table><tr><td>컨설팅 받기</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에서 방향성 체크를 위한 컨설팅• 문정현 전문위원과의 방문 상담• 문정현 전문위원과 전화 상담</td></tr><tr><td>현장 방문</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5월 12일, 20일, 28일, 6월 10일, 15일, 7월 10일• 활동 : 신흥동말랭이마을, 신흥동일본식가옥, 남내리용호마을, 임피역, 아동남로, 명산시장, 우체동거리(중정길), 사오랫마을, 정안사, 회현마을</td></tr><tr><td>인터뷰 활동</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5월 21일, 28일• 활동 : '다리' 갤러리 주인, 정안사 주지스님</td></tr><tr><td>보고서 작성 및 워크샵 자료만들기</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6월 6일 ~ 7월 21일• 보고서 5회분 발송• 워크샵 중간발표, 최종 발표 위한 ppt 발송</td></tr><tr><td>워크샵에서 발표</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 발표 (6월 16일)• 최종 발표 (7월 28일)</td></tr></table>	컨설팅 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에서 방향성 체크를 위한 컨설팅• 문정현 전문위원과의 방문 상담• 문정현 전문위원과 전화 상담	현장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5월 12일, 20일, 28일, 6월 10일, 15일, 7월 10일• 활동 : 신흥동말랭이마을, 신흥동일본식가옥, 남내리용호마을, 임피역, 아동남로, 명산시장, 우체동거리(중정길), 사오랫마을, 정안사, 회현마을	인터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5월 21일, 28일• 활동 : '다리' 갤러리 주인, 정안사 주지스님	보고서 작성 및 워크샵 자료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6월 6일 ~ 7월 21일• 보고서 5회분 발송• 워크샵 중간발표, 최종 발표 위한 ppt 발송	워크샵에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 발표 (6월 16일)• 최종 발표 (7월 28일)
컨설팅 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에서 방향성 체크를 위한 컨설팅• 문정현 전문위원과의 방문 상담• 문정현 전문위원과 전화 상담										
현장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5월 12일, 20일, 28일, 6월 10일, 15일, 7월 10일• 활동 : 신흥동말랭이마을, 신흥동일본식가옥, 남내리용호마을, 임피역, 아동남로, 명산시장, 우체동거리(중정길), 사오랫마을, 정안사, 회현마을										
인터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5월 21일, 28일• 활동 : '다리' 갤러리 주인, 정안사 주지스님										
보고서 작성 및 워크샵 자료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6월 6일 ~ 7월 21일• 보고서 5회분 발송• 워크샵 중간발표, 최종 발표 위한 ppt 발송										
워크샵에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 발표 (6월 16일)• 최종 발표 (7월 28일)										

조사 내용

신흥동(말랭이마을)

- 골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근대와 현대가 함께 공존하는 지역 : 1960년대부터 빈 땅과 밭에 오막살이가 지어 졌음.
- 그 작은 집들을 따라 골목길이 나고 물(우물)을 파는 집이 생겨나면서 구멍가게와 쌀집, 연탄가게도 생겼다고 함.
- 해망동에서 바다를 기대어 주로 먹고 살았고 돈을 번 뒤에야 이 마을을 떠날 수 있었다고 함.



신흥동 말랭이 우물

신흥동 일본식 가옥 내 우물

신흥동 일본식 가옥(구, 히로쓰가옥)

- 일제 강점기에 포목점과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며 군산부협의회 의원을 지낸 일본인이 건립한 일본식 2층 목조 가옥 안에 우물이 있음
- 대표적인 근대기 주택으로서 건축물의 규모가 크고 원형이 잘 보존되어 2005년 국가 등록 문화재 제 183호로 지정 (군산시 문화관광)

남내리(용호마을)

- 청암산 아래에 물이 많았던 동네로 우물하나를 온 마을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
- 군산호수는 명당터라는 이유로 일제가 일부러 수몰시켜 만든 인공호수인데 이 때 수몰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주변에 뿔뿔이 흩어져 마을을 형성
- 물이 많은 지역이어서 농사짓기 좋고 생산량도 많았으며, 지금도 남아 있는 우물은 농수로 이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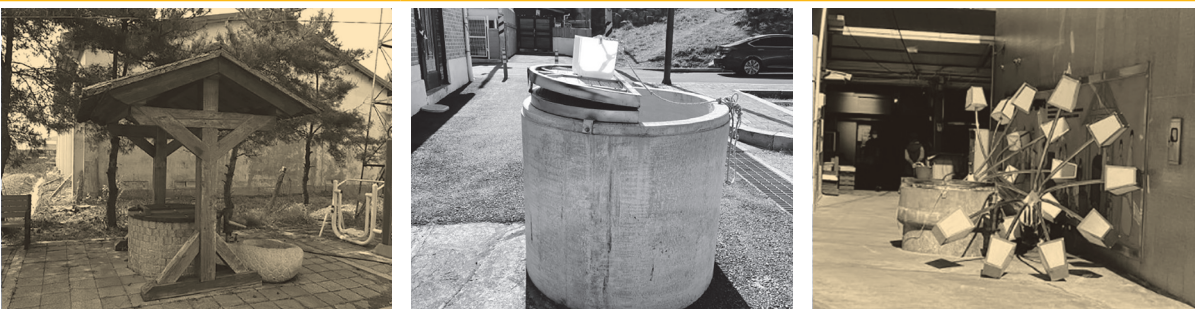
우체통 거리(옛 중정길)

- 지금의 우체통 거리 일대는 소설 탁류의 중심지(큰샘거리)로 일제가 축항공사와 간척공사를 통해 주거지와 상공업지로 조성, 일자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우물이 필요해짐
- 1928년부터 1930년대 초까지 돌산을 깎아내는 난공사를 거쳐 1935년 7월 소화통이라는 새길을 포장 완료
- 돌산이어서 물이 많았고, 군산주조주식회사, 간장공장, 일제의 사찰 등이 많아서 우물이 많았다고 함(조종안 기자의 글 '군산 명치정과 소화통에서')



남내리(용호마을) 우물 모습

우체통 거리(옛 중정길) 우물



임피역 우물 모습

명산시장 우물과 주변 전경

임피역

- 임피역은 1936년 군산선의 철도역으로 건립, 일제 강점기 쌀을 수탈하기 위해 세워짐.
- 농촌지역 소규모 간이 역사의 전형적인 건축양식과 기법을 보여줌
-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2013년 이후에는 전시실로 이용

명산시장

- 1920~30년대 일제 강점기에 기생집거리로 불리던 곳으로 일본인들에게 물건을 팔면서 시장이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면서 시장이 형성됨
- 시장 내의 샘물을 두레박으로 길어 먹던 우물 1호, 2호 2개의 우물이 보존되어 있음

사오갯 샘

- 청암산은 샘산이라고 불렸고 저수지를 끼고 있는 마을 특성상 지하수위가 낮아 공동으로 이용하였던 샘
- 이 샘은 회현면 고사리, 내성리, 월평리 사람들 뿐 아니라 회현 외 사람들도 물지게로 물을 길어갈 정도로 수량이 풍부하고 물맛이 좋기로 소문난 샘
- 축동마을 사람들이 콜레라도 이기게 한 샘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음

정안정(정안사)

- 정안사는 옛날 전투에서 희생된 원혼을 달래기 위한 절이라고 전해짐
- 청암산 인근 주민들과 등산객을 위해 우물과 약수터를 제공하여 알려지게 됨
- 옛날 고사동에 살던 어린 아이가 천연두로 사경을 헤매다 이 우물물로 씻은 후 완치한 후에 불문에 입문하여 정안사를 지었다고 하며 감로수로의 역할을 하였다고 함



사오갯 우물과 주변 전경

정안사 우물

Gallery 다리(군산시 아동남로 77)

- 개인이 30년 간 소유하고 있던 큰 우물을 3년 전에 상부만 보수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함
- 갤러리가 있는 장소는 예전에 공장도 하고 창고로 사용하였던 곳이었고 우물이 큰 편이어서 동네에서 다 이 우물을 사용하였다고 함
- 옛날에 미나리깡도 있는 등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물이 고이고 풍족하였던 곳이었음.
- 우물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 인근 충량마을 어르신들로부터 이 우물이 150년 전 부터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음



갤러리 다리의 우물과 주변 전경

회현마을

- 회현마을은 청암산(군산호수) 아래에 물이 많았던 동네로 저수지가 많았고 가구마다 우물이 있을 정도로 동네 크기에 비해 우물도 매우 많이 남아 있음
- 새로 이사 들어온 주민들도 우물의 보존가치를 알고 개보수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이런 특별한 지역의 특성을 살려 '우물 테마 단지 조성' 을 제안함



회현마을의 우물들

군산 우물지도



군산 우물지도(회현면, 개정면, 옥산면, 해신동, 월명동)

5. 도심 숲 공원

개요

조사자	박영미(취재 및 글 담당) · 안효선(사진 담당)	
조사 동기·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숲세권’ 또는 ‘공세권’이라는 이름으로 숲이 도시 속으로 찾아오고 있음. 숲과 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환경에도 크게 일조함. 아파트 근처, 동네 근처로 직접 찾아온 숲과 공원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 시민이 모이는 곳에 문화가 있듯, 군산의 숲세권은 문화의 광장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해 봄.• 군산의 도시 숲(숲세권)을 찾아서 팀은 최근 조성된 금암동 도시재생숲, 경포천 서래숲길, 신흥동 도시숲과 월명공원 동백특화숲, 구암역사공원 도시숲을 다녀왔음. 군산의 미래의 숲을 거닐며 이곳에서 느낀 산책 소회와 감상 포인트를 짚어주고자 함. 더 나아가 도심 속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서 가치와 활용계획도 살펴보고자 함.	
활동 개요	컨설팅 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에서 방향성 체크를 위한 컨설팅• 문정현 전문위원과의 방문 상담• 문정현 전문위원과 전화 상담
	숲세권 현장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5월 21일, 28일, 6월 1일• 활동 : 몽돌해변과 테크길, 만금정, 고분떼, 웅달샘, 당산, 조개더미 현장 답사. 주민 인터뷰
	인터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5월 21일, 28일• 활동 : 마을 주민 인터뷰
	문헌자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5월 2일 ~ 6월 28일• 조사 문헌 사이트 : 지역N 문화, 디지털군산문화대전 향토백과
	보고서 작성 및 워크샵 자료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6월 6일 ~ 7월 21일• 보고서 10회 분 발송,• 워크샵 중간발표, 최종 발표 위한 ppt 발송
	워크샵에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 발표 (6월 16일)• 최종 발표 (7월 28일)

철길 따라, 바람 따라 ‘금암동 도시재생숲’

하늘 향해 곧게 뻗은 메타세쿼이아가 공원을 감싸고 있는 금암동 도시재생숲은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수십 년째 방치된 한화건설(구. 우풍화학)과 운행이 중지된 군산 화물선의 폐철로를 활용하여 원도심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시민의 숲이다. 꾀보선창가 항구 쪽에서 부는 시원한 바닷



금암동 도시재생숲 일원

바람과 이제는 흔적만 남은 철길이 관통하며 여전히 사람 냄새 나는 신영시장과 공설시장을 사이에 두고 자리해 있다. 미국에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군산에서는 금암동 도시재생숲이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자연경관은 우수하다. 푸른 바다색을 닮은 하늘과 피톤치드 향이 폴폴 풍길 것 같은 나무, 현대적 감각의 숲길 조성은 지나가는 시민들을 발길을 붙잡고 잠시 쉬게 만든다.



금암동 도시재생숲 입구



폐철도 옆 식재된 꽃

신영시장 주차장 뒤편에 위치한 금암동 도시재생숲은 총면적 8,754㎡의 넓은 부지로 가든존, 피크닉존, 다이나믹존, 포레스트존 등 테마별로 공간을 조성했다. 시민들이 직접 헌수해주신 대왕참나무, 맥문동, 노란줄비비추, 회양목 외 15종 9만여 본의 수목을 식재해 숲을 만들었다. 그리고 파고라, 야외테이블 등의 편의시설과 경관조명을 설치해 낮과 밤 모두 편안한 쉼터로 이용할 수 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중앙로에서만 살았다는 유선주(49세) 씨는 “금암동 도시재생숲 자리는 예전에 우풍화학 자리로 몇 십 년째 활용하지 못하고 비어 있었다. 폐자재 등이 널브러져 있어 보기에도 흉물스러웠는데 숲길이 조성돼 100프로 만족스러웠다. 5월에는 수국이 피고, 9월에는 코스모스가 피어 꽃들로 계절을 알 수 있어 행복감이 든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밤에 조명이 생각보다 어둡다는 점과 운동기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직은 나무 그늘도 적은데, 차츰 좋아질 거라 예상된다. 넓고 쾌적한 부지가 가족 나들이나 아이들을 위한 놀이체험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을 듯싶다. 앞으로 금암동 도시재생숲의 눈부신 활용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작년 이곳에서 마을방송 행사를 진행했다는 오성우(46세) 씨는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과 연계한 마을방송을 작년 추진했는데 햇빛과 나무, 바람 삼박자가 어우러진 뜻밖의 자연공간이었다. 북적거리던 시장을 지나 한적한 숲길이 있다는 것도 신의 한 수다. 무엇보다 신영시장 주차장 바로 옆에 자리해 주차 걱정 없이 이곳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군산의 핫 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짜보선창, 콘텐츠팩토리, 수제맥주집 등이 인근에 자리해 있다는 것도 도시재생숲의 메리트를 높게 만든다. 프리마켓, 맥주축제 등 젊은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광장으로도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금암동 도시재생숲이 전통시장과 군산의 핫플레이스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오랫동안 폐허처럼 방치된 공간이 도시재생을 통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곳을 산책하거나 걷는 시민들이 도심 속 숲길과 휴식공간을 무척 반기는 분위기다.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프리마켓, 가족나들이, 폐선로를 활용한 꼬마기차놀이터, 군산수제맥주축제 등 시민들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광장 형태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금암동 도시재생숲에 식재된 꽃



노란줄비비추

아직은 식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울창한 느낌은 없지만, 나무들이 자라 거대한 숲을 이루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 안에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미국의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군산의 큰 쉼터이자 광장으로 자

리 잡을 것이라 예상된다. 끝으로 이곳을 추적한 추적단으로서 금암동 도시재생숲이라는 투박한 이름보다 애정이 담긴 친근한 숲길 이름을 나름 고민해봤다. 바로 철길바람숲길, 꾀보광장, 군산 메타세콰이어공원, 뜻밖의 숲, 파랑숲 등이다.

활용계획

폐철로를 활용한 꼬마기차놀이터, 프리마켓, 가족나들이 캠핑장, 군산수제맥주축제 등

추적단이 고민한 새로운 이름

철길바람숲길, 꾀보광장, 군산 메타세콰이어공원, 뜻밖의 숲, 파랑숲

아파트 사이 명품숲길 ‘경포천 서래숲길’



경포천 서래숲길



서래숲길 촬영 모습

아파트 사이에 명품 숲길이 조성되었다. ‘경포천 서래숲길’이다. 서래숲길은 서울로 가는 포구라는 뜻의 슬에포구 또는 서래포구로 불렸던 경포(京浦)의 옛 이름에서 착안해 지은 이름이다. 군산시 옥산면에서 발원한 경포천은 길이 5.3km로 군산시 동부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금강 하구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금강으로 흘러드는 입구에는 수문(水門)이 있어 강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고 홍수를 조절해 준다. 조선시대에는 상인들이 하천을 따라 농산물과 생필품을 교역하던 곳이다. 주변에 넓고 평탄한 평야가 발달하여 이 고장의 주요 곡창지대를 이뤘다.³⁾ 군산의 수문역할과 농업환경을 책임졌던 경포천이 이제는 도심 속 자연과 함께 살아 숨 쉬는 생태공간이자 힐링 공간으로 거듭났다.

3) 네이버 지식백과

경포천 서래숲길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해 산책 이용도가 높은 미장교에서 송정교까지 1.6km(양방향 3.2km) 구간에 숲길을 연결했다. 메타세콰이어 등 큰 나무를 식재해 나무 그늘을 제공하고 왕벚나무, 이팝나무, 꽃땃강 등 화목류와 다년생 초화류 및 상록성의 홍가시나무, 써니스마라그, 에메랄드그린 등을 식재했다. 인도는 데크를 연결해 확장하고 주요 지점에 관망 휴게쉼터를 조성했다.

수송동에 거주한다는 김정자(72세) 씨는 “산책 및 운동하려면 은파호수공원이나 월명산을 가야 했는데 이제 멀리 가지 않아도 내 집 앞이 산책로가 됐다.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이곳에 나와 산책을 하고 있다. 길이 시원하게 뻗어져 있어 답답하지 않고 좋다. 아파트 사이에 하천과 연결된 산책로이자 숲길을 조성해 이곳 주민들은 대단히 만족스러워한다”고 말했다.

하천을 따라 수송동과 미장동, 경장동을 연결하는 서래숲길은 다리 밑까지 인도로 연결해 그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군산 주민의 삶과 문화, 역사를 기록하는 조종안 기자의 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군산은 예로부터 어족자원이 풍부했다. 그중 가장 번성했던 민간인 포구가 경포였다. 경포(京浦)는 호남지방 물화를 이곳에서 서울로 올려 보낸 데서 유래한다. 경포는 서울을 비롯해 강경, 전주, 태인 등 전국 각지로 물화가 오갈 정도로 큰 포구였다. 군산 개항 이후에도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일제가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1918년 장재동에 상설시장을 개설하고 1920년대 중반 꾀보선창을 조성하면서 쇠락하였다. ‘무역 루트’로 어선과 장삿배가 꼬리를 물었던 경포천 역시 ‘깨꼬랑(갯고랑)’으로 전락한다.」⁴⁾



시민 인터뷰 모습



산책 중인 시민들

4) 오마이뉴스 조종안 기자, 「군산 주민들의 삶과 문화, 역사가 느껴지는 흔적들①」

지난 6월 14일에는 이곳을 산책 중인 시민이 1급수에서 서식한다는 수달을 발견해 동영상으로 촬영, 뉴스에 보도됐다. 김씨가 제공한 영상에는 수달 한 마리가 경포천에서 수영하며 이동하는 모습과 물고기를 사냥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수달은 불법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1982년 천연기념물 330호, 2012년에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특히 하천 생태계의 건강함을 증명하는 이른바 ‘지표종’으로 불리며, 좀처럼 도심에서 보기가 힘든 동물이다.⁵⁾ 경포천 서래숲길이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공간으로 거듭나야 되는 이유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시민은 “아파트 도심 한 가운데 자리한 서래숲길은 사람 왕래가 많은 곳이다. 시끌벅적한 공연과 행사보다는 매일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 쾌적한 코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산책로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숲이 인접해 있어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역을 ‘숲세권’이라 한다. 하천과 숲길, 도시의 아파트가 한데 어우러진 경포천 서래숲길이 숲세권의 대표주자가 아닐까 생각한다.

활용계획

군산 대표 도심 산책로 코스 개발, 수달 방문하는 1급수 하천 홍보, 소음 적은 소규모 모임 장소 등으로 활용

아파트 사이 명품숲길 ‘경포천 서래숲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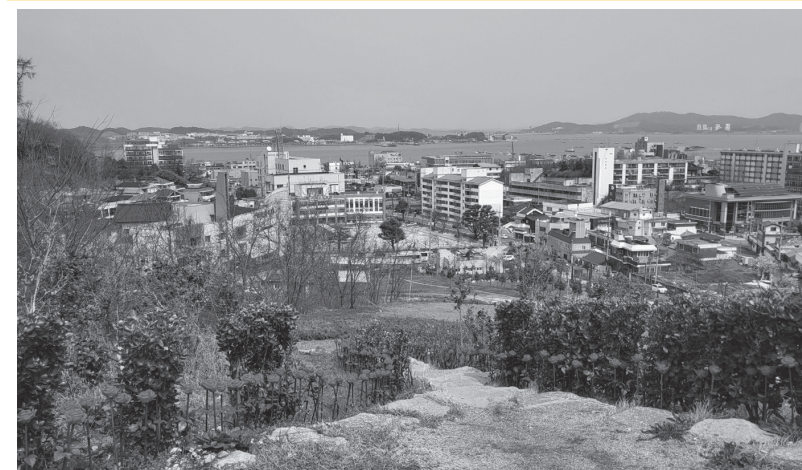


신흥동 도시숲 ‘달빛품은 언덕’

5) 전북일보 기사, 「군산 경포천서 천연기념물 수달 발견 '화제」

군산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월명공원은 시민들에게 오랜 추억이 서려있는 친숙한 공간이다. 학교에서 첫 소풍으로 갔던 기억, 가족나들이 등 소중한 시간 등이 가득하다. 그 옛날, 푸르름 가득했던 월명공원이 테마가 있는 공원과 도시숲으로 다시 태어났다. 먼저 월명공원에서 익숙하게 볼 수 있었던 동백나무를 최근 동백특화숲으로 조성했다. 군산의 시화인 동백꽃은 월명공원에 많이 자생하는 꽃으로 서리와 눈 속에서도 고고한 자태로 의연하게 승화하는 군산시의 시민정서를 상징한다. 군산시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동백꽃을 월명공원 오색정원에서부터 수시탐 일원에까지 2,248본을 식재했다. 이미 자생하는 동백꽃과 어울려 붉은 꽃이 만발하면 아름다운 장관을 선사할 것이다. 떨어진 동백 꽃잎조차 아름다워 산책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군산에서 8년째 거주 중인 정미숙(45세) 씨는 “경기도에서 살다가 군산으로 이사와 월명공원에 갔는데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다워 홀딱 반했습니다. 점방산 전망대에 오르면 군산 시가지와 금강하굿둑, 서해, 외항, 비행장 등이 한 눈에 보여 가슴까지 뻗 뚫리는 기분입니다. 특히 푸름 가득한 공간에 붉은 동백꽃의 자태에 넋 놓고 사진을 연신 찍었습니다. 5년 뒤, 10년 뒤 동백특화숲이 얼마나 아름다워질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라고 말했다.



군산내향이 훤히 보이는 신흥동 도시숲



월명산 수시탐

월명산 자락의 또 다른 변화는 ‘신흥동 도시숲’이다. 이곳은 최근 군산 변화의 중심에 선 말랭이마을과 쌍벽을 이루며 군산 문화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주택지와 인접해 있는 자연재해위험 정비지역의 훼손된 산림을 복원해 지난 2015년 신흥동 도시숲 공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특히 최근 예술문화공간으로 달그락거리는 말랭이마을과 함께 군산의 핫 플레이스로 손꼽히고 있다. 게다가 신흥동 도시숲공원은 ‘달빛 품은 언덕, 군산을 바라보다’ 사업을 추진해 군산에서 야간경관이 아름다운 공간으로 등극하고 있다. 군산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달 조명물과 주황빛 조명이 감도는 초승달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안 찍고 넘어갈 수 없다. 낮에 찾아도 아름답지만 요즘 같은 여름날, 시원한 바닷바람 부는 신흥동 도시숲 야간 경관은 여름 무더위도 잊을만큼 힐링이 되는 숲

이다. 여러 갈래의 길마다 색색이 조명이 그곳의 운치를 더한다. 정자가 있는 공간에는 바닥에 빔 프로젝트가 설치돼 군산의 대표 관광지의 이미지를 계속 비춰준다.



월명산 동백특화숲



신흥동 도시숲 야간경관

문화동에 거주하는 조성룡(52세) 씨는 “이른 근무시간으로 저녁밖에 운동 또는 산책할 시간이 없는데 신흥동 도시숲을 알게 된 이후로는 줄곧 이곳만 찾고 있습니다. 평평한 산책로보다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적절하게 있어 운동효과도 높고 야간 불빛도 아름다워 산책하는 맛이 있습니다. 또 제가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이 훨씬 다 내려다 보여 ‘너무 아등바등 살지 말자’라는 철학적인 생각도 갖습니다. 이곳을 걷고부터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뱃살도 줄어들었습니다. 신흥동 도시숲은 마치 저만의 아지트가 같습니다. 너무 홍보가 많이 돼 나중에 시민들이 몰리면 어쩌나 걱정도 되나요? 하하” 라고 하였다. 달빛 품은 월명 언덕이 관광과 휴식의 공간으로, 시민을 계속 불러들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가장 많은 시민이 찾는 월명산 자락은 동백특화숲과 신흥동 도시숲 야간경관으로 그 인기를 더할 것이라 생각된다.

활용계획

군산 대표 야간 명소로 소개, 숲속 작은 음악회, 달빛 투어, 군산야행 코스 등을 개발

추적단이 고민한 새로운 이름

신흥동 도시숲 : 월명달빛숲, 달빛도시숲

월명공원 동백특화숲 : 월명동백숲

나라사랑 고귀한 감동 느껴지는 ‘구암역사공원 도시숲’

역사적인 공간에 자리한 구암역사공원 도시숲에는 구암교회를 시작으로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무궁

화동산, 충혼탑 100주년 기념관 등이 있다. 구암역사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을 가파르다. 작은 동산 위에 자리해 있다. 공원 입구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수령 약 45년의 은행나무는 그 기세가 대단하다. 하늘 위로 우뚝 솟아 이곳을 지키는 수호 나무 같다. 우리의 선조들이 “대한독립만세~” 외쳤던 정신이 하늘 위로 뻗는 듯한 기운이다. 무궁화동산 위 태극 바람개비는 공원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되새긴다.



구암역사공원 도시숲

군산은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곳이다. 전 민족적 항쟁인 3·1운동은 전국 어디에서나 있었지만, 군산은 3월 5일부터 봉기했고 호남지역 최초로 민족 봉기의 시발점이 됐다. 대한민국을 되찾고 자주 독립 국가를 만들기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애국선열의 큰 뜻을 기리기 위해 2018년 설립된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은 군산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공간이자 군산시민의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⁶⁾

특히 기념관 주변으로 구암역사공원을 조성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시민 산책로를 만들어 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면 더 없이 의미 있는 곳이 바로 구암역사공원이다. 여덟 살 아이와 함께 이곳을 방문은 김진(39세)씨는 “제가 사는 곳 아주 가까운 곳에 이런 뜻깊은 공간이 있는지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기념관 주변으로 숲과 산책로, 잔디밭 등을 너무 아름답게 조성해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반 공원과는 다른 무언가 가슴 깊이 끌어 오르는 감동을 주는 공원 같습니다.”라고 이곳을 소개했다.

6) 『군산답사 · 여행의 길잡이』, 김중규 지음, 223쪽



약 45년 된 은행나무



산책로가 잘 조성된 도시숲



약 45년 된 은행나무



산책로가 잘 조성된 도시숲

활용계획

어린이 역사숲 놀이터 제안

참고자료

김중규(2003), 「군산답사·여행의 길잡이」, 나인기획, 223쪽
경포천 설명,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
오마이뉴스 조종안기자, 「군산 주민들의 삶과 문화, 역사가 느껴지는 흔적들①」 기사발췌
전북일보 기사, 「군산 경포천서 천연기념물 수달 발견 '화제」 기사 발췌

공원 가운데 자리한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의 외형은 100년 전 영명학교를 그대로 재현했다. 3·1운동의 주역인 영명학교는 현 제일중고등학교로 뽕볼딘여학교(현 영광중고등학교) 등과 함께 구암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한 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학교였다. 이 학교들은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만방에 알린 군산 지역 3·1만세 운동의 중심에 자리한다.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은 한강 이남 최초의 3.1운동인 군산 3.5 만세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 100년 전 그날의 역사 재현 및 다양하고 재미있는 나라사랑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념관이다.

시원하게 뽕은 역사관 앞마당부터 멀리 군산 내항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태극 바람개비가 쉬지 않고 돈다. 지대가 높아 바로 옆 아파트 15층이 가깝게 보일 정도다. 역사공원답게 계단도 평범하지 않다. 층마다 태극 그림이 그려져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마음이 사뭇 남다르다. 공원 가운데 군산 3·5만세 운동을 형상화한 한 작품에서는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만세운동에 참여한 민중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였고, 인물상에서 표현하지 못한 많은 참여자를 태극기로 표현하여 현장감을 상상할 수 있도록 했다”며 역사공원의 가치를 부각했다.

역사적인 공간이 특별할 날만 찾는 곳이 아닌 일상에서 매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은 공원 외곽으로 잘 조성된 산책로 덕분이다. 사시사철 피고 지는 나무와 꽃, 풀 등이 잘 보존, 관리돼 있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항상 걷고 운동할 수 있도록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다. 역사적 가치를 품은 시민의 공간이 된 구암역사공원은 나라 사랑의 고귀한 감동과 자연에 대해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군산의 대표 공원으로 자리매김했다.

6. 하제 팽나무

개요

조사자	김영기 · 송윤희	
조사 동기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군부대로 편입되어 설 땅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는 하제팽나무를 주제로 동화를 써서 아픈 역사의 단면을 알리고 싶었음• 조사 방법은 문헌조사와 하제팽나무가 있는 하제와 관련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현장조사를 함• 조사를 통해 하제팽나무 속 웅이와 여선재라는 아이를 주인공으로 한 두 편의 단편동화를 결과물로 도출하려고 함	
활동 개요	컨설팅 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에서 방향성 체크를 위한 컨설팅• 전문위원과의 방문 상담• 전문위원과 전화상담• <하제 팽나무>의 저자 양광희 씨 만남
	하제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5월 18일, 6월 10일, 15일, 25일• 활동 : 하제항, 난산, 팽나무 인근, 군산미군기지 앞, 수라갯벌, 하제마을
	인터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4월 16일, 5월 10일,• 활동 : 양광희(하제팽나무 저자), 여정재(하제 전 주민), 하제주민, 이경숙 옥봉초 교장
	문헌자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5월 2일 ~ 6월 28일• 조사 문헌 : 지역N 문화, 하제팽나무, 선연초등학교카페, 디지털군산문화대전 향토백과
	보고서 작성 및 워크샵 자료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6월 6일 ~ 7월 21일• 보고서 10회 분 발송, 워크샵 중간발표, 최종 발표 ppt 발송
	워크샵에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 발표 (6월 16일)• 최종 발표 (7월 28일)

하제 팽나무 연구를 위한 질문 찾기

- 하제 마을의 위치는?
 - 상제, 중제, 하제의 위치는?
 - 일제, 미국 비행장 들어선 시기는?
 - 자천대의 위치는?
- 하제 마을 팽나무 역사는?
 - 조선시대 어느 왕 때 언제쯤 심어졌을까? 그 당시의 사회상은?
 - 일제시대 하제 마을의 변화기는 언제였을까? 그 당시의 사회상은?

- 해방 후 어촌으로서의 하제마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당시의 사회상은?
- 새만금 간척사업 완성시기의 하제 마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당시의 사회상은?

- 인물 조사
 - 최치원이 하제마을에 있었다는 기록과 행적
 - 하제마을에 살다가 이사 간 주민들 인터뷰
 - 하제마을에서 하던 일은?
 - 팽나무와 마을을 찍은 사진이 있나?
 - 하제마을을 생각나는 대로 그릴 수 있나요?
 - 팽나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이야기가 있나요?

- ‘안녕, 하제’ 전시회 관련 자료 조사
 - 황윤 감독의 영상 자료 검토
 - 하제마을에 관한 인터뷰
 - 하제마을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 하제마을 사람들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 하제마을 팽나무에 관해 들은 이야기는?
 - 앞으로의 계획은?
 - 군산 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문정현 신부 인터뷰
 - 하제마을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 하제마을 사람들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 하제마을 팽나무에 관해 들은 이야기는?
 - 앞으로의 계획은?

- ‘600년 팽나무를 통해 본 하제마을 이야기’ 중 이사한 주민 여정진씨 인터뷰
 - 여씨가 원래 하제 마을에 살고 있었나?
 - 여씨 족보를 볼 수 있나?
 - 조상 중 벼슬을 하거나 조선 왕조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나?

- ‘600년 팽나무를 통해 본 하제마을’ 저자 양광희씨 책 문헌 연구
 - 양광희씨 인터뷰로 동화의 역사 오류 점검

인터뷰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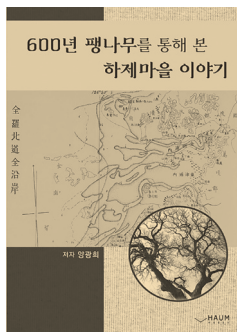
인터뷰 1

- 일시 : 2022년 4월 16일
- 장소 : 군산 슈퍼워커
- 대상 : 양광희

'600년 팽나무를 통해 본 하제마을 이야기'책의 저자 양광희씨를 자택 근처에서 만났다. 이 책을 발간하게 된 계기와 현재 하제마을과 관련하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가져간 동화 열개를 검토하였다. 하제 팽나무와 관련된 동화에 대해 최치원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또한 글이 나오면 역사에 관한 오류를 감수해주시기로 하셨다.



양광희씨와 슈퍼워커에서 인터뷰



양광희씨 저서

Q.저서는 어떻게 쓰게 되었나요?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주관 행사에 참여했다가 하제 팽나무를 보고 보존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Q.하제 팽나무 책이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써 주실 수 있나요?

이 책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힐 요량으로 쓴 글이 아니라 팽나무를 도 지정문화재로 만들기 위해 쓴 글이라 정보 위주여서 어렵습니다. 팽나무 위주의 글이 아니라 그 지역의 글을 쓰기 위해 정보를 많이 모았습니다. 현재 직업이 있어서 시간을 내기 어렵지만 쓸 계획은 있습니다.

Q.아이들이 하제 팽나무를 알기 위해 동화를 쓰려고 합니다. 열개 속에서 문제가 될 것이 있을까요?

(동화 개요를 준비해서 보여드렸음)

개인정보라 주민의 이름이 직접 들어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제 주변 지역은 최치원과 관련이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최치원을 등장시켜 이야기를 끌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Q.나중에 완성된 동화를 읽고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완성된 동화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감수해드리겠습니다.

Q.답사를 많이 다니시던데 요새 답사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가요?

선유도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그 곳에 있는 식물이나 지질을 공부합니다. 제가 책으로 내려고 준비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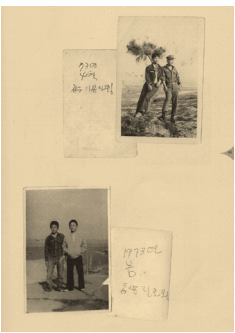
인터뷰 2

- 일시 : 2022년 5월 10일
- 장소 : 자택
- 대상 : 여정진(71세)

'600년 팽나무를 통해 본 하제마을 이야기'책 부록 129쪽에 여정진씨 구술담이 나와 연락해서 어린 시절 하제 모습을 알아보았다. 동화의 주인공을 여씨로 설정해서 여정진씨의 가계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았다. 아버지께서 의령으로 시제를 지내기 위해 다니셨다고 한다. 여정진씨는 의령 여씨이다. 하제 마을에는 '여말'이라는 여씨 집성촌이 있었다. 여정진씨 어렸을 때도 25~30가구가 살고 있었다. 또 비행장 활주로 공사 때 명종 13년 여득명이라고 적혀 있는 비석을 발견했으나 나중에 갔을 때 없어졌다. 어렸을 적 하제마을은 매우 번성한 마을이었다고 한다. 바다가 아름답고 물고기 조개가 잘 잡히는 곳이었다. 대나무 딱충을 만들어 팽나무 열매로 총싸움을 많이 하셨다고 한다. 팽나무를 신령하게 여겨 물을 떠 놓거나 음식을 가져다 놓는 경우가 많았다고도 한다. 팽팡 문화제에 꾸준히 참석하고 계시고 문화제를 주최하는 '평화바람'을 소개해주셨다. 평화바람 잡지와 사진을 빌려주셔서 다음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제주민 여정진씨 인터뷰



평화바람 잡지에 실린 여정진씨 사진들

Q.동네에서 사시게 된 시기와 배경은?

- 1952년 태어나 하제마을에서 거주, 본인이 5살 때 31세의 아버지 여옥배가 미군부대 철조망 옆을 지나가다가 미군의 총에 의해 살해되어 어머니 23세에 홀로되심. 이 사고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함.
- 1966년 서울로 이주, 당시 하루 일당이 50원, 한 달 월급이 1600원 정도였음. 전차표 2장에 5원, 시내버스표가 8원정도 했음.
- 어머니는 계속 하제 마을에 살고 계셨고, 여동생은 하제 골프장 앞쪽에 살고 있음.

Q.여말에 대해 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여말은 팽나무 주변 할아버지 팽나무가 있는 마을임. 여씨가 많이 살고 있던 마을인데 포은 정몽주의 후손 정씨도 많아 겹사돈을 많이 맺어서 나중에는 여씨와 정씨와 결혼을 잘 안 시켰다고 함.
- 고려시대 전부터 여씨가 살았고 백제 의자왕 후손도 살았던 것 같음. 의령 여씨로 국민의 힘 국회의원으로 여상범 씨가 있다. 아버지께서 동네 시제를 모시러 의령에 갔다.
- 비행장 활주로 공사 때 발견된 비석에 중종 13년 여득명이라고 적혀 있었음.
- 여말에는 25~30가구 정도 살았고 여씨는 여기집씨와 영국, 영복 자녀 둘이 살고 있었던 것이 기억남.

Q. 하제마을에 대해 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하제마을 할아버지 소나무가 죽어갈 때 뿌리박힌 흙 속에 황토가 나와 그 위를 수북하게 흙을 쏟아주었더니 그 이후로 하제 갯벌에 노랑조개가 많이 잡힘. 당시 하제마을에 이발소가 4개 있었고 선거표가 3,600표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은 20세 이상 선거인 수가 3600명 정도를 뜻할 정도로 번성한 마을이었다는 뜻임.
- 하제마을 옆 오산촌 근처 서른가호가 남았고 십칠가호, 열가호 등의 마을이 있었음. 열가호는 비행장이 들어서면서 없어짐. 서른가호에 사시는 분이 논을 회사해서 선연초등학교가 생겼음. 하제마을 버스정류장 앞에 '정순조님 공덕비'라고 쓰여진 비석이 아직도 있음.
- 할아버지 당산 소나무와 할 머니 당산 소나무가 있었다. 할머니 당산 소나무 근처에는 작은 소나무들이 몇 그루 더 있었음. 할아버지 당산 나무가 죽으면 동네가 망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태풍에 할아버지 당산 소나무가 죽고 하제마을 사람들도 다 쫓겨났음.
- 하제 화산 앞에는 뱀섬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할머니 당산 소나무 옆 정자위로 올라가 보면 파도소리가 시원하게 났음.
- 화산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왼쪽을 앞풀(명수풀), 오른쪽을 뒤풀(오전풀)이라고 불렀음. 한마디로 조개밭임. 배를 타고 썰물 때 물이 빠지는 곳을 따라가며 고기를 잡았음. 갯벌에서 쓰깃대로 구멍을 쑤시면 조개, 소라, 배꼽 등이 많이 나왔음.
- 현재 하제마을 팽나무 근처 비닐하우스 있는 곳이 선연초등학교 하제분교였음. 1959년에 1학년 입학 받았음.

Q. 하제마을 팽나무에 대해 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어렸을 때 팽나무 열매를 대나무 속에 넣고 대나무 한쪽 끝을 막고 나뭇가지로 열매를 밀어내 공기압으로 총 쏘고 놀았음. 총을 쏘면 '팽'하고 날아감.
- 팽나무는 원래 두그루였는데 일제 강점기 일본 군산들이 팽나무 한그루에 조준사격 연습을 많이 해서 한그루가 고사했음. 일제 패망 후 돌아가는 배가 태풍에 뒤집혀 일본 군사들이 많이 죽었다고 함. 그럴 정도로 신령하게 생각해서 팽나무에서 제사를 많이 지냈음.

인터뷰 3

- 일시 : 2022년 5월 10일
- 장소 : 자택
- 대상 : 옥서면 옥봉들3길 122 주민

군산시 옥서면 옥봉들 3길 122은 친언니의 바로 옆집으로 언니네 집에 놀러갔을 때 옆집으로 새로 이사 온 주민이 하제에서 살았다는 정보를 듣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를 위해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알려주지 않았다. 60대 정도의 여자분이다. 00씨는 5년 전까지도 하제마을에 집이 있었다. 집 보상을 받고 군산 시내에서 살다가 다시 하제와 가까운 현재 집을 사 들어왔다. 00씨는 하제에 있을 때 일을 많이 하셨다. 하제에 노랑조개가 많이 나왔을 때 시부모님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노랑조개 가공 공장에서 일을 했다. 노랑조개는 삶아서 일본으로 수출을 했다. 그렇게 신나게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키우고 집도 샀다. 하지만 암에 걸려 일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암이 나으니 또 일했다. 남편은 고깃배를 부렸는데 바다가 막힌 이후에는 하지 않고 시내에서 다른 일을 하다 정년퇴직했다. 다음에 오면 하제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준다고 했으나 다시 찾아갔을 때 집에 안계시고 남편분은 사진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인터뷰 4

- 일시 : 2022년 5월 18일
- 장소 : 자택
- 대상 : 이경숙 옥봉초 교장

동화의 주인공을 여씨로 설정하여 옥봉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여씨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미리 연락드려 부탁하였는데 방문했을 때 현재 학생 중에는 여씨가 없다고 하였다. 10년 정도 졸업생들 중에도 여씨는 없었다. 하지만 옥봉초 교정에 있는 공덕비에는 여인조, 여승웅 두명의 여씨가 있었다. 공덕비는 1959년에서 1968년까지 사친회 및 기성회원들이 교문 건립비용 절반과 교실 증축 비용 백이십만환을 학교 발전 기금으로 기부한 것을 기리는 내용이었다. 50~60년대에는 이 지역에 여씨가 지역사회 일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Q. 교장선생님께서 옥봉초에 부임한 연도는?

- 2019.3월 부임, 6학급, 특수1, 병설 1, 총 학생수 84명

Q. 옥봉초등학교 학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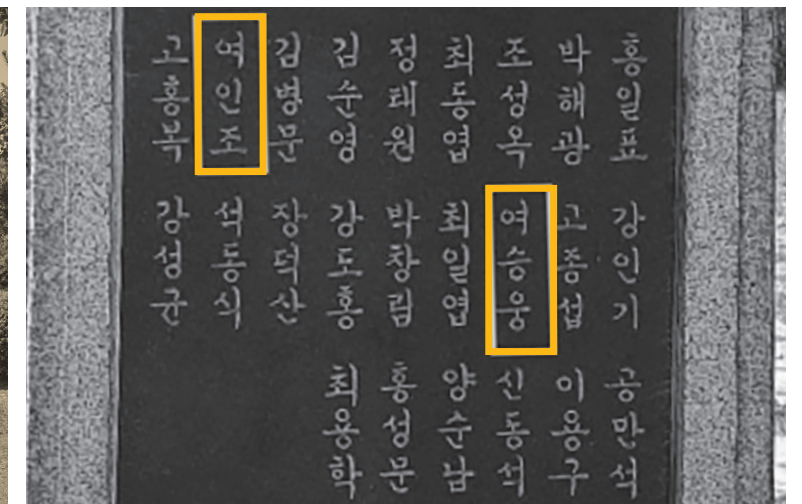
- 선연초등학교 폐교로 옥봉리, 선연리, 어은리까지

Q. 하제 마을에 있던 선연분교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언제 개교했고 학교 규모는?

- 1962년 중제 마을에 선연분교가 생겼고 1971년에 선연국민학교가 개교했음.(서른가호에 사시는 분이 논을 회사해서 선연초등학교가 생겼음. 하제마을 버스정류장 앞에 '정순조님 공덕비'라고 쓰여진 비석이 아직도 있음. 여정진씨 인터뷰 내용 참조



옥봉초 교정 비석 사진



공덕비 내 여씨 두 명

Q.졸업생이나 학생 중에 余(여)씨 학생이 있는지? 학생 전입학에 관하여 알려줄 수 있는지?

- 현재 학생 중에는 여씨가 없고 10년 전에도 찾을 수 없었음. 선연초등학교 기록은 볼 권한이 없어서 보지 못하였음. 현재 나이로 생활기록부가 통합되어 학생 하나하나 확인해야 함. 2000년 이전 생활기록부는 행정실에서 보관 중이나 개인정보이므로 알려줄 수 없음. 또한 학생이 어디로 전학 갔는지도 개인정보이므로 알려줄 수 없음.

Q.옥봉초 교육과정에 하제마을 팽나무 현장체험학습이나 미 공군부대 존재에 역사 등 마을에 대한 교육이 있는지?

-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음.

인터뷰 5

- 일시 : 2022년 7월 13일
- 대상 : 선천식(신오산촌 주민(52년생), 선천식 배우자
- 장소 : 교육문화회관

하제마을 주민 김00님과 이장님 정정오씨와 함께 하제마을을 돌아보기로 했으나 정정오씨가 개인적인 일로 약속을 취소하여 혼자서 마을을 돌아보던 중 농약을 주고 계시던 선00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선00님은 신오산촌에 살고 계셨고 새만금 방조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뱃일을 하셨다. 하제항에서 살고 계시던 뱃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떠났으나 주소가 하제가 아닌 신오산촌이어서 보상을 받는 대신 어업권을 가지고 계셨다. 어업권은 매년 갱신해서 해양경찰서에서 공문을 보내준다. 어업권에 대한 소량의 금액을 지불하지만 원하면 합법적으로 어느 바다에 나가서든 고기를 잡을 수 있다. 현재는 고기잡이보다 하제 빈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하제마을에 살던 많은 주민들이 이제 하제 집터에 농사를 짓는다. 아이들이 많이 찾았던 문방구는 서른가호쪽에 있었고 만물상회도 있었다. 이리상회라고 하는 가게도 있었다. 전에 이장하시던 분이 하제 박물관 쪽에서 합기도장을 운영했는데 현재는 골프장에서 일하신다고 한다. 팽나무 위쪽 산을 당산이라고 불렀고 그 이유는 당산 소나무가 있었어서였다고 한다. 소나무에서 제를 많이 지냈고 당산나무 옆에는 이충 정자가 있었으나 현재 철거되었다.



하제 팽나무



여정진씨가 보내준 예전 당산소나무 사진

인터뷰 6

- 일시 : 2022년 7월 11일
- 대상 : 다음 카페 선연초등학교 2회 졸업생 서00

선연초등학교 학생의 생활을 조사하던 중 다음 카페에서 선연초등학교 2회 카페에 연락처가 있어 연락을 드렸다. 서00님은 현재 하제에 살고 있지 않고 팽나무에 대한 기억이 없어서 다른 분을 연결시켜 드린다고 했다. 혼자 살고 계시는 것 같고 하제마을 이야기를 꺼렸하셨다. 이분은 김00의 연락처를 알려주셨고 현재 하제마을에 살고계신 이장님과 하제마을에 관해 알려주신다고 하셨다. 하지만 현장조사 당일 시간이 안된다고 하셔서 혼자서 현장에 나가야 했다. 또한 00동님은 이주여성과 늦게 결혼하여 자녀가 어려웠다. 이분도 하제 이야기가 나오자 그 당시 하제 이장이었던 분의 연락처를 알려주셨다.

10년 전의 하제 이장이셨던 분은 이종구씨로 예전 선연분교자리, 현 하제 팽나무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곳에 합기도장을 운영하여 아이들을 지도했고 아이들을 잘 돌봐주셨다고 한다. 여러 번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인터뷰를 할 수 없었고 보고서를 쓸 때 다시 연락드려보니 내일 모레쯤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다.

게시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추천	조회
31	5가우 올송자	이정재	12.12.15	0	43
27	서정진 010-0608-1093****	안호수	08.06.13	0	16
26	하방이 연락처 **	하방이	08.04.13	0	35
22	나 상동이의 010-9056-4180	하방이	08.02.27	0	23

선연초등학교 2회 카페

현장 조사

현장조사 1

- 일시 : 2022년 6월 10일
- 장소 : 수리갯벌, 하제마을, 하제항, 미군부대 정문

여정진씨가 주신 평화바람 잡지를 참고해서 군산평화박물관(월명동 소재)을 찾았다. 그곳에서 박물관을 지키고 있던 평화바람 소속 오이씨에게 하제 답사를 부탁했다. 오이씨는 흔쾌히 허락했고 함께 수리갯벌에서 하제항

난산까지 구석구석 살펴보았다. 미군부대 정문에서 만났는데 우리땅 찾기 모임 및 민주노총, 시민 단체에서 주관하는 집회가 매월 둘째주 수요일 2시에 열린다고 한다. 무려 18년간이나 이어진 집회여서 미군부대는 정문을 폐쇄하고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미군 군산 부대에는 현재 드론 부대와 헬기 부대가 더 들어와 부대 토지를 더 수용했으며 격납고를 증설했다. 또한 수라갯벌에 군산 신공항이 들어서면 유사시에 공항을 사용할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부대가 된다고 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부대는 우리나라 평택부대이다.

다음 간 곳은 수라갯벌이다. 수라갯벌은 해수유통만 하면 다시 갯벌로 돌아갈 수 있는 갯벌이지만 새만금 신공항 예정 부지라 해수유통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지방 국제공항 운영은 적자이고 고추 말리는 활주로라고 할 정도로 수요가 적는데 갯벌에 공항을 지을 계획이다. 이는 미국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공항을 향해 기차길과 도로도 닦고 있는 중이다.

팽나무 주변에는 유실수들이 많았다. 집은 철거했지만 나무는 뽑지 않았기 때문이다. 팽나무가 특히 많았고 대추, 감나무 등이 많았다. 또한 하제 마을에서 사시다 군산으로 이주한 주민들이 다시 집터에 고추나 감자를 많이 심어놓았다. 처음에는 철조망을 치고 못 들어오게 했으나 보상에 합의하지 않은 주민이 있기 때문에 문을 개방했다. 팽나무 옆 철조망에는 탄약고들이 늘어서 있다. 탄약고가 한번 불이 난 적이 있었고 다행히 일찍 진화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를 빌미로 하제마을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했다. 하제박물관은 옛 선연분교가 있던 장소에 비닐하우스로 지어놓은 건물이다. 그곳에는 하제 주민들이 이사가면서 버려진 물건들이 있다. 하제마을 출신 '파도는 잠들지 않는다'의 조현용 작가 기사를 모아놓은 액자, 오락기기, 니들포인트로 수놓은 액자, 어구, 그릇 등을 모아두었다.

하제항은 중제 마을 버스정류소에서 5분 정도 차로 가면 나온다. 폐선이 갯벌에 박혀있고 부수다 만 집들이 몇 채 남아있다. 전봇대도 뽑혀 옆으로 누워있다. 시멘트 길을 따라 가면 난산으로 내려가는 비포장도로가 있고 시멘트길이 이어지는 곳에는 다리 공사 중이라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다. 오이씨와 하제항에 버려진 집에 들어가 보았다. 하제 박물관에 전시할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2001년에 6살이었던 조한빈 아이가 3년 동안 그린 스케치북이 수십 권이었다. 아이의 꿈은 화가였다. 선연초등학교에 다녔다. 하제 바닷가 그림이 많았다. 스케치북은 스캔한 후 박물관으로 보냈다.

이후 난산으로 차를 타고 갔다. 난산은 조선시대 봉수대가 있었던 곳이었고 역암층으로 지질이 특이했다. 오이씨는 현재 회현중에서 하제 팽나무와 하제마을 관련하여 4주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합천 평화고등학교에서도 캠프를 진행했다고 한다. 작년에는 나포중, 성미산 학교, 간디학교 학생들이 다녀갔고 새만금 지역과 공군기지, 평화박물관을 중심으로 현장 답사를 하고 학생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을 했다고 한다.



오이씨와 현장 답사 후
진원식당에서

빈집 답사

조한빈 학생의
고기잡이 그림

나무 그림

현장조사 2

- 일시 : 2022년 6월 15일
- 장소 : 군산 미군기지 앞

오이씨와의 하제 답사 이후 미군 집회에 참석했다. 참석자는 민주노총과 시민 단체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주로 민주노총 임원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집회를 마치고 검색으로 정보를 보충하였다. 미군기지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된다고 해서 사진을 찍지 못했다. 미군기지 정문은 기와지붕으로 일반인이 보기에 친숙하게 지어졌다. 미군부대 앞에서 하는 집회는 올해로 18년째를 이어가 미군 측도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정문을 폐쇄하여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군산 공항 활주로 사용료 지급, 탄약고를 지을 때 위치 선정 등 한국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미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극심하다. 점점 심해지는 전투기 소음과 오폐수 배출과 기름유출, 송유관 불법 매설 및 사유지 무단 점유 등이 그 이유이다. 여기에 하제지역 6개 마을은 탄약고 안전거리를 빌미로 주민이 강제 이주되었다.⁷⁾ 현재는 새만금 간척지에 신공항을 짓는데 유도로를 만들어 유사시에 신공항을 미 공군



미디어 오늘 신문에 삽입된 미공군기지 정문(1995년)

수라갯벌 안내판

7) 매거진 군산<http://www.maggun.com/article/read.php?mode=read&idx=2266>

활주로로 사용할 속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을 대비해 속속 첨단무기를 군산공항에 배치하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과 전북 민중행동은 현재 군산공항에서 서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추진 중인 새만금 신 공항사업은 미 공군의 제2활주로 건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⁸⁾

zoom 온라인 모임

- 일시 : 2022년 7월 13일
- 장소 : 송윤희, 김영희, 정상환 및 글벗 5명

동화 쓰는 기간이 약 3개월이어서 처음 생각했던 일개로 글을 쓰기에는 글 쓸 기간이 짧았다. 문정현 교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팽나무 웅이 이야기로 단편 동화를 썼다. 6월 15일에 동화 합평 모임에서 합평을 한 결과 저학년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많은 정보가 동화에 들어있다고 다시 쓰기를 권했다. 7월 5일까지 글을 수정하여 올렸는데도 불필요한 정보가 많다는 의견이 많았다.

송윤희 선생님께도 아이들에게 글을 읽어 달라고 부탁했다. 송윤희 선생님은 수송초 1학년 1반 아이들에게 글을 읽어주고 독후 활동을 한 후 그 결과를 보내주셨다. 아이들은 첫 장을 읽을 때까지는 집중하였으나 그 후로 글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하였다고 했다. 하제 마을에 600년 팽나무가 있다는 것만을 알려주는 내용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이었다. 주인공이 요정이어서 저학년 동화로 설정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새만금, 미공군기지의 문제점들이 드러나 어려웠다고 했다. 웅이의 존재도 잘 알지 못해 그림책으로 제작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하지만 그림에 자신이 없고 저학년용으로는 어렵다면 고학년용의 원래 일개로 글을 작성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급하게 썼다. 동화 ‘하제 팽나무 웅이 요정들’을 여기 신는다.



8)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09>

동화 하제 팽나무 웅이 요정들

| 작가 | 김영희
| 대상 | 중학년 3~4학년
| 주제 | 하제 마을 팽나무를 기억하자
| 등장인물 | 주름 웅이, 뿔웅이, 하제 팽나무 할아버지, 여선재
| 공간적 배경 | 군산 하제 마을
| 시간적 배경 | 현재

#팽나무 웅이 요정들

야트막한 언덕에 커다란 팽나무 한그루가 우뚝 서 있어요. 우람한 가지는 하늘 끝자락을 움켜쥐고 두툼한 기둥은 울퉁불퉁 웅이들이 빠져나가려 해요. 웅이는 나무 흥터예요. 나무에 난 상처가 나으면 웅이가 생겨요. 웅이 요정은 바로 그곳에서 살고 있답니다. 보름달이 덩실 바닷가 꽃산 위에 걸렸어요. 일 년 중 가장 밝은 정월 대보름 달이에요. 웅이 요정들은 팽나무 기둥에서 고개를 숙 내밀었어요. 누나 주름 웅이가 주름진 얼굴을 펴고 팔다리를 쭉 뻗아냈어요. 동생 뿔웅이는 몸을 먼저 뻗아내고 마지막으로 도깨비처럼 생긴 뿔을 뿔 빼냈어요. 웅이 요정들은 손에 손을 잡고 팽나무 할아버지를 빙글빙글 돌았어요.

“야! 신난다!”
“이 녀석들아, 할아버지 어지럽다.”
“할아버지! 대보름달이에요!” 주름 웅이가 팽나무 가지를 흔들며 말했어요.

“뭐라고?”
“대보름달이라고요.”
“안 들려...”
“대! 보! 림! 달! 이라고요.”
“으응, 그러 그러.”

팽나무 할아버지는 하늘로 뻗은 가지를 조금 흔들더니 곧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러셔?” 뿔웅이가 물었어요.
“딱 보면 모르냐? 팽나무 할아버지 귀가 어두워지셨잖아. 연세가 600년인데 귀가 잘 들린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주름 웅이가 대꾸했어요.
“그게 아니야. 하제 마을에 사시던 어르신들 거의 다 귀가 안 좋으셨잖아. 전투기 소리 때문이지.”

팽나무 할아버지가 사는 하제마을 바로 옆에는 미국 공군 비행장이 있어요.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 군 전투기가 날아다녔고요, 한국 전쟁 이후로는 미군 전투기가 날아다녀요. 팽나무 할아버지는 옆에서 내내 듣고 계셨으니 귀가 잘 들리질 않나 봐요.

“그럼 팽나무 할아버지 보청기 하나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하제 어르신들은 보청기 끼고 다니셨는데…”
뽕옹이가 팔짱을 척 끼고 말했어요.

“나무가 어떻게 사람 보청기를 꺼!” 주름 옹이가 혀를 끝끝 찼어요.

“근데 팽나무 할아버지 귀는 어땠지?”

뽕옹이가 진짜 궁금한지 팽나무 할아버지 주위를 휘휘 날아다녔어요.

“내려와. 오늘 달도 밝고 좋은 날인데 우리 옛날이야기나 하자.”

주름 옹이의 말에 뽕옹이가 내려와 뿌리등걸에 앉았어요. 주름 옹이가 침을 한번 꼰작 삼키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곳이 이렇게 땅이 되기 전에 말이야. 바로 요 앞은 배가 들어오는 바다였어. 매년 여름이면 태풍이 찾아와 비바람이 몰아쳤지. 사람들은 고깃배를 팽나무에 꽂꽂 묶어놓았어. 그땐 팽나무 할아버지도 젊었거든. 비바람에 밧줄이 나무 기둥을 굽어댔지만, 팽나무 할아버지는 밧줄을 꼭 잡고 놓지 않았지. 아주 끄떡없었지. 그때 내가 태어난 거야. 상처 난 기둥에서. 태풍이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내 몸에는 주름이 하나씩 늘어났어. 내 주름을 세면 내가 태풍을 몇 번 이겨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하나, 둘, 셋, 넷…”

옆에 앉은 뽕옹이가 주름 옹이를 뻗히 쳐다보더니 얼굴 주름 개수를 세기 시작했어요.

“아유, 그만해. 그걸 언제 다 세겠다는 거야. 보름달 떨어지겠어. 이제 니 차례야.”

“그래! 이 뽕은 말이야. 개구쟁이 애들이 밟고 올라간 자국이야. 높이 있는 큰 열매를 따려고 말이지. 팽나무 할아버지에게 열매가 많이 나거든. 애들이 팽나무 열매를 대나무 속에 넣고 총 놀이를 많이 했어. 팽나무 열매를 쏘면 ‘팽’하고 날아가거든. 그게 어찌나 세게 나갔던지 달까지 날아갔더라. 달토끼가 엉덩이에 팽나무 열매 총알을 맞고는 쿵덕쿵덕 방아를 더 열심히 쪼터래.”

“하하하, 말도 안 돼. 너는 잘 나가다가 꼭 엉뚱한 곳으로 빠지더라. 지난번엔 팽나무 열매 총알 맞고 물항아리가 깨졌다고 했잖아. 그래서 젊은 아낙이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됐다고.”

“그건 진짜야. 어디 팽나무 열매 총알이 한두 개야?”

“그렇긴 그렇네. 이야, 달이 진짜 밝다!”

옹이 요정들은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제마을이 미군 부대로?

봄이 왔는데도 팽나무 할아버지는 나뭇잎을 띄우지 않았어요. 주름 옹이가 팽나무 할아버지에게 큰소리로 외쳤어요.

“할아버지! 나뭇잎을 띄우셔야지요!”

“으응, 으응.”

팽나무 할아버지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주름 옹이는 나무 기둥에서 나와 할아버지를 다그쳤어요. 그러자 뽕옹이가 나와 주름 옹이를 말렸어요.

“할아버지 내버려 뒀. 어차피 팽나무 첫 이파리로 어느 마을이 풍년 드는지 점칠 필요도 없는데 뭐하러 귀찮게 굴어. 다 옛일이야.”

예전엔 팽나무 첫 이파리가 남쪽에서 나오면 남쪽 마을이, 북쪽에서 나오면 북쪽 마을이 풍년이 들었어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죠. 이맘때쯤이면 이파리가 나왔는지 확인하러 오는 아이들로 팽나무 근처가 북적북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부서진 집에서 떨어진 시멘트 조각만 가득해요.

“사람들이 바다 나가는 날에 늘 맛있는 음식 한 상 차려주고 팽나무 할아버지한테 절도 하고 그랬는데. 아! 떡 먹고 싶다.”

뽕옹이가 침을 꼰작 삼키고는 미군 비행장 무기고를 바라봤어요.

“이게 다 저것 때문이야. 안전거리인지 뭔지 때문에 하제 마을 사람들이 쫓겨난 거라고. 무기고를 옮기면 되지 왜 잘사는 마을을 없애냐고.”

뽕옹이가 분통이 터진다는 듯이 가슴을 탕탕치며 말했어요.

“무기고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만금 방조제로 바다만 막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안 나갔을걸.” 주름 옹이가 멀리 말라버린 갯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곧 이 땅도 미군 부대가 된다고 하던데…. 누나, 우리 미군 부대 한번 둘러보고 올까?”

“거긴 왜? 비행장 만들어지고 무섭다며 가까이 가지도 않더니.”

“우리가 이제 거기 들어가 살아야 하잖아. 어떤 곳인지 한번 보는 거지.”

“그래, 그럼 오늘 특별히 같이 가준다.”

주름 옹이는 뽕옹이 손을 꼭 잡고 가볍게 몸을 날렸어요.

#회색 마을

“팽나무 할아버지 바로 옆에 무기고가 있고 더 위로 가면 활주로가 있어. 저기 보이지?”

“어? 여기 빨간 바위 있던 곳 아니야? 신라시대 사람 최치원이 하도 공부해서 무릎 자국이 있다고 한 바위

말이야.”

“저 활주로를 만드느라고 자천대도 다 깨부셨지”

“자천대에 근사한 정자도 있었는데.”

“그건 옥구 향교로 옮겼다고 한 것 같아.”

뿔옹이는 멋진 바위와 정자가 눈에 선한 듯 활주로를 바라봤어요. 뿔옹이가 뭐가 생각났는지 주름 옹이를 바닷가 쪽으로 끌었어요.

“여기에 고운 모래밭에 끝도 없이 오색 해당화가 피어 있었는데.”

뿔옹이는 앞에 펼쳐진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이젠 회색 도로, 회색 건물밖에 없네. 내가 안 온 사이에 너무 많이 변했다.”

그때 귀청을 찢는 소리와 함께 전투기가 반대쪽에서 쏙 날아왔어요.

“앗! 이리 와.” 주름 옹이가 얼른 뿔옹이를 잡아끌었어요.

이슬아슬하게 전투기를 피했어요. 뿔옹이는 오들오들 떨었어요.

“조심해야 해. 우리가 요정이어도 저 전투기에 부딪히면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려. 저기 멀리 보이는 철조망이 미군 부대 끝이야. 이제 돌아가자.”

주름 옹이가 뿔옹이의 손을 잡고 빙 돌았어요. 철조망 끝에는 막 돌아난 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풀에서 웬지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여선재를 찾아라

다음날부터 늘 씩씩하던 뿔옹이가 팽나무 할아버지 기둥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주름 옹이는 팽나무 할아버지 건강도 걱정인데 뿔옹이까지 이상해지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괜히 전투기로 겁줬나?’ 주름 옹이는 뿔옹이에게 다가가 달랬어요.

“전투기는 잘 피해 다니면 돼. 걱정마.”

“그것 때문이 아니야.”

“그럼 뭘데?”

“미군 부대에는 높은 건물이나 산,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 전투기에 부딪히면 안 되니까. 여기가 부대로 들어가면 군인들이 팽나무 할아버지를 잘라 버릴 거야.”

뿔옹이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말을 이었어요.

“그럼 진짜 큰일이잖아. 팽나무 할아버지가 없으면 우리 여길 떠나야 해. 팽나무 할아버지처럼 오래된 나무는 없으니 우리 둘이 같이 살 수도 없고. 혼자서 들어갈 나무를 찾으려고 해도 소용없을 거야. 이미 다른 나무 요정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떠돌이 신세가 될 거야.” 뿔옹이가 상상만 해도 두렵다는 듯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미 하제마을 사람들은 여기를 떠나자마자 떠돌이, 천덕꾸러기가 됐지. 이제 우리 차례인가 봐.” 주름 옹이도 고개를 푹 떨어뜨렸어요.

그때 조그만 소리가 들렸어요.

“여… 선… 재… 선재를… 찾아줘…”

팽나무 할아버지가 힘겹게 입을 뗐어요. 주름 옹이가 팽나무 기둥 가까이 귀를 뗐어요.

“여선재가 누구야?”

주름 옹이가 물었어요. 뿔옹이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할아버지, 여선재가 누구예요? 누군데 찾아달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주름 옹이가 큰소리로 물었어요.

“화가…”

팽나무 할아버지는 이 한마디만 남기고 힘겨운지 숨을 골랐어요. 옹이들은 화가라는 말에 한 아이가 생각났어요. 선재는 하제항에 살던 아이예요. 꿈이 화가여서 날마다 팽나무를 찾아와 그림을 그렸어요. 할아버지는 선재의 그림을 보고 늘 따뜻하게 미소를 짓곤 했죠. 선재는 그림을 그리며 항상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팽나무 그늘에서 잠들기도 했고요. 선재는 하루도 빠짐없이 팽나무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이사가고 마을이 텅 빈 뒤로는 선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팽나무 할아버지가 선재가 보고 싶으신가 봐. 마지막 소원이라도 들어드리자.”

주름 옹이가 말했어요.

“어떻게?”

“마을을 찾으면 뭔가 단서가 있겠지. 뭐?”

“근데 어디부터 찾아?”

“남아있는 집부터 뒤져보면 뭔가 나올 것 같아. 하제 항구로 가자.”

#선재의 스케치북

옹이들은 하제항을 향해 날아갔어요. 전에는 바닷물이 찰랑찰랑했던 곳인데 지금은 거대한 뿔밭이에요. 힘

찬 바닷바람에 깃발이 나부끼던 배들은 뿔발에 콧 박혀 있어요. 사람들이 북적북적했던 부둣가엔 어구 쓰레기만 굴러다니고요. 전봇대도 뿔혀 한쪽에 나란히 누워있어요.

“저기 하얀 집부터 가보자.”

주름 옹이가 같이 멀쩡해 보이는 하얀 집을 가리켰어요. 하얀 집 뒤로 집 서너 채가 아직 헐리지 않고 남아있었어요. 들어가 보니 거실 한가운데에서 냉장고가 ‘누가 허락도 없이 들어오냐’ 하며 떡 버티고 있어요. 부엌에는 그릇들이 바닥을 뒹굴고 있고요. 천장 벽지는 방에 들어오는 누구든 덮치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형, 머리 조심해.” 뿔옹이가 주름 옹이 손을 잡고 조심조심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안방 달력은 2015년 1월에 멈춰있었어요.

“이 집 사람들은 2015년에 나갔나 봐.” 그때 제비가 획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천장을 보니 천장 구석에는 제비집이 세 개나 있었어요.

“제비들에게 물어보면 되겠네.” 주름 옹이가 손뼉을 째 치며 말했어요.

주름 옹이는 제비집으로 날아가 제비들에게 속닥거렸어요. 그러고는 환한 얼굴로 뿔옹이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제비가 선재를 안대. 저기 뒷집에 살았대.”

주름 옹이는 뿔옹이를 끌고 뒷집으로 갔어요. 뒷집은 더 어두컴컴했어요. 캄캄한 구석에 책꽂이가 보였어요. 오래된 책들에서 콧김 곰팡내가 났어요.

“나는 여기서 기다릴래.”

뿔옹이는 문밖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꿈무늬를 뿔어요. 주름 옹이만 눈에 불을 켜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했어요.

“여기 스케치북 많다.”

스케치북이라는 말에 뿔옹이도 킁킁한 방에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어요. 주름 옹이는 스케치북을 넘겼어요. 바다에서 그물을 내린 커다란 배, 하늘을 나는 전투기, 커다란 나무 딱 하제 마을이었어요. 스케치북은 삼십 권도 넘었어요. 주름 옹이와 뿔옹이는 스케치북을 나눠 들고 킁킁거리며 땡나무 할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선재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주름 옹이가 땡나무 아래에 스케치북을 펼쳐 놓았어요. 땡나무 할아버지를 그린 그림, 땡나무 기둥 옹이들을 코끼리, 코알라, 공룡 모양으로 그린 그림, ‘나의 꿈’이라고 적힌 스케치북엔 선재가 화가가 된 그림도 있었어요.

“선재구나! 선재야.”

땡나무 할아버지는 마른 가지를 흔들며 곱곶 웃었어요. 그러자 가지에서 나뭇잎 하나가 쏙 머리를 내밀었어요.

“아무래도 선재를 찾아야겠어.” 주름 옹이는 할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결심했어요.

#풀밭이 되어버린 초등학교

다음날부터 주름 옹이와 뿔옹이는 하제 마을 빈집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빈집에는 뽕뽕 오락기도, 정성스레 꽃을 수놓은 액자도 버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더는 선재와 관련된 것은 없었어요. 몇 날 며칠을 찾아 헤매도 나오는 게 없었죠. 주름 옹이와 뿔옹이는 뿌리등결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부웅 들려왔어요. 옹이들은 누가 볼세라 얼른 땡나무 기둥으로 돌아갔어요. 곧 군용 자동차가 땡나무 앞에 멈춰있어요. 자동차에서는 번쩍번쩍 빛나는 배지를 찬 군인이 내렸어요. 저벅저벅 군화 소리가 하늘을 울렸어요. 별이 가장 많은 배지를 단 군인이 지휘봉으로 땡나무를 꺾꺾 찢었어요. 다른 군인은 땡나무 기둥의 둘레를 잰어요. 또 다른 군인은 긴 줄자를 세워놓고 높이를 재고요. 줄자는 하늘 위로, 위로 계속 올라갔어요. 군인들은 땡나무만 재고는 형하니 자동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옹이들은 이 땅이 미군 부대로 들어가 버릴까 봐 겁이 났어요.

“우리 학교를 찾아가 볼까? 스케치북에 선연초등학교라고 적혀 있었어.”

주름 옹이가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어요.

“맞아! 학교에 가면 뭔가 남아있는 게 있을 거야!”

선연초등학교는 하제 마을에서 버스 정거장 하나만큼 떨어진 곳에 있어요. 문을 닫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아침마다 걸어 다녔어요. 주름 옹이와 뿔옹이는 선연초등학교를 향해 날아갔어요.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미군 부대와 논과 밭, 작은 집들밖에 없었어요.

“이상하다. 여기쯤이었는데?”

주름 옹이는 논에서 개구리를 잡고 있는 백로에게 날아갔어요.

“백로야, 여기 초등학교 어디 있니?”

“저기 풀밭 말하는 거야?”

“풀밭?”

“응. 그 풀밭이 10년 전에 학교였어. 근데 사람들이 와서 다 부셨어. 이젠 없어.”

“아, 그렇구나. 그럼 혹시 여선재라는 아이는 아니? 그림을 잘 그렸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혹시 다른 백로들을 만나면 한번 물어볼게.”

백로는 긴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갔어요.

“나는 하제마을 땡나무에 사는 주름 옹이야. 소식이 있으면 그쪽으로 알려줘!”

주름 옹이는 날아가는 백로를 향해 외쳤어요.

#엄마가 섬그늘에

팽나무 할아버지는 선재의 그림을 보고 조금씩 기운을 차렸어요. 올해 나뭇잎은 남쪽이 먼저 나왔어요. 남쪽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면 올해 풍년이 들 거라고 좋아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커녕 군인 자동차만 돌아다니네요. 오늘도 팽나무 할아버지는 선재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장난꾸러기 바람이 그림을 두 장씩 넘겼어요.

“옛기 이눔아, 한 장씩 좀 넘겨라.”

하고 혼을 내기도 했지요. 할아버지가 건강을 되찾아 다행이에요. 하지만 군인들이 이제는 마을에 철조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옹이들은 마음만 급했지, 어떡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선재야, 여기가 미군 부대로 들어가기 전에 네가 한 번만 와줘라.’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파란 하늘을 쳐다보고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멀리 백로가 날아왔어요. 백로는 팽나무 앞에서 우아하게 날개를 접었어요.

“아유, 멀다. 내가 하제 마을 사람들 소식을 좀 들었는데 내초동과 어은리쪽으로 이사 많이 갔대.” 뿔옹이와 주름옹이는 한달음에 백로가 알려준 곳으로 갔어요.

지나가는 사람 얼굴을 하나하나 보았어요. 몇 날며 칠 그 동네에서 사람들을 살폈어요. 그러다 갑자기 뿔옹이가 말했어요.

“그런데 형, 혹시 어른이 된 선재 얼굴 기억해?”

이제까지 10년 전 초등학교에 다니던 선재만 찾았던 거예요. 헛수고만 한 옹이들은 터덜터덜 팽나무로 돌아왔어요. 오늘도 옹이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름 옹이가 조그맣게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선재가 그림을 그리면서 부르던 노래예요.

엄마가 섬그늘에 굴파러 가면 아기는 혼자남아 집을 보다가
파도가 불러주는 자장노래에 팔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주름옹이가 부르니 뿔옹이도 따라 불렀어요. 바람도 노랫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용히 구름을 몰아왔어요. 그리고는 노래를 구름에 실어 보냈죠. 그날 저녁엔 여름밤을 식혀주는 시원한 비가 내렸어요.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 전라북도 기념물’

“부웅” 군인 지프차가 마을 시멘트 길을 따라 들어왔어요. 요즘은 전보다 더 자주 와요. 군인 한 명이 마을 집터와 나무를 구석구석 살폈어요. 그리고는 팽나무 할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군인은 팽나무 할아버지

의 딱딱한 기둥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나 선재야. 어젯밤 내리던 비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엄마가 섬그늘에’ 라고.”

선재는 팽나무 기둥을 꼭 끌어안았어요. 팽나무 할아버지는 기쁨에 겨워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일었지요. 몰래 쳐다보고 있던 주름 옹이와 뿔옹이는 속으로 만세를 불렀어요. 선재는 팽나무 할아버지 그늘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휘리릭 스케치북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 이 스케치북이 왜 여기에 있지?”

선재는 깜짝 놀라 스케치북 속의 그림을 넘겨보았어요.

“아! 여기가 우리 마을이었어. 이웃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바다가 있었지. 맛있는 조개를 내주던 드넓은 갯벌도 있었고.”

선재는 팽나무 그늘에서 한참 동안 그림을 보았어요. 그리고 주먹을 꼭 쥐었어요. 선재는 지프차를 타고 떠났어요.

여름이 깊어지자 팽나무 할아버지는 하늘을 향해 점점 더 가지를 뻗었어요. 열매는 조금씩 빨개졌어요. 선재는 하나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팽나무를 찾아왔어요. 이사 간 하제 마을 사람들과 팽나무를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함께요. 사람들은 매달 팽나무 주변에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어요. 그리고는 커다란 간판을 붙여주었죠.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 전라북도 기념물’

팽나무 할아버지 나이가 600년이라고 전라북도 문화재로 만들어주었어요.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팽나무 할아버지를 보러 초등학교생들이 견학을 왔어요. 옹이 요정들은 아이들 소리에 반짝 눈을 떴어요. 아이들은 옹이를 한참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이야~ 이건 주름이 잔뜩 진 코끼리 같아.”

“이건 티라노사우르스 공룡 발톱 같은데.”

“여기 웅크린 아기도 있다.” 아이들은 옹이 찾기 놀이에 푹 빠졌어요.

“얘들아, 여긴 예전에 육천명이 넘는 사람이 살았던 큰 마을이었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바다가 더는 바다가 아니고, 땅이 더는 사람들의 땅이 아니어서.”

선생님은 쓸쓸히 말했어요.

“여기는 하제 마을이야. 미군 부대가 될 뻔했지. 600살 팽나무가 우리나라 문화재가 되어서 하제 마을로 남
게 되었어. 하제 마을 이름 꼭 기억하자!”

“네!” 아이들은 신이 나서 팽나무 웅이를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웅이 요정들은 아이들과 숨바꼭질하는 게 재
미있었어요.

참고자료

양광희(2021), 「600년 된 팽나무를 통해 본 하제 팽나무」, 하움출판사
매거진 군산<http://www.maggun.com/article/read.php?mode=read&idx=2266>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09>

2022 Gunsan City Culture

II. 군산의 역사 문화 추적 활동

- 1 이엽사 농장과 옥구 농민 항쟁
- 2 군산의 근대 전후 교육기관
- 3 군산의 옛 놀이
- 4 옥구 들노래
- 5 70년 개인사를 통해 본 군산의 경제와 문화

1. 이엽사 농장과 옥구농민항쟁

개요

조사자	문근식 · 신대호	
조사 동기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제 강점기의 이엽사 농장이 있던 서수면에는 아픈 흔적이 남아 있음• 일제 강점기 옥구농민항쟁에 관련 된 기억의 조각들을 모으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음.• 조사 방법은 서수면에 살고 계신 분들 중 이엽사 농장과 관련 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인터뷰 조사 및 문헌조사.• 조사를 통해 옥구농민항쟁을 직접적으로 겪은 사람들의 기억을 찾아내고, 남아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알리고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의 자료로 활용	
활동 개요	컨설팅 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에서 방향성 체크를 위한 컨설팅• 문정현 전문위원과의 방문 상담• 문정현 전문위원과 전화상담• 문정현 전문위원을 동반한 서수면 방문
	서수면 임피중학교와 임피역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6월 4일, 10일• 활동 : 이엽사 농장이었던 임피중학교 교내 정원과 임피역을 돌아보며 항쟁의 의미를 찾아보고, 서수면에 살아계신 고령자를 방문해서 인터뷰 대상자를 물색함
	인터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6월 4일, 9일, 10일, 7월 10일, 12일, 16일• 활동 : 임피중학교 행정실장, 서수면 마을주민 인터뷰
	문헌자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5월 2일 ~ 6월 28일• 조사 문헌 사이트 : 지역N 문화, 옥구농민항쟁 관련 논문, 디지털군산문화대전 향토백과
	보고서 작성 및 워크샵 자료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 7월 21일• 보고서 10회분 발송• 워크샵 중간발표, 최종 발표 위한 ppt 발송
	워크샵에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 발표 (6월 16일)• 최종 발표 (7월 28일)

문헌 조사(2022년 6월 10일)

옥구농민항쟁

옥구농민항쟁은 일제의 사회경제적 모순의 최전방에서 온갖 수탈과정에 항쟁하여 농민의식과 민족의식을 성장시킨 항일운동이며, 농민에게 있어 소작쟁의는 농민의 생존권을 찾으려는 항쟁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일인 지

주들에 대해 표출되어졌을 때에는 일제에 항거하는 항일운동인 동시에 독립운동의 성격을 동반하였다. 소작쟁의를 통한 농민의 항일운동은 1920년에서 1939년 사이에 140,969 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옥구소작쟁의의 전개는 옥구군 서수면 서수리의 이엽사 농장에서 1927년 11월 20일 조선인 소작인들에게 75%의 소작료를 납부하라고 통보하였고 당시의 평균 소작료인 48%를 훌쩍 넘기는 소작료를 내야 했던 옥구농민조합의 서수지부장인 장태성을 비롯한 간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소작료를 45%로 인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엽사 측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 감면이 있을 때까지 소작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경찰이 장태성을 검거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옥구농민조합의 36명의 간부들이 서수면 경찰관 주재소에 몰려 지부장의 석방을 요구하였고 36명 역시 검거 당하였다 이에 대해 500여명의 소작인들은 11월 25일 밤 그들이 수감되어 있는 서수면 주재소와 임피 주재소를 습격 구금자 전원을 구출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조합간부들을 재차 검거하였다. 이에 소작인들은 노동자, 학생들과 함께 군산경찰서를 상대로 간부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자 일제는 소방대까지 동원해 소작인들을 탄압하고, 80여 명을 추가로 검거, 조합간부와 소작인 31명에 대하여서는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이란 명목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표 2> 1921~29년 도별 소작쟁의 추이

구분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경 기	1	2	2	3	1	1	24	25	15	16
충 북	0	1	2	10	2	5	15	8	10	15
충 남	1	2	4	2	8	80	112	158	90	130
전 북	2	7	2	6	1	3	19	33	1381	38
전 남	5	4	0	24	59	105	22	41	85	45
경 북	4	7	3	3	8	3	2	0	0	5
경 남	0	3	4	103	63	1	2	2	2	163
황 해	1	0	3	7	18	2	1	3	2	4
평 남	1	0	1	12	2	0	0	0	1	0
평 북	0	0	0	4	0	1	1	0	3	6
강 원	0	1	0	2	2	2	0	2	0	1
함 남	0	0	3	0	0	1	0	2	1	0
함 북	0	0	0	0	0	0	0	0	0	0
합 계	15	27	24	176	164	204	198	275	1590	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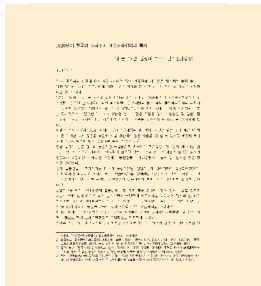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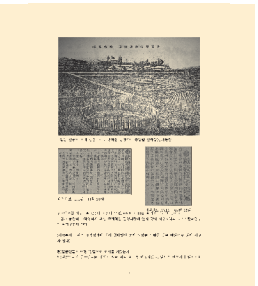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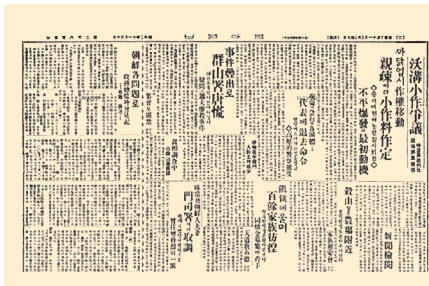
<표 5> 1920년대 후반 군산지역의 50정보 이상 일본인 대지주 (단위 : 정보)

농장명	창립년월	지주 농장주	경 영 대리자명	사무소 소재지명	소 유 지 내 역					수확관리지	소유지 소재지	적요
					논밭	임야	기타	계	논 밭			
森樹農場	1919년 6월	森樹五郎	高木 茂三郎	군 산	398,847.5	24.3	30.5	501.1	-	-	김계옥군 익산군산	군산부
계					398,847.5	24.3	30.5	501.1	-	-		

주 : 1926년 8월 현재.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 명부』(1985) 재작성.

1921년 ~ 29년 도별 소작쟁의 수의표	1920년대 후반 군산지역의 일본인 대지주 표
-------------------------	---------------------------

군산시 서수(瑞穗) 지명의 뜻은 일본의 고사에서 나온 ‘수수국’ 즉 싱싱한 벼 이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당시 일본인 지주들은 소작농들에게 ‘도조(납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고 논밭을 빌린 대가로 해마다 내는 벼)’를 1200(당시 기준)평 한필지에 수확이 나락으로 22가마니 정도인데 도조로 18~19 가마니 정도를 가져갔다. 뿐만 아니라 논을 갈아주고, 종자를 주고, 비료를 주고 나서 수확 때 도조와 함께 이런 비용들을 따로 받아갔으며 수리조합비 또한 소작인들이 내야 했다. 1927년 11월 20일 경 이엽사 농장은 조선인 소작인들에게 75%의 소작료를 현물로 납부하라 통고, 이 통고를 받은 당시 옥구농민조합 위원장인 장태성씨가 도조를 납부하지 말자고 불납동맹을 결의함(당시 장태성씨는 야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1920년대 한국의 소작제와 서수소작쟁이의 특징	일본 천황이 이세 신궁에서 거행하는 신상제에 공납할 현국답 사진 및 매일신보 1914년 11월 29일자, 3월 12일자 사진	우리고장의 항일운동사 옥구농민의 항일투쟁사	1927년 11월 29일 소작농민들의 항일운동 동아일보 기사

현장조사

임피역 (2022년 7월 9일)

임피역은 2005년 11월 11일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소재지는 전라북도 군산시 서원석곡로 37-0이다. 1912년 군산선 지선으로 시작하였다. 옥구농민항쟁 당시 장태성과 옥구농민조합 36명의 간부들이 서수면 경찰관 주재소와 임피면 주재소에 검거당하자 500인의 농민들이 임피역에 모여 서수면과 임피면의 주재소를 습격하여 이들을 구출한다. 현재 임피역은 임피역사 내부 공사중이다.

			
임피역사 (내부공사중)	임피역 옥구농민항쟁비	임피역 기차모형	임피역 기차길

신사 (2022년 7월 16일)

신사는 일본의 민속신앙인 신토신을 모시는 종교시설이었지만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일종의 성지가 되었다. 군산시 서수면 하용전마을에 있었던 신사는 4개의 사당이 건축되어 있었다고 한다. 하용전마을 황기룡 이장님과 마을 주민이신 김구호씨는 해방이 되자 신사 제단에 있던 돌을 마을 주민들이 가져가 집을 지을 때 토반으로 사용하였다고 했으며 김구호씨 집의 토반 역시 신사제단에 있던 돌이었다고 한다. 신사는 해방 이후 3개의 건물 이 불탔으며 남은 하나는 모정으로 이용되었다가 최근 태풍과 폭우로 심하게 훼손되었다.

			
임피역사 (내부공사중)	심하게 훼손되어 신사터	김구호씨 댁 신사 제단의 돌을 집의 토반으로 사용	신사 제단의 돌

인터뷰

INTERVIEW

인터뷰 1

- 일시 : 2022년 6월 9일
- 장소 : 군산시 서수면 항쟁로 208-3
- 대상 : 문병준

문근식 : 1920년대 한국의 소작쟁이 그 중에서도 옥구농민항일항쟁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문병준 : 근데 농민운동으로 인해서 소작쟁이가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신대호 : 원래 여기 마을에 사셨던 거예요?

문병준 : 그렇지, 나 어렸을 때 출생지예요. 그래서 옥구농민 환경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그 후손 대표고 앞으로 이제 옥구농민항쟁 추모관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러고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만큼 사람이 없어. 농민 항쟁은 1927년 11월 27일 날 발생한 거예요. 이 사건이, 그 신문 같은 거 없죠.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신대호 : 네. 자료는 있어요. 문헌 자료 정도.

문병준 : 그 당시 신문 그대로 그런 것도 있고 이 농민항쟁에 대해서 34명이 형을 받았는데 그중에 아들 되는 한 사람이 대구 복심원에 소송을 한 것 있어서, 김양규라는 선생을 찾아가서 서훈을 해주시오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문병준 회장님과 인터뷰	임피중학교	문병준 회장님께 받은 자료1	문병준 회장님께 받은 자료2

문근식 : 자료가 없나요?

문병준 : 안 간 데가 없어 그래서 서울신문, 조선일보사 가서 이제 전부 복사해 왔는데 이제 내 안 되겠다, 안되게 생겨서 보훈처로 갔어. 내가 보훈처로 가가지고 나 이래서 왔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안 돼요 하더니 34인 중에 한 사람은 한 3년 전에 서훈을 받았어, 못 받은 사람이 지금도 12명 있어. 나중에는 한 3차에 걸쳐서 서훈을 받았어. 이제 그레가지고 184명이 서훈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 이 농민운동이 전국적으로 40 45만 건인가 얼마인데 그 중심지가 여기 서수요, 서수예요.

문근식 :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농민 향의 투사 추모회를 하고 있는데 시 의원은 또 언제쯤 시작하게 되시는지?

문병준 : 1996년도인가 그렇게 될 거야

문근식 : 그러면은 시의원 하시면서 이런 추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때부터 하셨는지 아니면 시의원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셨는지

문병준 : 내가 그 당시에 판단도 못 했고 시의원 할 때도 나는 시시하게 알고 그냥 별로 참견을 안 했어

문근식 :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 때는 이런 것이 있다고만 생각했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은 있었겠네요.

문병준 : 예, 예

문병준 : 이제 이 내용은 그래서 이제 서훈을 받을 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 한 몇 년도 서울 월드컵이 2002년도였나?

문근식 : 네 2002년도..

문병준 : 처음 받을 때가

문근식 : 월드컵 때래요 한일 월드컵 때 2002년이니까

문병준 : 그러니까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그때 이제 받아가지고 그 뒤에 계속 노력을 해야 하지 내 나름대로는 계기가 서훈을 받으셔서

문근식 : 그러니까 계기는 이제 서훈을 받고 그때부터..그러면 여기에 일어났던 항일 투쟁이라든가 이런 역사에 대해서 더 이렇게 깊이 알아보고 이런 추모 사업이라든가 하게 된 동기는 는 무엇인가요?

문병준 : 이거 내 개인이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봐왔으면 안 되겠다, 사회단체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세무서가 와서 전부 만들어서 서류 넣어가지고 사회단체도 만들었어요.(사업자 고유번호증을 보여주시며)

문근식 : 우리가 참고로 사진을 찍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의원을 하시면서 그 당시 소작쟁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본 적도 있으신지

문병준 : 그 당시에는 들기는 했지만 제가 예사로 알았지 나는.

문근식 : 그러면 이제 이 이엽사 농장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는 지금 앞서 말씀했던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뭐 좀 더 소상하게 알고 있었던 부분은 또..

문병준 : 원래 동기가 일어난 것을 내가 전부 얘기를 해줄게, 나도 이제 그 당시 들은 얘기니까

문근식 : 그 들은 분이 어떤 분이신가

문병준 :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들은 거시기로는 이 동네 박상호라는 갑부의 아들이 있었어 그 사람이

문근식 : 박상호?

문병준 : 박상호 그 사람 아버지가 갑부여, 서수면 1대 갑부인데 전주보고, 전주보고가 지금 전주 고등학교인데..

문근식 : 예 전주보고

문병준 : 응 전주 보고 댕겼어. 전주 보고 2학년 때 이 운동하다가 독립운동하다가 퇴학을 당했어 그때 3학년에 재학 중인 장태성이라는 사람이 있어

문병준 : 장태성이라는 사람은 옥구 사람이고 여기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이게 부자집 아들이 거기 붙어서 같이 상의를 한 거예요. 내가 생각이 그래요 예 그래서 야학을 시작했어요. 그거 야학당 그런데 그 당시 그 사람은 이

제 한 19살 이제 얼마 먹었다 하는데 그게 실화예요 왜냐하면 내가 증인인게 그 사는 사람들한테 내가 들은 근거가 있던 게 그래서 야학을 하는데 전부 나이 먹은 사람이고 이 이제 이런 사람인데 네 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인데 이제 태극기를 가르쳐주고 이런 것을 해서 이제 야학을 하면서 이게 그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말도 잘 안 들을 거 아니야 이야 무슨 공부야 그때가 그러게 말을 하나도 안 듣고 하니까 그 선생이 화초리를 가지고 자기 발을 때려

문근식 : 어른은 못 하니까 자기가

문병준 : 그걸 보고 제자들에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배웠다. 이 얘기를 그때 야학을 한 사람이 살아 있었어 그 당시 그 사람 증언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그것을 근대역사박물관 이다. 내가 갖다 놔뒀어 보관해서

문근식 :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현재 살아 계신가요

문병준 : 아니지 다들 오래된 얘기인게

문근식 : 근데 그 당시에 야학이면은 그때는 그 당시만 해도 일제강점기 시절

문병준 :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 말이며 그러가지고 이제 도조를 일본 놈들이 논을 이제 싼 가격으로 샀어 이제 그러가지고 이제 도조를 받는데 70% 75% 80%를 내라고 그러 ,그래 하지 말고 40%로 주겠다. 안 된다고 그러, 그러면 우리 못 낸다. 그게 발단이 된 거야 이제

문근식 : 농민항쟁 시작의 발단이니까

문병준 : 원래 발단은 그랬는데 그전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인자 농민운동이 시민운동으로 해서 모임을 많이 가졌어. 농촌운동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이제 시도한 거기가 있어

신대호 : 그러면은 일본에서 도조 말고도 더 가져간 거 없어요?

문병준 : 착취당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일본 놈들이 뭐 가져갈 것이 뭐있어 한국 사람들에게 뭐 물건 가져갈게 뭐 있어. 그 당시

신대호 :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문근식 : 일 일은 많이 시켰나요? 그러니까 이제 소작이라는 게 일정 부분을 저가지고 지금 내는 거고 그 나머지가 먹고 살아 있는데 개네들이 7, 80 프로를 요구를 하니까 30프로나 20프로가 아니면 못 먹고 산다 우리 나 농사 안 지겠다.

문병준 : 무조건 못산다고 해서 운동을 했어 그래서 장태성을 이제 검거해 가지고 술산역으로 왔어 임피역 그것을 알고 여기서 진을 쳐가지고 모인 것이 한 500여 명 모였어

문근식 : 많았네요.

문병준 : 500명 그 당시 다 온 거야 이제 500여 명이 그럼 여기서 임피역이 그거 걸어 가지고 막 주재소 때려 부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업고 나왔어 이제 500명이 침투해가지고 장태성 꼬집어 내가지고 그때 박상호라는 사람은 여기 서수 주재소에 있었어. 여기 오니까 이 사람은 내줘서 나갔다고 나가더라

문근식 : 그러면 그 당시에

문병준 : 이제 얘기를 해야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500명이 참석해서 그 난리를 내는 데 전라북도 경찰 다 모였어 거짓말하면 다 모였다는 거여 그래서 걸리는 대로 다잡아갔어

문근식 : 네

문병준 : 그러가지고 80 몇 명에서 선별해가지고 51명이 검사국으로 이송됐어 거기서 또 선별해가지고 이제 34명만 살고 이제 그랬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해서 이제 발단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옥구농민 항쟁이 이제 거기서부터 발단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동아일보사 마이크로 빌딩에 가가지고 다 여기저기 막 나가지고 한 거예요. 그 김양기라는 분이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좀 걸리는 것은 해 갖고 났는데 내가 세 명은 내가 했지

문근식 : 그러면 저기 뭐야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실 방침이시네요.

문병준 : 그러니까 내가 나이 먹은 게 이제 이 문제다 이거예요. 시장한테도 금년 연두 순시 때 보고를 했고 시장 시의원들한테도 보고 해가지고 여기 앞으로 시의회 의장 될거 사람한테도 얘기했고 전부 했어 해가지고 추모관을 꼭 지야겠다. 34명은 이렇게 어렵게 고통을 받았는데 후손 입장에서 그냥 두어선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제 그 조직체를 만들었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에는 거기 다 모일려고 했는데

문근식 : 그럼 의원님 현재 이런 지금 들었던 분들의 사진 같은 거라든가 그런 흔적들이 있는 사진들은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문병준 : 그런 흔적은 없고

문근식 : 이제 의원님 아버님의 사진 같은 거라든가

문병준 : 아버지 것이 아버지 개인사진 뿐이지 이것도 없고 이게 지금 누나한테 만든 거예요.

문근식 : 그러면 현재 의원님 자녀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문병준 : 나도 많아요 똑같아 아버지랑

신대호 : 2남 3녀시겠네요

문근식 : 그러면은 현재 의원님을 모시고 사는

문병준 : 없어 나 혼자 살지

문근식 : 근데 이제 뭐 아버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추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또 자제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문병준 : 애들은 아직 그런 데 관심이 없어

문근식 : 그래요 그래도 특별히 그중에서도 누가 관심을 갖고 또 아버지가 추구하는 이런 훌륭한 일들을 계승할 수 있는 분들은 있는가 하는 거 한번 여쭙보고 싶어요.

문병준 : 그냥 없는 걸로 해야지 나 죽으면 애들이 이 공동사업 이런 거에 관심이 있거나? 나는 지금 뭐냐면 금년에 이제 누나들 후손이 모여가지고 현충원, 아버지를 현충원에 모셨는데 거기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개들 앞으로, 게 형식으로 지금 묶어놔서 지금, 그래서 앞으로 가들은 그렇게 활동할 걸로 봐줘

문근식 : 그러면 애들은 지금 현재 어떤 일하고 계신가요

문병준 : 아들 또 하나는 거기 군산 사료공장 차가지고 다니면서 차 사가지고 들어가서 일을 하고 한 놈은 또 해병대 대위 나왔는데 그러면 또 뭐 하다가 안 된 거로 지금 포크레인 기사하더라고

문근식 :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 따님들 중에.

문병준 : 관심 있는 사람이 있지 딸 막내딸이

문근식 : 그 얘기를 우리 문정현 위원님이 한 번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내딸이 좀 관심이 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갖고 있고 제가 나이 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했던 것을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그랬더라 하면 그런 아쉬움이. 우리가 살고있는 이 땅 자체가 역사라는 게 있거든요. 앞으로 누군가한테 물려줘야 할 유산이라는 게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세대는 또 세대를 낳고 또 다음 세대를 여는 것이 그것이 역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들어 했을 때 그래도 관심 있는 자제분이 있으면 그냥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없으면 이 상태에서 딱 멈추고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야 니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권하고 또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 또한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병준 : 그래요 네 내 생각에도 똑같아

문근식 :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러시아 사태를 보면은 엄연히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거라 전쟁이 우리도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 일본은 또 끊임없이 독도라든가 이런 문제를 야기를 시켜서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제분들 중에서 한번 여쭙보고 싶은 거예요.

문병준 : 이제 가가 좀 이런 부분에 좀 생각도 하고 있어 애들은 바쁘게 돌아다니고, 딸내미가 좀 생각하고 있는거 같더라고

문근식 : 따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문병준 : 가는 지금 반찬 가게해요 군산서

문근식 : 반찬가게

문병준 : 장독대라고 오래돼 그 한 지가 근데 이제 가가 좀 관심이 있고

문근식 : 따님 실례지만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문병준 : 문성숙,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나도 지금 이것이 빨리 내가 없어지면 이게 그게 된다는 것도 다 기억에 남아 머릿속에 남아 있어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선현들이 쓰던 유품이나 농기구나 걸어서 한 천여 점을 내가 보관해 놔있어

문근식 : 네

문병준 : 복지관에다가 보관만 해놓고 있으면 안 되게 생겨서 역사박물관이 군산에 생기길래 문동신이가 그때 시장할 때구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증을 내가 하는데 차로 하여간 대어섯 번 실어 갔어 그래서 지금도 군산 역사관에 가면 기증자 이름에 들어있어.

문근식 : 훌륭하신 일을 하셨는데

문병준 :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근거가 있는 것이 뚜렷하고

문근식 : 네

문병준 : 여러 가지로 내가 지금 관심이 한두 가지가 아니여

문근식 :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뒤늦게 이제 사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젊은층들, 현재 사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이렇게 일제강점기를 겪어왔던 세대를 통해서 이제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요즘 그런 것보다는 책이나 문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해보는 기회가 많고 이렇게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얻는 게 많은데 직접 와서 이렇게 그런 것을 듣는다는 것은 아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문병준 : 군산대학교 김민영 교수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거시기 했어요.

문근식 : 끝으로 이렇게 저희와의 인터뷰도 하고 또 이제 앞으로라도 저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후손들한테 이것은 꼭 남기고 싶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면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병준 : 특별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거 뭐 별것이 없고 앞으로 일본 놈들이 또 언젠가는 넘어다본다고, 나 어려서지만 일본 놈이 들어갈 때 이제 나하고 50년 후에 보자고 그랬다고, 그때만 해도 얼마나 저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그런 소리를 했겠어

문근식 : 지금까지 이렇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으로서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희로서는 감회가 깊고요 또 이렇게 하신 말씀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사학도로서의 그런 방향이라든가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역사를 알리고 또 묻혀져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더듬으면서 그 시대의 아픔을 다소나마 알 수 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2

- 일시 : 2022년 7월 16일
- 장소 : 서수 하용전마을
- 대상 : 이장 황기룡

문근식 : 농민항쟁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얘기 좀

황기룡 : 저는 사실 이 동네 온 지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안됐는데 여기가 우리 처가집 동네야 그래요, 근데 우리 저 할아버지도 여기 옥구농민 때 농민항쟁 때 해가지고 서훈을 받았어. 서훈을 받아가지고 34명 중에 아마 서수면 내에서 하용전마을이 제일 많을 거예요. 서훈 받으신 분들이 5명인가 6명인가 이렇게 그 정도 돼 그 동네 출신이요 여기 분들이 많이 그때 참가해지고 꺾기를 했어요.

문근식 : 그리고 여기 신사

황기룡 : 신사도 있을 뿐더러 왜 그런 건지 그 상황을 다 알았니까 많이 알았을거 아니야 신사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종류가 많아

문근식 : 그리고 이제 그러면 수탈에 대한 흔적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고계신 것은?

황기룡 :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몰라

문근식 : 신사 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시는지

황기룡 : 그렇죠 신사터는 이제 딱 하고 올라가 보시면 이 신사터가 있으니까, 그런데 현재 거기가 국유지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거의 다 종교 부지로 돼 있어, 부지가 종교 부지 이게 신사이기 때문에 아마 종교 부지가 된 거 아닌가 생각해

문근식 : 그러면 아직도 일본 사람

황기룡 : 아니지 아니지 국유지지 국유지

신대호 : 그럼 하용전마을의 이름이 하용전인 이유를 혹시 아세요?

황기룡 : 이 서수가 용성리, 하용전, 상용전, 용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보면 용 형상이 형성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발에 서 용인 승천했다. 그런 설이 있어요. 여기가 하용전, 상용전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런 유래가 있어

문근식 : 저희는 군산대학교 황룡이라



인터뷰 사진



서수 신사가 보이는 김구호님
어린시절 사진



복원된 사진

황기룡 :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문근식 : 그러면 저기 뭐야 수탈을 했을 때 곡식 같은 거 감춰줬던 거 이런 것들은 다 들어서 알고 계시겠네요.

황기룡 : 그런 것은 자세히는 모르지 들어서 알지

문근식 : 어머니는 직접

황기룡 : 어머니, 용례 아줌마 그때 일본 시대 때 그때 몇 살이었어? 신사 있을 때 여기 살았었으니까

할머니 : 몇 살 먹었었냐고? 몰라 신사에 대해서는 잘 몰라

문근식 : 잘 모르신다 그러면 저기 남자들은 막 돌아다닐 때 일본 순사들 알았을거 아니에요

신대호 : 배고팠거나 그런 기억들은 없으셨어요?

할머니 : 몰라요 막 비행기 올라가고 굴파고 그 속으로는 들어가고 어찌고는 했는지 몰라, 집에다가 굴 파놓고 막 쳐 들어온다고 굴에 들어가고

문근식 : 굴은 얼마나,, 크기는

할머니 : 식구가 많았으니까 솔찬히 컷조

신대호 : 일본이 패망하려고 하니까 넘어올 수도 있죠.

문근식 : 일본 순사들은 못 봤네

할머니 : 몰라요

문근식 :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 : 80이요

황기룡 : 어르신 위로는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문근식 : 그러시겠네요. 그러면 27년생들은 좀 기억이 있으실텐데

황기룡 : 90대 정도 가야 90대 그제 끊겨버렸어 10년 사이에 끊겨버린거야

문근식 : 90대 분들은 일본말도 잘하시더라고요

황기룡 : 90대는 이 기억을 다 할 수 있는데 80대까지 10년 사이에 끊겨버린거야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이 중요한 거 다 끊기니까

신대호 : 그래서 이게 남겨놓으려고 저희가

문근식 : 이제 저희가 추진하는 저기가 문헌자료는 많아요

황기룡 : 많아요. 없다고 그러던데

문근식 : 아니 이제

신대호 : 조사를 하신 선생님들이 많아지고 이제 땅 부지에서 얼마를 뺏아가려고 했다.

황기룡 : 근데 여기를 제일 먼저 찾아온, 심사 때문에 찾아오신 분이 개인택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알아요. 혹시

신대호 : 그건 모르겠어요.

황기룡 : 그 양반이 또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 양반이 제일 처음에 여기를 먼저 찾아왔어 개인택시 하시는 분인데 그 양반이, 그 분이 여기를 먼저 찾아와서, 그분이 신사 때문에 여기를 왔었어 거

문근식 : 완전 없애버렸다는

황기룡 : 다 동네 누가 가져가고 주인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패망하고 가면 그냥 놓고 가버렸잖아 소유가 없어져 버렸잖아 정부도 그때 당시에 해방되고 나서는 어수선하고 가고 관리가 좀 있잖아

황기룡 : 집집마다 다 갔다가 소방한 사람들이 여기 있어 돌돌 여기 보면 돼요 거의 여기 그계 계단이라고 그러더라고

문근식 : 그럼 계단도 좀 찍어야 되겠네 그 신사를 치우면서 그 돌은 마을 주민들이 갖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았다가 토방을 만들었네 이렇게

황기룡 : 그건 제 거시기는 그때 쓰던 나무도 가져다가 집도 진 사람들이 본다고 그러더라고

신대호 : 이걸 철거했을 때 기억이 계시는 분이 있어요? 신사 철거했을 때

황기룡 : 없어 돌아가셨어 마지막으로 거시 양반 그 양반은 고석금 씨가 작년에 돌아가셨을걸요. 그 양반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 양반이 그 이장을 해가지고 거기 뜯어다가 집도 짓고 어찌고 막 그걸 했다고 다 알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알았는데 돌아가셨어

문근식 : 그러니까 이제 그거라도 들을 수 있어서 우리가 저희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거 서로 녹음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자료 같은 거는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분들이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승이 되는 게 없거든요. 이제 돌아가시면 없잖아요.

황기룡 : 그렇게 구전으로 내려온 것만 있지 구체적으로 겪었거나 그걸 봤거나 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지

문근식 : 저희가 온 것은 거기 신사에 쓰였던 돌 같은 것을 갖다가 이제 토반 같은데다가 다 집집마다 이렇게 갖고 그 외부에 나무를 갖다가 이제 피는데 짓기도 하고 썼다는 얘기인데 집에다가 그러면 이장님께서 신사를 세우려고 하는 것도(복원하려는 것도) 어떻게 역사적으로 해서 어떤 흔적을 남겨서 후대에 남기려는 건지

황기룡 : 이런 교훈을 이런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그런 것을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복원을 해서 현판이라도 해서 설명이라도 해서 딱 해놓으면 근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문근식 : 왜냐하면 자기들은 또 온다라는 생각으로

황기룡 : 그러는 것이 있죠. 신사가 굉장히 컸었어요. 네 채가 있었으니까 건물이 네 채가 있었대

문근식 : 신사 4개 그러면 그 있었던 자리는 아시나요

황기룡 : 그렇죠 이게 어느 분은 하면서 불을 놓고 갔다. 세 채는 다 질러버리고 갔다. 그 사람들이 불을 내가 생각할 때 안 지려고 갔을 것 같아 그냥 놔두고 그걸 해체해가지고 사람들이 갔다가 집도 짓고 막 이렇게

문근식 : 그러니까 이제 불을 질렀다는 얘기는 우리들 얘기고 일본 사람이 불을 지를 리는 없어요. 신사라

황기룡 : 산을 모시는 곳이니까 절대 불을 안 질렀을 거예요

문근식 : 그 여기 제가 볼 때는 신사가 있을 정도라면 일본 사람들도고 좀 가깝게 지낸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황기룡 :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싹 돌아가셨어요.

신대호 : 공습을 할 줄 알고 굴을 만들었다는데

문근식 : 저기 어머니 공습로 굴이 좀 컸어요? 그러면 저기 마을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고

할머니 : 그렇게 크진 않고 집집마다 있었어요

신대호 : 아 그래요

신대호 : (이장님이) 옥구농민항일투사 추모회 재무님이시니까 이제 활동을 내년부터 하신다니까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실 건지

황기룡 : 활동보다도 이제 우리 면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우리 면에서 추모사업을 해야겠다. 그리고 추모회관을 좀 지어서 회관을 지어서 저번에 시에다가도 얘기하고 국회의원 신영대 국회의원한테도 국정보고 할 때 왔을 때도 얘기를 했거든 추모관을 좀 서수예다 지어달라고

황기룡 :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잘 될려는지

신대호 : 항일 투쟁의 역사인데

황기룡 : (사진을 보여주시며)이런 거 이런 거 복원 안돼도 그 사진이 있잖아요. 그놈 보면 확대하면 비슷하게는 복원이 될 거란 말이야 하나 정도는 이런 거시기가 있었다. 여기가 이게 설명을 또 해서 좀 해놓고 후대에 역사가 남겨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안 되거든 지금 그런 것이 돼야 되거든

신대호 : 이런 부채의식을 더 느끼신 거 아시고 이런 추모의 사업을 할 때 추모 회관을 만드신 아니면 또 생각하신 거 있으면 또 이런 것도 하면 또 좋겠다.

황기룡 : 그런데 이제 이게 복원이 되면 지금 이렇게 둘레길이나 역사 탐방하는 거시기가 있잖아요. 예 임피 역사로 해서

신대호 : 시간 여행

황기룡 : 시간 여행 옥구 항쟁 기념탑 이렇게 해서 신사터 이거 이렇게 여행 코스가 되거든 그걸 해놓으면 그런 거시기도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관광을

신대호 : 관촬을 것 같아요. 일제의 수탈루트로 해서

황기룡 : 여기서 이제 근대문화 역사를 거시기이니까 군산에도 가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예 쪽에 향쪽에 양쪽에서 그렇게 해서 쪽 한 바퀴 도는 것도

문근식 : 여기서 임피면 그 임피 지금 저거 있나 우리 향교 임피향교

황기룡 : 있어요 제가 임피향교 재무예요

문근식 : 우리 저 옥구향교도 있잖아요

황기룡 : 옥구향교가 더 커요

문근식 :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 거꾸로 알고 있었네 임피향교가 더 크다는

황기룡 : 현으로 빠지면 임피현이 컸었겠지 서수 다 임피여서 임피면으로 다 들어갔으니까 임피현이 컸었는데 향교는 옥구 향교가 더 크다고 하더라고 규모가

문근식 : 제가 사는 동네가 옥구향교 옆이거든요 부지가 거기 폐교가 하나 있잖아요. 상평초등학교 그 폐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근대 저기로해서 서수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항쟁이 있을 때 어디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할 만한 데가 없는데 그래도 향교에서는 보면 그래도 학구열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군산을 보니까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의자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서수 이렇게 전부 하나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근대 박물관에 있다고 하면 어떨까 요즘 캠핑장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떨어지더라도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렇게

황기룡 : 임피면이면 임피향교가 있고 최만식 선생 회관도 있잖아요. 터도 있고 그리 그런 코스 여기 옥구 농민 항쟁 신사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거시기가 될 수 있거든 해놓으면

문근식 : 상당히 오늘 제일 그 사진 있잖아요. 그걸 복원을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것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했던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서 하여튼 이렇게 귀중한 말씀도 듣고 이게 이제 보존이라는 게 보면 어느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관심을 갖고 그걸 그냥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천적인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계속 이어주고 물려주고 해서 또

황기룡 : 기록으로 남기고

문근식 : 남기면서도 구전도 또 이렇게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남길 수 있는 자료들이 그것도 많이 없어진 거죠.

신대호 : 아이들이 많이 알았으면

황기룡 :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역사 교육의 장으로도 말하자면 애들 한 번씩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들도 와서 볼 수 있는

문근식 : 요즘은 가족들 단위로 해서

황기룡 : 이 신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라고 많이 오는데 복원은 안 돼요

문근식 :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요 이게 자꾸 오고 막 하면 또 안 되는 것도 없어요.

황기룡 : 형님은 그렇게 찍어놓고 잘 모르지(김구호씨 방문) 이사진이 이 형님이여

신대호 : 그 당시에 몇 살 정도

김구호 : 그때가 한 8살 됐겠지

신대호 : 어른이랑 같이

김구호 : 이모 할머니의 아들, 이모 할머니 아들

신대호 : 되게 중요한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되게 중요한 사진이어서 뒤에 건물이랑 다 같이 나와서

황기룡 : 잘 하고 줘야 되요

신대호 : 복원 잘 해서 드릴게요

황기룡 : 복원한 사진 우리도 하나 줘요

신대호 : 예 복원 사진 따로 드릴게요 나중에 또 심사 같은 거 이렇게 복원 사업할 때

황기룡 : 그러지 자료니까 그런 그대로 거시가 될 수 있거든 복원이

신대호 : 꼭 복원이 됐으면 좋겠네요.

황기룡 : 그 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요 어떻게 생겼다는 것은 알지 그냥 들어서라도 형님 집 뒤에도 옛날에 굴이 있었어?

김구호 : 아니 굴이 있는 게 아니라 동생집에 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문근식 :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김구호 : 김자 구자 호자요

신대호 : 지금 혹시 연세는

김구호 : 53년생이요

문근식 : 두 분이 같으시네요

황기룡 : 신사 복원이나 좀 해줘요. 그것 좀

문근식 : 우리가 힘은 없지만

황기룡 : 이제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문근식 : 여기다 써놔야지 이장님이 가장 앞으로 하는 것은 신사 복원을 통해가지고 일제히 여기 있었던 것을 잊지 말고

황기룡 : 역사 교육의 장으로 사진이 딱 건물 있잖아 그건 그대로는 복원이 되거든요. 똑같이 안 돼도 할 수는 있거든요. 사진이 딱 한 장 있으니까

문근식 : 거기에 그 인물 속에 이렇게 어렸을 때 동시에 또 사진이 있으니 그러면 그때가 저 사진으로 보면 한 네다섯 살 그 정도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휴전 전인가 한참 싸우고 난리 쳤을 때 그런

김구호 : 휴전 이후죠

황기룡 : 50년 후에 60년대 초반이지 60년대 초반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해방 되고도 한참 지난 거죠. 45년 넘게 쓴 게 60년 되면 벌써 15년 지났는데 일이지

황기룡 : 석금이 양반이 살았으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줬을텐데

신대호 : 안타깝긴 하네요. 좀 많이 옛날에 끊어버린

황기룡 : 이런 것들을 짐작해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좀 이어질 수도 있었지 구전으로라도 이렇게 들어서

신대호 : 다들 농사 지으시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일본 애들이 소작을 했는데 칠할에서 칠할 오펜을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농사를 만약에 지었는데 가져가면 어떤 마음인가 농사를 지으시는 분 입장에서 한번 듣고 싶어서요. 만약에 내가 딱 농사를 지었는데 칠할오펜을 일본에서 딱 가져간다. 그러면 나머지로

김구호 : 현재로 말이 안 되는 진짜 말이 안되지

신대호 : 그때는 식구도 애를 몇 명

황기룡 : 엄청 많았었는데 그걸로..

문근식 : 그런데 그나마도 안 주면 굶어 죽으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신대호 : 농민항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추모관도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네

문근식 : 그 당시에는 살기 위해서 이게 투쟁을 한다는 것은 일본 사람들은 핍박이 오잖아요. 핍박이 오는데도 항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문근식 :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 지주들은 얼마나 이렇게 눈이 아른거리겠어요. 삶의 터전을 갖다 여기다 다 오라 해가지고 몸만 쫓 빠져나갔으니 온다는 얘기도 맞죠. 일본 애들이 여기 왔다는데 손자들도 오고

신대호 :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되죠

문근식 : 그러니까 나는 개들이 그 손자들을 통해가지고 내가 조선 땅에서 이런 질문서가 있고 뭐 그거 아마 보관하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도 위안부 인정을 안하고 교과서도 그러고

신대호 : 그러면 이제 거기(신사터)를 갈까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과 사진자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3

• 일시 : 2022년 7월 12일

• 장소 : 군산 은파펠리스 카페

• 대상 : 문성숙(54세, 문병준씨 막내딸)

신대호 : 먼저 옥구농민 항일 투사 추모회에 대해서 아버지가 회장님이신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문성숙 : 그러니까 제가 명함으로 일단 알았고 그러니까 이쪽 일을 34인이 같이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유족들이 그러니까 후손들이 잘 모르세요. 근데 아버지가 제일 열정적으로 이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찾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광복회 군산지회장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것보다 독립적으로 옥구농민항일항쟁 추모회를 하나 만들어서 추모회관을 하나 건립하시는 게 소원이시래요. 당신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설립하시는 거 그게 남은 생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셔서 아마 그렇게 해서 추모회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진짜 아버지한테 내가 그 사무국장 명함 파서 아버지 쫓아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운전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기동력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어느 기관이나 이런 데 방문할 때 아무래도 제가 따라다니면서 하면 제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혹시라도 돌아가시면 다른 누군가가 알 수 있게끔 제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따라다니고 싶은 거죠.

문성숙 : 그 사업을 제가 이어받던 아니면 다른 분이 이어받던 제가 그쪽 일을 더 이어서 그냥 없어지지 않게끔 하고 싶다는

문근식 : 훌륭하신 생각이시네요.

신대호 : 평소에 찾아가는 마을 이야기 수강도 하셨던데 지역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문성숙 : 아니요. 수강을 한 게 아니라 수강이 있다라는 걸 듣고 제가 다른 일하고 겹쳐서 못했는데 다음 학기에 수강을 하려고 그래서 그런 마을 지역에서 있었던 그거 저희도 서수 임피 쪽에서 사실 이게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엽사 농장도 임피중학교 교정이 아마 거기가 이엽사 농장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때 알았는데 임피역 이게 주재소가 그거 있어서 그쪽으로 가셨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예전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수강을 하려했습니다.

문근식 : 그 수강에 대한 것도 이 역사에 대한 아버님에 대한 생각도 더 이렇게 한번 중점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네요.

문성숙 : 우리 마을도 알 수 있고 옆 동네도 군산 지역에 있는 그런 것들 거기에서 또 다른 무슨 문화가 또 있을 수도



인터뷰 사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문근식 :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버님이 연로하시잖아요. 또 형제분들도 계시고 형제분들 중에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문성숙 : 사실은 특별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오빠가 장손이니까 이제 아는 것도 많고 이쪽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도 많이 있고 하는데 아무래도 익산에 살고 생계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더 관심을 시간을 못 내니까 모르시고 이제 또 아버지가 군산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군산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광복회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에 광복회 일 아니면 아버지가 하셨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아무래도 조금 많이 관심을 갖게 됐죠. 군산에 있어서

문근식 :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버님을 좀 도와줘 가면서 하고 싶은 또 생계하면서 하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계속 잊혀져 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이엽사 농장에 대해서라든가 추모회 추모 사업도 하면서 그런 분들한테 많이 들은 것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습니까?

문성숙 : 저는 인상 깊다라기보다 우리 아버지가 참 고생하셨구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의롭게 투쟁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모작가가 독립운동을 한 유가족하고 친일파하고 그 얘기를 작가가 했잖아요. 그때 당시도 친일파들은 열심히 일을 했고 뭐야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열심히 안 살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도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정의로운 일을 하셔서 아버지가 저희 친정 아버지가 힘드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편히 살 수 있을까

문성숙 : 지역적으로 군산에서 일어난 자그마한 일인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잖아요. 우리가 유관순 열사 3.1 만세 운동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알려져 있지만 군산 소도시라는 옥구 쪽에서 똑같이 이런 일을 했는데 모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적으로 군산이라는 곳에서 일어날 일은 모르고 있는 게 많은데 저는 이게 확대돼서 좀 전 국민은 아니어도 군산 시민이라도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문근식 : 저희가 이제 하는 목적도 문헌 자료들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항쟁에 대한 많이 사실 우리가 이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돌아가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유일하게 그 유가족들을 통해가지고 전해왔던 그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인터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추모회 모임을 할 때 아버지가 했을 때 회원분들이 오실거 아니에요 이장단이신 거 같은데.

문성숙 : 네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시에서 아니 뭐 택견으로 해서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장성태라는 연극을 했어요. 문화관에서 주최를 했는지 근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친정 아버지가 그게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신다 너도 올래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셋이 몇 년 전에 그걸 갔어요. 그런 행사가 있어서 그럴 때 유족들이 그분들이 참여를 그 공연을 보면 훨씬 더 이해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보고 이렇게 이 옥구 항쟁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저도 그 연극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았거든요. 그리고 올해 신입 합창단에서인가 이 옥구농민항쟁 관련된 음악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유족들한테 알려져 그 유족들을 초대할 하면 더 뜻깊은 행사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게 조금 자리가 잡혀서 체계적으로 유족들도 좀 관심을 갖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손녀잖아요.

문성숙 : 그분들의 또 손녀도 있을 것이고 손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는 그래도 알고 있지만 그 손자 손녀 세대 저 같은 세대는 모르고 있고 관심조차 없거든요. 근데 저도 그게 이렇게 내려가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문근식 : 저도 이제 그런 점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듣고자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언젠가는 문헌으로만 남지 유가족을 통하는 것도 다 이게 나중에 잊혀져 가거든 그런데 이런 것을 관심 있는 부분들이 또 계속 이어져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토대가 마련돼 있어서 그걸 알리고 또 현재 정세로 보는 우크라이나 정

세라든가 현재 엇그제 아베 이렇게 사망의 계기라든가 보면은 아직도 일본이라는 저기가 항상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역사관을 갖지 않으면...

문근식 : 우리가 임진왜란을 겪고 나가지고 또 일제강점기 또 겪었잖아요. 이런 것이 반복 안 되려면 이런 저변에 뭔가 새로운 역사관을 갖고 우리의 민족성이라든가 독립성이라든가 여러 각도로서 해야 할 사람들이 중요한 건데 그래도 아버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버님에 대한 것이 같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거기에 대한 관심은 많이 계시네요.

문성숙 : 그거를 하시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역사관 이렇게 국가관 저는 그거는 아니고 제가 저희 요즘에 국경이라 태극기 다는 집 많이 있으세요? 다세요 태극기 태극기 달아요? 안 달죠 저희도 애가 있지만 저희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이렇게 국경일 아침이면 저희 친정아버지가 태극기 달아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첫 마디가 그 말씀이셨거든요. 태극기 달아라 그리고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국경일 전날 쉬었잖아요. 다 쉬었어요. 그러면 내일 삼일절이니 현충일이니 조기를 달고 광복절이니까 내일 태극기를 개항을 해야 한다 학교에서 그게 교육이 됐었거든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래서 저희는 항상 태극기를 계양을 했어요. 저희 집 그때 당시에는 다 했는데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안 달더라고요그래서 저희 애들한테도 태극기 제가 다 해서 태극기 없는 집들도 많아요. 다 해서 태극기 달아 그럼 이제 애들이 막 늦잠 자잖아요. 제가 국기 계양은 꼭 저희 애들한테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저희 아버지가 태극기 보급 운동을 하셨어요. 광복회 지회장을 하실 때 그 전부터 그걸로 하시는 걸 보고 아 그래 우리가 뭐 국가관이니 뭐 이런 거는 지금 아이들한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잖아요. 국가 간에 독립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독립운동을 하겠어요. 뭐를 그런 거는 없는데 저는 그런 태극기 달기부터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문근식 : 저도 듣다 보니까 부끄럽네요

문성숙 :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태극기 보급 운동을 몇 년 전부터 하셔서 남아 있던 태극기가 갖고 계셔서 제가 가게를 하면서 광복절쯤에 제가 태극기 무료 나눔 이거를 했었어요. 단 중고등학교는 안 되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부모가 가신 분은 와서 가져가라 해서 제가 했었고

문성숙 : 몇 년 전에도 광복회에서 또 회장님이 그걸 하시길래 제가 또 가져다가 보급 운동도 했었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가 태극기라는 게 이 태극기 부대 때문에 조금 퇴색됐어요. 왜 태극기 들고 다니면 우리가 정말 2002년 한일 월드컵 이럴 때 막 태극기 달고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태극기를 들었는데 어느 순간 태극기 부대 때문에 기가 나쁜 안 좋은 쪽으로 이게 좀변질됐잖아요.

문근식 : 정치적인 실질적으로는 송고 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정파에 따라서 움직이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듣고 보니까 이미 아버님이 하는 걸 하내 안하내에 떠나가지고 내 마음에 이미 어떻게 해야아이들한테 본보기가 되고 전에 수국 선열들이 했던던 일이 몸소 실천하면서 그것이 안 되면 굳이 내세울 필요도 없이 그것이 선행이 된다는 그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문성숙 : 그래서 저는 아기들한테 이런 역사관이나 이거보다 저는 일단은 엄마들이 아기들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이나 이런 젊은 엄마들이 태극기에 대해서 그게 아마 젊은 엄마들조차도 태극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과연 그 제가 국경일 때도 이렇게 보면 아파트에 몇 개나 달려 있을까 없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sns 활동을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정말 지방선거 이렇게 할 때 출마한 사람들 집 다녀서 국경일에 태극기 계양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보고 이 사람들 투표해야 된다 제가 그 소리까지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지나치잖아

문근식 : 저도 애를 키우면서 아버지가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그러가지고 태극기를 아버지 돌아가신 태극기가 있어 집에 그러면서 아버지는 저기 뭐야 이등병 제대를 했는데 그 이등병 제대해서 또 이렇게 갈 정도면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모임이라든가 그런 거에는 한 번 빠진 적이 없어요. 찾아가자 그래서 태극기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이 나도 모르게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행

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유치원 어린 태극기를 가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서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나라에 이런 거 제기억하면서 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국가간의 형성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문성숙 : 그게 저는 뭐 크게 막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그게 가장 먼저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도 어렸을 때 물어보면 태극기 달라고 해 안 해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학교 다닐 때 어땀어요.

신대호 : 다는 날인 거 알려주지만 달아야 돼 이렇게 하지는 않죠

문성숙 :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문근식 : 우리는 달라고 했었어요.

문성숙 : 그러니까 저희 때도 그러니까 저희 때도 내일 쉬니까 그냥 마냥 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일 삼일절이니 태극기를 달아라 현충일이니까 조기를 달 조기 다르라고 하면 조기가 뭔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알죠 한 번 내려서 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잘 보고 태극기가 없는 집도 많아요.

문근식 : 이번에 했을 때 이것을 발표를 할 때 강조할 부분이

신대호 : 소소하게 바꾸는 게

문성숙 : 그게 가장

신대호 : 멀리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관인 거죠 그렇죠 집에서부터

문근식 : 저도 이게 우리 사학 전공이 있지만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문근식 : 인터뷰하고 가장 적었던 것이 태극기에 대한 거 어렸을 때부터 이거 하나 실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깊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계속 쌓여져야만이 내려가야만이 어떤 위기에 있었을 때 대체할 수 있는말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그런 면에서는 아버님이 지향하고 있던 거랑 많은 닮은 것이 많네요.

문성숙 : 그런가요 하하

문근식 : 그래서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참 어쨌든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나 모든 면에서 이것을 잘 이끌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성숙 : 제가 그러니까 기회가 된다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저희 아버지한테 저희가 그러거든요. 돈 되는 일은 안 하고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고 다니신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오빠도 그러고 저희가 이제 자식들이 만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돈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태극기 보급 운동하러 다니시고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볼 때는 시의원 하시고 광복회일을 맡으시고 이제 이거 할아버지 당신 아버지가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더 장손으로서 이제 또 하셨으니까 저희가 좀 쓸데없는 일 많이 하고 다니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제 되돌아와서 이렇게 제가 나이가 좀 먹고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큰 일을 하셨구나 누가 인정은 안 해주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자식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지만 당신이 저렇게 사이 들어 예산 조금 있는 거에 탐이 더 들어서 태극기 보급 운동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거를 내가 또 다시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sns에 광복절이 되면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하자 달던 안 달던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먼저 달아서 광복절 날은 아침에 제가 계시를 해요. 태극기 달기 동참하자고 이런 식으로

문근식 : 오늘 이제 여기 뭐 신대호 선배님하고 얘기하면서 이게 추모회 하면 우리도 같이 한 번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 이제 그 아버님을 보면서 이렇게 글씨를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 나이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그런 것을 보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하는 것은 나 아직도 건강하니까 알리고 싶은 걸 많이 알려 보고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이엽사라든가 이런 옥구농민항쟁을 통해서 뭔가를 더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 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문성숙 : 지금 아버지도 아마 조금 연세만 조금 더 젊으셨으면 더 열정적으로 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신영대 의원이 시골 돌아다니면서 이걸 했나 봐요 설명회 같은 걸 그때 또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셨대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좀 협조 좀 해줘라 그러면서 맨날 이제 시장님 다 만나고 다니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예 그

래서 또 젊으신 분 육십대 되신 분이 한 분도 계신데요. 그 분은 혼자 그 저기 제 후손 중에 손자분이시래요.

문근식 : 성함을 어떻게

문성숙 :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여쭙보고 제가 할게요 그런데 그분이 과연 얼마나 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지 그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는 그래요 이렇게 만약에 아버지가 추모회라는 거를 지금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냥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말 확장을 시켜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모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 역사 농장에 대해서 저도 사실 몰랐고 문정현 대표님한테 이제 들으면서 얘기가 내가 몰랐던 거 정말 관심이 없었는데 저런 일이 있었구나 저도 그때 다 알아갔던 거죠 그러면서 이쪽에 강의를 좀 들어보고 해야 더 자세히 알 것 같아요

문근식 :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듣는 옥구 농민 항쟁 항쟁하는 거 사실상 얼마나 펍박 속에서 거의 1000이라고 하면 70%는 가져가고 30%에서 거기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걸 하면서도 항쟁한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쟁하면서 많이 얻어맞기도 하고 또 거기에 좀 더 억압받는 것이 있는데 그 표출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문근식 : 또 어떻게 보면은 알게 모르게 막 그 죽은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상 우리는 이제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무명에 가까운 거 정말 훌륭한 일을 했어도

문성숙 : 그렇죠

문근식 : 저기 남아 있지 않고 그냥 그냥 모르고 돌아가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는 그게 잊혀져 가니까 잊혀진다는 건 뭘예요.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아버님의 이런 기회가 되신다면 더 이렇게 추모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한 번 계획적으로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가

문성숙 : 예 11월5일 인가 그걸 해요. 옥구농민항일항쟁 추모회를 11월 5일인가 임시 중학교 교정에서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문화원에서 아마 하시는 것 같은 문화원에서 하는지 제가 저도 정확하게 근데 이거를 독립적으로 이쪽으로 가져와서 진행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근식 : 아버님이

문성숙 :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문화원하고의 아니면 거기를 했던 그 단체하고의 또 뭘 문제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저는 사실 잘 제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근데 제가 더 자세히 깊이 파서 아버지하고 많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근식 : 왜냐하면 그 문화원이라든가 가치 주체를 함으로 인हे가지고 다양한 이제 그 일부 소수 인원으로 해가지고 알리는 것보다는 어떤 대내적으로 홍보라든가 그런 홍보는 그곳이 아니라 진정으로 유가족들이라든가 그런 참여 또 소수에 있는그런 지역 의장 협의회장인가 이렇게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자꾸 좀 더 이렇게 좀 계획적이고 그렇게 한다면

문성숙 :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그 광복회 지회장이 군산 지회장 하실 때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태극기 그리는 그런 것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제가 태극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게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태극기 그리라고 하면은 잘 못 그리는 대한민국 국민도 많아요. 저도 막 헛갈리거든요. 이 3 4 5 6 이 과 그리는 게 근데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거 추모회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 거

문근식 : 아이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같이 있으면 태극기를 그리는 거 정확하게 그림을 할지도 모르는데 아이들이 그걸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잊혀져가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라는

문성숙 :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나 이런 건 있지만 진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는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좀 제가 들어서 저도 녹음을 한다든지 기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는 들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근식 : 그러시고 제가 한 가지 여쭙보고 싶은 게 혹시 아버님 말고 사업을 하시면서 그것 좀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역사에 대해서 아버님 말고 다른 사람을

문성숙 :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아버지한테 여쭙보고 알려드릴게요 근데 거의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시고 왜냐하면 아버지는 관심이 있고 들은 얘기가 있으시고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지만 그 후손들은 사실상 관심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제가 한번 여쭙보고 유족 명단이 있을 텐데 그 유족 명단 수첩 못 보셨어요.

신대호 : 그때 책으로 받긴 했었는데

문성숙 : 제가 한번 안 물어보셨어요. 그럼 그때 유족 또 누구 있는지

문근식 : 그거 한번 제가 여쭙보기는 했는데요. 다 돌아가셨다고요 그리고 한 분이 있는데 그 누구지 두 분이 있는데 이제 귀도 드시고 나이가 90이 넘어서 인터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문성숙 :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처음에 이 일을 시작을 하셔서 이게 지금 이렇게 온 거거든요. 이 일이 지금 너무 늦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문근식 : 이제 늦었다기보다는 그래도 이번 저희들을 통해가지고 새롭게 더 조명되는 것이죠.

문성숙 :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문근식 : 이번 기회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저도 한번 하시면 같이 동참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성숙 : 도움이 많이 되셨으려나 저도 감사하죠.

참고자료

문헌명, 1920년대 한국의 소작제와 서수소작쟁의의 특징 (나 종 우 전, 원광대 교수), 김양규, 우리 고장의 항일운동사 옥구농민의 한일투쟁사 매일신보 1914년 11월 29일자, 03월 12일자

2. 군산의 근대 전 · 후 교육기관

개요

조사자	강정숙 · 이지현	
조사 동기 · 목적	• 근대 이전에 세워졌다 사라진 서원과 서당 및 근현대시기에 세워졌다 사라진 학교와 새로 만들어진 학교에 대한 관심 • 조사방법은 문헌조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남아있는 서원과 서당 및 사라진 교육기관과 현존하는 학교 등에 대해 조사함. • 조사한 내용으로 두 가지의 학교지도를 만들 • 군산지역의 근 · 현재 교육 역사연구의 기초 자료 및 교육기관 탐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이 목적임	
활동 개요	컨설팅 받기	• 센터에서 방향성 체크를 위한 컨설팅 • 전문위원과의 방문 상담 • 전문위원과 전화 상담
	현장 방문	• 일시 : 6월 4일, 10일, 11일, 25일, 7월 14일, 7월 16일, 18일 • 활동 : 옥구읍, 문창초등학교, 신관동, 염의서원, 봉암서원터
	인터뷰 활동	• 일시 : 6월 8일, 7월 1일, 6일, 14일, 16일 • 대상 : 조시탁(65세), 박동수(70세), 서순임(74세)
	문헌자료 조사	• 일시 : 5월 2일 ~ 6월 28일 • 조사 문헌 사이트 : 지역N 문화, 디지털군산문화대전 향토백과, 국토지리정보원, 규장각 한국학 연구소
	보고서 작성 및 워크샵 자료만들기	• 일시 : 6월 6일 ~ 7월 21일 • 보고서 10회 분 발송, • 워크샵 중간발표, 최종 발표 위한 ppt 발송
	워크샵에서 발표	• 중간 발표 (6월 16일) • 최종 발표 (7월 28일)

근대 전시대 서원과 서당

봉암서원(鳳巖書院)

1664년 창건. 김집을 배향하였고, 1666년 김구를 함께 배향하였다. 1695년(숙종 21)에 ‘봉암’이라고 사액을 받았으나, 1868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 미원리 서원부락 봉암산 서편 기슭에 자리한 王在熙씨 집

뒷터를 봉암서원 터라고 보고 있다. 산이름이 鳳巖山이고, 마을 이름 또한 書院부락이며, 현재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이 곳에 주춧돌이 있다든지 기왓장이 간혹 출토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염의서원(廉義書院)

1685년에 창건하여 1804년(순조 4)에 사액을 받았다. 1868년 흥선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1920년 재건립하였다. 현재 염의서원은 한림사와 유허비각, 어필각의 제향 공간과 경부당, 원직사, 전사재의 강학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허비각에는 1915년에 세워진 문충공 고경과 문영공 고용현의 유허비가 있고, 어필각에는 1908년 순종 황제가 내린 친필의 어필이 안치되어 있다. 제향 공간은 한림사를 중심으로 좌우에 유허비각과 어필각이 자리잡고 있다. 강학 공간은 경부당, 원직사, 전사재 등이 안마당을 둘러싸고 있다, 해동지도에는 옥구향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염의 서원은 없음. 아마도 해동지도 제작시기보다 염의서원이 늦게 건립되어서 그런 듯 하다. 또한 1872년 옥구현 지도에 향교는 있지만 염의 서원 표시는 없다.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문인 듯하다.



봉암서원터



염의서원 정문



화봉재



치동서원

옥구읍 화봉재와 치동서원

군산에서 유일하게 이름과 집이 남아 있는 서당 2개 중 하나이다. 서당 이야기와 현재 모습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 하였다. 건물 입구에 들어 서기 전 서순임씨를 만나 안내를 받았다. 남편은 2019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한다. 1898년에 세운 곳이라 한옥에 근대 건축 양식이 가미되어 보였다. 처마와 문 사이에 빈 공간에 유리가 끼워져 있어 특이하다.

INTERVIEW

인터뷰 1

조사일	2022.07.16	조사장소	옥구읍 화봉재
성함	서순임	나이(년도)	74(1949년)
직업	주부	성별	여
주소/고향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서울		
거주기간	8년	거주시점	2014년

Q.서울이 고향이신데, 군산에 내려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돌아가신 남편 (전호성 1946년~2019년)의 고향이 여기 옥구 오곡리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때 서울로 유학 가서 60년 만에 고향에서 내려 올 때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살아계실 때 도난 당한 것이 많아요. 집을 비우면 그 때 많이 없어졌어요. 안그랬으면 보물이 많이 남아 있었을 텐데. 아마도 여길 아는 사람들이 가져 간 것 같아요.

Q.내려와 군산에서 삶은 어떠셨나요?

교통이 편한 서울 살다가 군산으로 오니 많이 불편했어요. 시내로 나가기 위해 버스를 반나절을 기다리기도 하고(버스 시간을 몰라), 남편이랑 시간이 맞으면 같이 나가기도(자가용) 하고요. 버스 배차 간격이 점점 줄어, 지금은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나이 들어 운전을 시작하니 너무 힘들어요. 유지비도 많이 들고요. 시골은 식구 수대로 차가 필요해요.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어요.

Q.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딸 하나 있습니다. 서울서 크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딸도 나중에 나이 들면 여기 내려와 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은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요. 나이 들면 생각도 바뀔 수 있으니...

Q.화봉재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살아생전 남편은 굉장히 똑똑하셨어요. 사람들을 데리고 문화 해설을 다녔어요. 그럼 같이 간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딱딱하게 해설하는게 아니라 재미있게 말을 했거든요. 화봉재도 관리를 엄청 하셨어요. 외부에서 단체로 관람하러 오면 안내 해주고요. 훈장님방 학생방 2칸의 방을 지금은 터서 1칸으로 되어 있어요. 2~3달에 1번 전주 돌봄에서 봉사 와서 마당에 풀이 제거하고 외부만 청소 해주고 가고, 군산시에서 지붕과 담장 보수를 해주었어요. 주변 나무 전지 작업은 내가 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Q.추모제는 아시나요?

거기는 잘 몰라요. 같은 담양 전씨지만 집안이 달라요. 도로 따라 조금만 가면 대문 없는 집이 나와요. 거기 가서 물어

보세요. 우리집과는 달라요. 거기는 완전 한옥이에요.

Q.군산에 계속 사시나요?

여기서 계속 살거예요. 혼자 살기 때문에 외부인이 오면 무서워요. 동네서도 누가 기사 쓴다고 왔는데 기사 쓰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초복이라 경로당 가야해요. 가서 도와 줘야죠. 아침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도중에 손님을 만난 거예요. 궁금한 것 있으면 인터넷 보세요. 앞에 안내판도 보고요. 난 잘 몰라요.

서당이 있어서 붙여졌던 마을 이름

군산의 지명유래(2009 신관동 P111~112)를 보면 서당골이라고 있다. 고향이 작선마을(신관동 새싹유치원 일대)인 조소현 선생님(사단법인 아리울 어린이 군산학 강사)의 안내로 서당골(신촌남길 59-33일대)이라 불리던 곳을 다녀 왔다. 지명유래에 나온 구렁너머는 21번 도로로 없어지고(일제강점기에 산을 끊었다고 함), 작선마을에서 동아시로 마실을 많이 다녔다고 한다. 동네에서 오가다 ‘어디가?’ 하면 ‘구렁너머 가’ 혹은 ‘서당골 가’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고 한다. 안내자는 작고하신 아버님께 서당골에 서당이 있었다고 자주 들었다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주의 깊게 듣지 않고 흘러 버려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 구렁너머 : 광재동에서 작선으로 가는 고개
- 동아시 : 관여산 동쪽을 이루고 있는 마을
- 서당골 : 작선 남쪽에 있는 골짜기. 서당이 있었음.
- 작선(鵲仙) [신촌新村]: 신관관수문(옥구저수지 북쪽에 있는 물문) 남동쪽에 있는 마을. 뒷산이 까치 형국이라 함



신관동 서당이 있었던 마을 신관동 마을 입구 옥구향교 공덕비

옥구향교

군산지역의 대표적인 조선 시대 교육 기관으로서 전라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옥구향교 대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향 공간과 명륜당 등의 강학 공간으로 구성된 향교 건축의 격식을 잘 갖추었다. 또한 최치원을 배향한 문창서원과 옥산서원, 세종대왕 숭모비, 단군묘, 전라북도 문화재자료인 자천대 등이 인접하여 하나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인터뷰 2

조사일	2022.07.01	조사장소	옥구읍 커피숍
성함	조시택 , 조ㅇㅇ	나이(년도)	65세(1958년), 74세(1950년)
직업		성별	남
주소/고향	군산시 회현면/군산		
거주기간	65년	거주시점	1958년

군산의 서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조시택 선생님을 옥구향교 홍살문 앞에서 만나서 근처 커피숍으로 가서 인터뷰를 하였다. 커피숍으로 가기전, 향교 앞 공적비들 중에 김육 공적비(康熙癸亥三月)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Q.서당에 대해 아시나요?

나는 오성산 아래 남전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서당은 다니지 않았어요. 나 보다 연배가 있는 분들이 다니셨죠. 성산면 수심마을 조씨 재각 앞에 서당이 있었어요. 서당서 천자문 사자소학 등을 배우죠. 백범일지 보면 서당에 대해 잘 나와 있어요. 그 당시 서당은 돈 있는 사람들이 글방을 만들어 글 선생님을 모셔와 공부를 했어요. 나보다 윗 연배고 국민학교를 안다니 분들이 다니셨어요. 다니신 분들도 다니지만요. 아마도 58년 개띠들이 서당보고 자란 마지막 세대일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낙영당에 다니셨어요. 연재 송병선 선생이 강학을 하셨던 곳이에요. 송병선 선생의 묘가 임피에 있잖아요. 우암 송시열의 5대손이죠. 성산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가족이 모두 회현으로 이사를 갔어요. 논 값이 성산보다 회현이 저렴 했나봐요. 간척지라 그랬나. 그래서 회현 국민 학교로 전학을 갔죠. 그 당시 오봉 국민학교는 3학년까지 다니고 회현 국민 학교로 다들 왔어요. 성산에서 회현으로 이사 갈 때 허허벌판을 갯바람을 맞으며 근심 가득 가지고 가던 기억이 나요. 가서 어찌 살 수 있을까? 성산은 아늑하고 좋은데 회현은 그런 느낌이 안들었나봐요. 지금은 옥구 향교 근처에 살죠. (조시택, 58년생)

Q.옥구 향교 의미?

저는 옥구 향교 유생입니다. 서당보다 향교에 대해 더 잘 압니다. 서당은 개인이 세우는 것이라 생겼다 없어지죠. 반면 향교는 나라에서 세웠기에 지금까지 많이 남아 있죠. 옥구 향교는 상평초 자리에 지금의 자리로 이전(1646년) 했어요. 옥구 향교는 옥구 읍성안에 있죠. 향교 앞에 객사가 있었고, 상평초 자리가 동헌이고요. 객사자리에는 기와가 많이 출토 됩니다. 1895년 향교가 교육의 기능을 상실했지요. 제향의 기능만 남고요. 1895년 2월 2일 고종의 교육입국조서에 의해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가 만들어지죠. 옥구향공립소학교도 그 때 세워져요. 바로 옥구 향교 양사재에서 시작했어요. 1906년 보통학교령 공포로 통감부가 대한제국 황제 명으로 설립한 소학교를 폐쇄하지요.

군산에는 공립 군산 보통학교(4년제)가 설립됩니다. 지금의 군산 중앙 초등학교죠. 옥구 향교는 전교와 장의 그리고 유도회(공부 중심 유생 조직) 조직되어 있어요. 회칙에 의해 전교 임기가 정해지고요. 대성전의 신위는 북쪽을 보고 있어요. 전학후묘 높은 곳에 대성전(공자님을 모시고) 아래에 명륜당이 있어요. 동무 서무는 없어요. 대성전에 모시는 분들은 정치가 중요하지 않고 공자 사상에 뚜렷한 업적을 가진 분만 모십니다. 현재 옥구 향교에서 석전제는 생고기를 올립니다. 생떼라고. 공자를 살아 있는 듯이 모십니다. 1년에 2번 기신일 탄강일. 초하루 보름에 분향례를 유생들이 올립니다. 기신일과 탄강일은 관행(추위 더위 따라)대로 지킵니다. 김창숙 성균관 유림총회에서 27현으로 정리하여 대성전에는 27분만 모십니다. 옥구 향교 출신중 소과 급제자는 18인이고 대과 급제자는 6인입니다. 참고로 임피 향교는 소과 20인 대과 7인입니다. 임피는 현령, 옥구는 현감을 파견됩니다. 채만식의 소설 태평천하를 보면 윤작원이 나와요. 이 인물이 향교 전교라 할 수 있죠. 서원이 생기기 전에 향교 규율은 매우 엄격했어요. 서원이 생기면서 유생 수도 줄고 규율도 헤이

해진 것 같아요. 옥구 향교에는 옥산서원과 문창서원이 있어요. 옥산서원은 두릉 두씨에서 세운 서원이고 문창서원은 최치원 배향한 서원이죠. 군산 유림들이 남의 나라 공자도 모시는데 우리 시조도 모시자고 단군 성묘를 향교 안에 1976년 건립도 했어요. 그때 시장도 기부했어요.(조시택, 58년생)

Q.근대 교육 기관의 역사?

학교 변천사는 아주 복잡해요. 인터넷에서 찾아서 공부해 보세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지 알게 됩니다. 야학은 교육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의 저항 정신입니다. 팔마재에 있었던 일신야학교 그런 맥락에서 세워진 학교지요. 있었던 위치는 정확히 몰라요. 추정만 할 뿐이지. 지금의 팔마산이 상당 부분 없어진 상태거든요. 옥구선 건설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의 송경교(아른아홉다리)까지 팔마산이 이어졌거든요. 양영학원(창성주공아파트) 3년제로 시작해서 4년제로 바뀌었고, 일신야학교는 김용진 선생님이 만드신 무산교육기관입니다. 마을 주민이 세운 김용진 선생님 기념비는 당시 사진을 보면 군산선 아래 평지에 있었는데 지금은 옥구선 근처 팔마산에 기념비가 옮겨져 있어요. 일제 강점기 시절 심상고등소학교는 6년제 보통학교는 4년제 2년제가 있었고요. 중학교는 5년제였죠. 전킨 선교사가 세운 영명학교는 대한제국 정부 정책(고종의 교육입국조서)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되었어요. 체육부장, 덕육부장, 지육부장이 있었거든요.(조○○, 74세)

인터뷰 3

조사일	2022.07.01	조사장소	옥구읍 커피숍
성함	박동수	나이(년도)	70(1953년)
직업		성별	남
주소/고향	군산시 개정면/김제		
거주기간	60년	거주시점	1963년

Q.서당에 대해 아시나요?

나는 김제 백산면에서 태어났어요. 조부께서 김제 광활면(간척지, 집단 이주)으로 이사하시고, 광활 국민 학교 3학년을 마치고 군산 구암동으로 이사를 또 했어요. 김제 광활면은 감자가 유명해요. 먹어봤나요? 군산에서는 먹기 힘들어요. 다 서울로 계약재배해서 갑니다. 군산 중앙 국민 학교(4학년)를 다녔어요. 58회 졸업생입니다. 전교생이 880명 정도 되는 큰 학교였지요. 구암동에 서당이 있었어요. 나는 다니지 않았지요. 서당은 요즘 학원으로 생각하면 돼요. 간판 없는 학원. 학교 입학하기전에 다니기도하고, 입학하고도 다니고요. 영세하기 때문에 오래 못갔죠. 그리고 다들 학교를 다니는 것이 일반화 되기도 하고요.

Q.군산에서 학교 생활은?

군산 중앙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시험을 봤어요. 군산 중학교를 시험 봤는데 떨어져서 군산 북 중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는 군산 고등학교를 갔지요 군산고는 우열반이 있었어요. 그 당시 군중하고 남중이 1순위고 북중은 2순위에 시험봐서 1순위에서 떨어지면 2순위 학교를 가야했어요. 참고로 1순위 학교는 군산중, 남중, 군산고, 군산여고였어요. 나머지 학교들은 무시 하던 시절이죠. 북중(현대오솔자리) 다닐 때 비나 눈이 오면 연탄재를 들고 학교에 갔어요. 길이 뽕밭이라 눈 비로 젖으면 난리가 나거든. 군산 북 중학교가 지금은 군산 중앙 중고등학교가 되지요. 군산 북 중학교를 광동학원에서 세웠는데 군산 중앙 여자 고등학교 군장대학도 만들지요.



박동수(70세) 씨 인터뷰

Q.청구여상?

해망동에 있는 청구목재에서 청구여자중학교를 야간으로 만들었어요. 회사에서는 공원을 관리하기 좋고 공원들은 배워서 좋고. 나중에는 이름이 청구여상으로 바뀌지요. 교사는 지금은 없어진 공회당이지요. 그 자리에 해신동사무소가 들어 서있어요. 경암여상도 같은 맥락에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한국합판에서 부설했구요. 지금의 이마트 자리가 한국합판 자리였어요.

Q.교직 생활은 어떠셨나요?

1985년 쯤 발산 국민학교 선생님 시절에 조회대를 만든다고 삽으로 땅을 팠어요. 30cm 정도 파니 콘크리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레인 공사를 해서 조회대를 만들었어요. 공사비를 엄청 나왔죠. 박정희 이후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애항단 이라고 있어요. 학교 갈 때 무리지어서 학교 가는 모임이라 할 수 있죠. 그 때는 다들 그렇게 다녔어요. 개야도 국민학교 교직 시절에는 여객선이 하루 2번 있어서, 걸어서 40분, 배 타고 1시간 이상 타고 군산에 도착했어요. 개야도 선생님 중 1명은 일요일 아침배로 개야도에 들어 가야 했어요. 풍랑으로 배가 못 뜨면 선생님이 없으면 수업을 못하니 1분이라도 있어야 했거든요. 순번제로 했지요. 나머지 선생님들은 월요일 아침 배로 들어 갔지요. 섬에 있으면 물 들어오면 낚시를 하고 빠지면 해삼 소리 전복을 주우러 갔어요. 내가 제일 젊어서 체육 담당을 했어요. 운동회 같은 것이 있으면 내가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했어요. 그래서 녹화를 해서 고학년들 교육 시켜서 저학년들 가르키게 했지요. 화장실은 풍당풍당~. 발전기로 전기 공급하고 숙직실에만 TV가 있었어요. 회현 국민학교하고 오봉 국민학교는 서로 화합을 못합니다. 임피 국민학교와 술산 국민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회현과 임피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오봉과 술산은 그것을 인정 못하고, 서로 약간 미묘한 감정 싸움 있었어요. 전두환 시절 학교 이름을 한글화했어요. 그래서 멜본딘이 영광이란 이름으로 교명을 변경했지요. 광주의 수피아 학교는 광주라 씨알도 안먹히고요.

문창초등학교

불이흥업주식회사는 이곳에 1920년부터 3년에 걸쳐 간척 사업을 했는데, 옥구 저수지를 중심으로 간척지를 구분하여 남쪽은 한국인들이 소작을 짓는 옥구 농장으로, 북쪽은 불이농촌이라 하여 일본인 이주자가 살았다. 이때 생긴 학교가 불이공립심상소학교(현 문창초)이다. 문창초등학교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일제강점기 직원록 자료를 보면 1925년 불이공립심상소학교(옥구군 미면) 이름이 처음 나온다. 광복 후 문창초등학교로 개교를 한다. 거의 100년이 넘는 학교다.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라 3대 이상이 이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의 동의를 얻어 조사를 했고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박동수(70세) 씨 인터뷰

- 문창초등학교 3학년 1반 15명
 - 문하운 : 할아버지 할머니
 - 이시온 : 할머니
 - 변지민 : 엄마, 아빠, 이모
 - 최민진 :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이모, 이모부
 - 홍 찬 :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이모, 외숙모
- 문창초등학교 4학년 1반 12명
 - 박은빈 & 박지빈(쌍둥이 형제) :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1952년까지의 군산의 학교

1899	옥구항공립소학교(옥구항교 양사재)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일제강점기 직원록 대한제국일제강점기대한민국 직원록 전라북도 지방관서 공립학교 자료	
	노란색 : 새로 생긴학교 주황색 : 학교명 변경	
1908	공립군산보통학교	
1910	군산보통학교(갑)	군산실업학교(2년제)
1911	군산공립보통학교	군산공립농업학교
1912	군산공립농업학교	임피공립보통학교
		군산공립보통학교
1913	군산공립농업학교	임피공립보통학교
	군산공립심상고등소학교	군산공립보통학교
1914	군산공립농업학교	군산공립심상고등소학교
	군산공립보통학교	임피공립보통학교
	옥구공립보통학교	어청도공립심상소학교
1915~16	군산공립농업학교(부설 간이수산학교→)	군산공립간이수산학교(16 때보선창 교사 이전)
	군산공립심상고등소학교	어청도공립심상소학교
	옥구공립심상소학교	군산공립보통학교
	옥구공립보통학교	임피공립보통학교
1917	군산공립농업학교	군산공립간이수산학교
	군산공립실과고등여학교	군산공립심상고등소학교
	어청도공립심상소학교	옥구공립심상소학교
	군산공립보통학교	옥구공립보통학교
	임피공립보통학교	
1918	군산공립농업학교	군산공립간이수산학교
	군산공립실과고등여학교	군산공립심상고등소학교
	어청도공립심상소학교	옥구공립심상소학교
	군산공립보통학교	옥구공립보통학교
	임피공립보통학교	임피공립간이농업학교

1919	군산공립농업학교	군산공립간이수산학교
	군산공립간이상업전수학교	
	군산공립실과고등여학교	군산공립심상고등소학교
	어청도공립심상소학교	옥구공립심상소학교
	군산공립보통학교	옥구공립보통학교
	임피공립보통학교	임피공립간이농업학교
1920~21	군산공립농업학교(3년제)	군산공립간이수산학교
	군산공립간이상업전수학교	
	군산공립실과고등여학교	군산공립심상고등소학교
	어청도공립심상소학교	옥구공립심상소학교
	서수공립심상소학교	지경공립심상소학교
	군산공립보통학교	옥구공립보통학교
	임피공립보통학교	임피공립간이농업학교
1922	군산공립농업학교	군산공립간이수산학교
	군산공립간이상업전수학교	군산공립고등여학교
	군산공립심상고등소학교	어청도공립심상소학교
	옥구공립심상소학교(마지막)	서수공립심상고등소학교
	지경공립심상소학교	군산공립보통학교
	임피공립보통학교	옥구공립보통학교
	신풍공립보통학교	대야공립보통학교
1923	군산공립농업학교(정읍이전)	군산공립수산학교(2년제)
	군산공립상업보습학교	군산공립고등여학교
	군산공립심상고등소학교	어청도공립심상소학교
	서수공립심상고등소학교	지경공립심상소학교
	군산공립보통학교	옥구공립보통학교
	임피공립보통학교	신풍공립보통학교
	대야공립보통학교	
1924	군산공립중학교(미면 704)	군산공립고등여학교(금정 318)
	군산공립수산학교	군산공립상업보습학교
	군산공립심상고등소학교	옥구공립심상소학교
	어청도공립심상소학교	서수공립심상고등소학교
	지경공립심상소학교	군산공립보통학교
	옥구공립보통학교	임피공립보통학교
	신풍공립보통학교	대야공립보통학교
	성산공립보통학교	
1925	군산공립중학교(미면 신흥리 104)	군산공립고등여학교
	군산공립수산학교	군산공립상업보습학교
	군산공립심상고등소학교	옥구공립심상소학교
	어청도공립심상소학교	서수공립심상고등소학교
	지경공립심상소학교	불이공립심상소학교
	군산공립보통학교	옥구공립보통학교
	임피공립보통학교	신풍공립보통학교
	대야공립보통학교	성산공립보통학교
	개정공립보통학교	

1926~28	군산중학교	군산고등여학교(군산부 신흥동 318)
	군산수산학교	군산상업보습학교
	군산심상고등소학교	옥구심상소학교
	어청도심상소학교	서수심상고등소학교
	지경심상소학교	불이심상소학교
	군산보통학교	옥구보통학교
	임피보통학교	신평보통학교
	대야보통학교	성산보통학교
	개정보통학교	어청도보통학교
1929	군산중학교(미면 신평리)	군산고등여학교(군산부 신흥동)
	군산심상고등소학교(명치정 258)	군산상업보습학교(명치정 258)
	어청도심상소학교(미면 어청도리)	옥구심상소학교(옥구군 구읍면 상평리)
	지경심상소학교(대야면 지경리)	서수심상고등소학교(서수면 서수리)
	불이심상소학교(미면 산북리)	군산제1보통학교(군산부 장재동 130)
	군산제2보통학교(미면 둔율리)	옥구보통학교(구읍면 상평리)
	임피보통학교(임피면 읍내리)	신평보통학교(미면 신평리)
	대야보통학교(대야면 산월리)	성산보통학교(성산면 고봉리)
	개정보통학교(개정면 아동리)	어청도보통학교(미면 어청도리)
1930	옥산보통학교(옥산면 옥산리)	
	군산중학교	군산고등여학교
	군산심상고등소학교	군산상업보습학교
	어청도심상소학교	옥구심상소학교
	지경심상소학교	서수심상고등소학교
	불이심상고등소학교	군산제1보통학교
	군산제2보통학교	옥구보통학교
	임피보통학교	신평보통학교
	대야보통학교	성산보통학교
1931	개정보통학교	어청도보통학교
	옥산보통학교	
	군산중학교	군산고등여학교
	군산심상고등소학교	군산상업보습학교
	어청도심상소학교	옥구심상소학교
	지경심상소학교	서수심상고등소학교
	불이심상고등소학교	군산제1보통학교
	군산제2보통학교	옥구보통학교
	임피보통학교	신평보통학교
1932~33	대야보통학교	성산보통학교
	개정보통학교	어청도보통학교
	옥산보통학교	
	군산중학교	군산고등여학교
	군산심상고등소학교	군산상업보습학교
	어청도심상소학교	옥구심상소학교
	지경심상소학교	서수심상고등소학교
	불이심상고등소학교	군산제1보통학교(33년 군산부 장재동)
	군산제2보통학교(33년 군산부 둔율정)	옥구보통학교

1932~33	임피보통학교	신평보통학교
	대야보통학교	성산보통학교
	개정보통학교	어청도보통학교
	옥산보통학교	
1934	군산중학교	군산고등여학교
	군산심상고등소학교	군산상업보습학교
	어청도심상소학교	옥구심상소학교
	지경심상소학교	서수심상고등소학교
	불이심상고등소학교	
	군산보통학교(군산부 소화통 130)	옥구보통학교
	임피보통학교	신평보통학교
	대야보통학교	대야보통학교부설광교간이학교
	성산보통학교	성산보통학교부설대명간이학교
1935	개정보통학교	어청도보통학교
	옥산보통학교	서수보통학교(서수면 마룡리)
	군산중학교	군산고등여학교
	군산심상고등소학교	군산상업보습학교
	어청도심상소학교	옥구심상소학교
	지경심상소학교	서수심상고등소학교
	불이심상고등소학교	
	군산보통학교	옥구보통학교
	임피보통학교	신평보통학교
1936	대야보통학교	대야보통학교부설광교간이학교
	성산보통학교	성산보통학교부설대명간이학교
	개정보통학교	어청도보통학교
	옥산보통학교	서수보통학교
	나포보통학교(나포면 옥곤리)	회현보통학교(회현면 대정리)
	군산중학교	군산고등여학교
	군산심상고등소학교	군산상업보습학교
	어청도심상소학교	옥구심상소학교
	지경심상소학교	서수심상고등소학교
1937	불이심상고등소학교	
	군산보통학교(군산부 소화통 130)	옥구보통학교
	임피보통학교	신평보통학교(장자도간이)
	대야보통학교	대야보통학교부설광교간이학교
	성산보통학교	성산보통학교부설대명간이학교
	개정보통학교	어청도보통학교
	옥산보통학교	서수보통학교(서수간이)
	나포보통학교	회현보통학교
	군산중학교	군산고등여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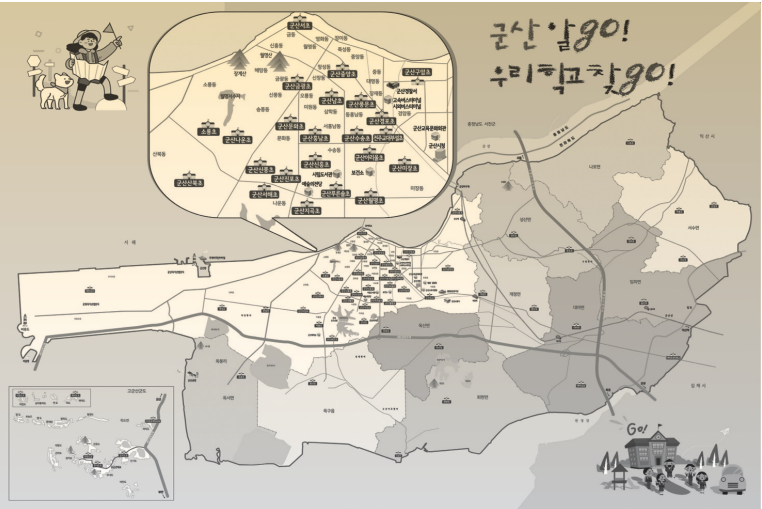
1937	군산중학교	군산고등여학교
	군산심상고등소학교	군산상업보습학교
	옥구농업실수(實修)학교(미면 마룡리)	옥구심상소학교
	서수심상고등소학교	지경심상소학교
	불이심상고등소학교	옥구보통학교
	임피보통학교	대야보통학교
	신풍보통학교	성산보통학교
	개정보통학교	어청도보통학교
	옥산보통학교	서수보통학교
	나포보통학교	회현보통학교
1938	술산보통학교(임피면)	군산보통학교
	군산중학교	군산고등여학교
	군산심상고등소학교	군산상업보습학교
	옥구농업실습학교	군산소화심상소학교
	서수심상고등소학교	불이심상고등소학교
	어청도심상소학교	임피심상소학교
	옥구제1심상소학교	옥구심상소학교
	지경심상소학교	대야심상소학교
	신풍심상소학교	성산심상소학교
	개정심상소학교	어청도제1심상소학교
1939	옥산심상소학교	서수제1심상소학교
	나포심상소학교	회현심상소학교
	술산심상소학교	
	군산중학교	군산고등여학교
	군산심상고등소학교	군산상업보습학교
	옥구농민학교	불이척신농민학교
	군산소화심상소학교	어청도심상소학교
	군산팔마심상소학교(미면)	임피심상소학교
	옥구제1심상소학교	옥구심상소학교
	서수심상고등소학교	지경심상소학교
1940	신풍심상소학교	성산심상소학교
	대야심상소학교	개정심상소학교
	불이심상고등소학교	어청도제1심상소학교
	옥산심상소학교	서수제1심상소학교
	나포심상소학교	회현심상소학교
	술산심상소학교	미룡심상소학교(미면)
	옥봉심상소학교(옥봉면)	창오심상소학교(창오면)
	군산중학교	군산고등여학교
	군산심상고등소학교	군산상업보습학교
	옥구농사학교	불이척신농사학교

	대야심상소학교	개정심상소학교
	불이심상고등소학교	어청도제1심상소학교
	옥산심상소학교	서수제1심상소학교
	나포심상소학교	회현심상소학교
	술산심상소학교	미룡심상소학교
	옥봉심상소학교	창오심상소학교
	군산중학교	군산고등여학교
1941	군산상업학교(군산부 1147)	군산상업보습학교
	옥구농사학교	불이척신농사학교
	군산국민학교	군산소화국민학교
	군산팔마국민학교	옥구국민학교
	어청도국민학교	서수국민학교
	지경국민학교	불이국민학교
	선제국민학교(서수면)	임피국민학교
	대야국민학교	신풍국민학교
	성산국민학교	개정국민학교
	어청도국민학교	옥산국민학교
	마룡국민학교(서수면)	나포국민학교
	회현국민학교	술산국민학교
	미룡국민학교	옥봉국민학교
1942	창오국민학교	금암국민학교(서수면)
	군산공립중학교	군산고등여학교
1943	군산상업학교	
	군산중학교	군산고등여학교
1952	군산상업고등학교	군산남중학교
	군산고등학교	군산중학교
	군산여자고등학교	군산여자중학교
	임피중학교	
	군산중앙국민학교	군산국민학교
	군산구명국민학교	군산조촌국민학교
	옥구국민학교	임피국민학교
	대야국민학교	신풍국민학교
	성산국민학교	개정국민학교
	옥산국민학교	마룡국민학교
	병현국민학교	나포국민학교
	술산국민학교	창오국민학교
	옥봉국민학교	미룡국민학교
	금암국민학교	광산국민학교
	문창국민학교	발산국민학교
	당북국민학교	서수국민학교
	상평국민학교	용화국민학교
	개야국민학교	오식도국민학교
	신시도국민학교	어청도국민학교
	선유도국민학교	비응도국민학교
	고군산국민학교	

근대기 군산의 학교 위치



현재 군산의 학교



참고도서
김원용 외 공저(2020) 「군산 100년을 보다」,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김종수(2021), 국학자료원
구희진 외 공저(2019), 「군산학의 지형」, 군산대학교인문도시센터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국사데이터베이스 일제강점기 직원록(<https://db.history.go.kr/>)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mn/mainPage.do>)

3. 군산의 옛 놀이

개요

조사자	김순자 · 고금자	
조사 동기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이는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한다. 군산에서 행해지던 옛놀이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 방법들을 알아봄• 조사 방법은 연세 드신 어른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통해서 놀이의 경험을 알아봄.• 조사를 통해 군산에서 어린이들 사이에서 행해지던 놀이의 종류에 대한 의미를 찾고 그림으로 그려놓는다.	
활동 개요	컨설팅 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에서 방향성 체크를 위한 컨설팅• 전문위원과의 방문 상담• 전문위원과 전화 상담
	인터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5월 02일, 12일, 25일, 28일• 활동 : 마을 주민 인터뷰
	문헌자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5월 2일 ~ 6월 28일• 조사 문헌 : 〈빼앗긴 정서 빼앗긴 문화〉,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보고서 작성 및 워크샵 자료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6월 6일 ~ 7월 21일• 보고서 5회 분 발송,• 워크샵 중간발표, 최종 발표 위한 ppt 발송
	워크샵에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 발표 (6월 16일)• 최종 발표 (7월 28일)

조사 활동

INTERVIEW

인터뷰 1

- 일시 : 일시 : 2022년 5월 2일
- 대상 : 정순예(90세), 신금봉(93), 김막내(91세), 고춘순(71세)
- 장소 : 군산시 개정면 송호리 2길 8-1
- 조사내용 : 고무줄 놀이, 실뜨기, 공기돌 놀이

넓은 거실에서 형님 이웃 어르신들이 만나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문화추적단이 들어가니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옛 추억을 떠올리며 고무줄 놀이를 했을 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흘러가라 우리는 전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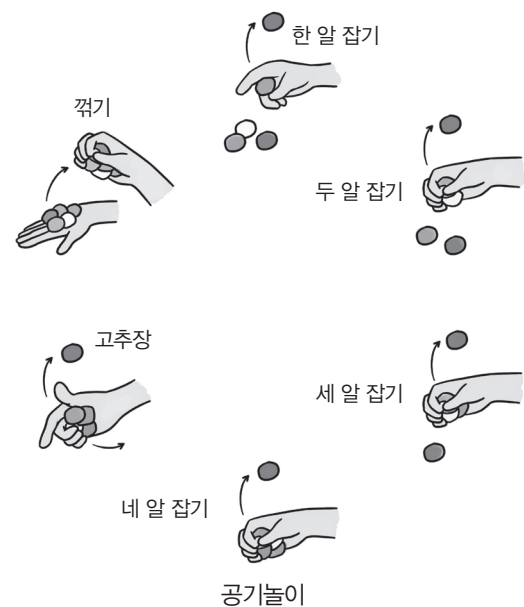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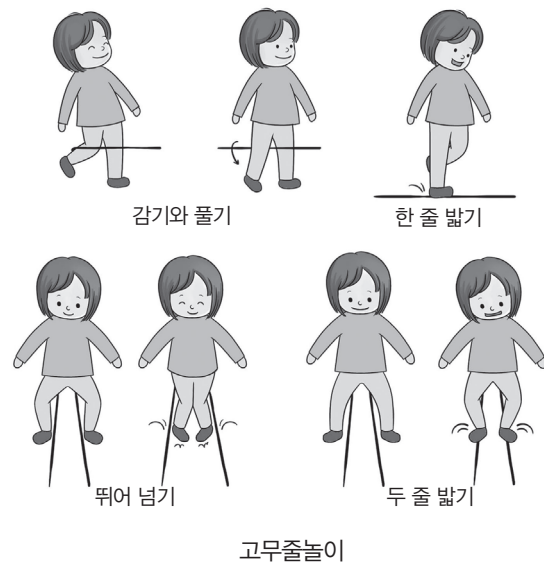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 간 전우야 잘 자라'를 흥얼거리며 박수를 치기도 하고 기념사진도 정답게 찍었다.



인터뷰 장면

고무줄 놀이

양쪽에서 고무줄 잡고 S 자로도 놀고 높이를 조절해가면서 논다. 처음에는 발목 높이에서 시작해서 땅에서 차차 높이를 높혀가며 종아리, 무릎, 허벅지, 허리, 배, 가슴, 어깨, 목, 머리위 한뼘 등으로 고무줄에 걸려 못 넘으면 100으로 점수를 정한다. 동요 노래에 맞춰 고무줄을 밟고 넘어보는 고무줄놀이 보통 두 명만 있어도 할 수 있지만, 주로 네명이상이 두 편으로 나누어서 한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



공기놀이

이 놀이는 혼자서도 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하거나 편을 나누어서 할 수 있다. 편을 가른 다음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한 다음에 목표 점수를 정한다. 놀이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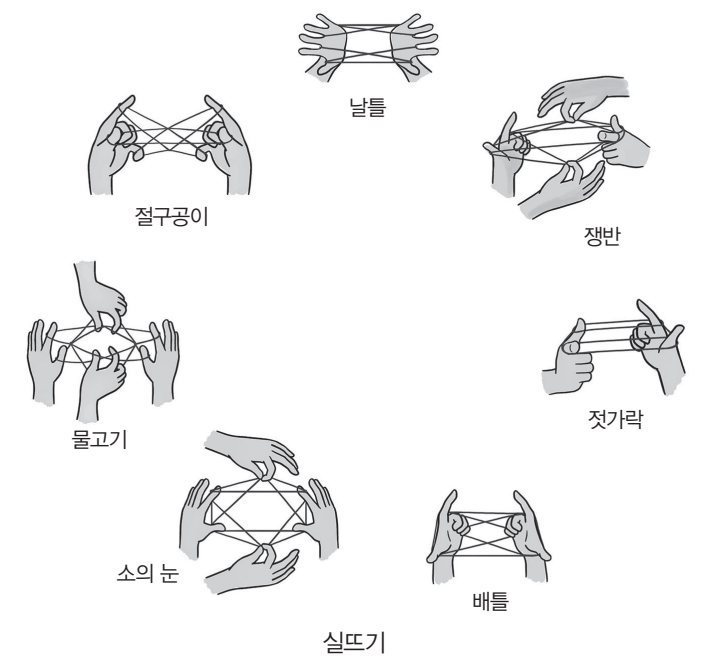
- 한 알 집기 : 다섯 알을 바닥에 던져 흩어 둔 뒤에 한 알씩 집어 공중에 던진 뒤에 나머지 네 알을 차례대로 한 알씩 집어 손바닥 안에 받아서 쥔다. 다섯 알을 다 쥐면 두 알 집기로 넘어간다.

- 두 알 집기 : 한 알을 공중에 던지고 바닥의 공깃돌을 두 알씩 집어 손에 쥔다.
- 세 알 집기 : 한 알을 공중에 던지고 바닥의 공깃돌 세 알을 집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바닥에 남은 한 알을 손에 쥔다.
- 네 알 집기 : 공깃돌 다섯 알을 모두 손에 쥐고 한 알을 공중에 던진다. 이 돌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네 알을 바닥에 놓고, 빠르게 손 안에 쥔다.
- 꺾기 : 한 알 집기에서 네 알 집기까지가 끝나면 손바닥에 공깃돌 다섯 알을 모두 얹고, 공기를 위로 살짝 던진 다음 재빨리 떨어지는 공깃돌을 손등에 올린다. 손등에 얹힌 공기 돌을 그대로 위로 띄운 다음 공중에서 손 안으로 낚아챈다. 이때 손바닥 안에 잡힌 공깃돌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승부를 겨룬다. 이를 '나이먹기'라고도 한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

실뜨기

실뜨기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여럿이 모여서도 할 수 있는 놀이다. 혼자서는 사다리·민들레 씨앗 등을 만들고, 여럿이 할 때는 실 테를 두 손에 한 번 감아 걸고, 다시 두 손의 약손가락으로 감은 실을 걸어 뜬 뒤 상대방에게 넘기는 '날틀', 날틀 양쪽의 가위처럼 벌어진 부분을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걸어쥐고, 아래 줄 밖으로 둘러서 위쪽 가운데로 올려 뜨는 '쟁반', 쟁반 가운데의 줄이 교차 된 두 각을 걸어 쥐고, 바깥 줄을 밖으로 빼었다가 위쪽 가운데로 올려 뜨는 '젓가락' 등 다양한 모양을 만들면 다음 사람이 이어받아 새로운 형태를 만들고 다시 차례를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형태가 흐트러지거나 실이 풀어지면 놀이에서 지게 된다. 정해진 모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형을 해 가며 노는 것으로, 솜씨 좋은 이들은 창의적인 형태를 만들어 상대가 이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실뜨기는 뇌 신경을 자극하고 운동시켜 두뇌 발달을 촉진 시킨다. 더불어 한 단계 한 단계를 해내면서 얻게 되는 성취감도 실뜨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이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



인터뷰 2

- 일시 : 2022년 5월 12일
- 장소 : 군산시 남내로 117-6, 군산시 사정동 내사2길 13
- 대상 : 문정식(75세), 고재득(88세)
- 조사내용 : 제기차기, 자치기, 비석치기

군산시 남내로 문정식 이장님댁을 옥산 동네지기님 소개로 처음 뵈게 되었다. 유년시절 전래놀이를 했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재연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전통과 체험이 살아있는 옥산 한옥마을을 탐방하였다.



인터뷰 장면



문종구씨 집안 결혼식 사진



남내리 문종구씨 댁

제기차기

오늘날 제기차기는 축국이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공 대신 제기로 바뀐 형태이다. 제기는 구멍이 뚫린 엽전을 얇은 미농지로 싸고 종이의 두 끝을 한 구멍의 같은 방향으로 꿰어서 그 끝을 갈래갈래 찢어서 만든다. 형겅에 흙이나 마른 말뚝을 싸서 잡아매고 꿩의 콩지깃을 꽂아 만들기도 한다. 오늘날은 비닐로 된 상품을 많이 쓴다.



제기를 차는 방법에는 발들고차기, 양발차기, 외발차기, 뒷발차기가 있다. 제기는 한 사람씩 차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마주 차기도 한다. 서울에서는 한 번 차고 땅을 딛고 또 차고 땅을 딛는 제기차기를 땅강아지, 두 발을 번갈아가며 차는 것을 어지자지, 땅을 딛지 않고 계속 차는 것을 혈령이라고 한다. 전남 고흥지방에서는 땅강아지를 땅지기, 어지자지를 양방지기, 혈령이를 들지기라고 한다. 이 밖에 한번 차서 제기를 입에 물었다가 다시 차고, 다시 차고 입에 무는

‘물지기’, 키클 넘게 올려 차는 ‘키지기’, 차서 머리 위에 얹었다가 떨어뜨려 다시 차는 ‘언지기’도 있다. 싹뜨기는 뇌신경을 자극하고 운동시켜 두뇌 발달을 촉진 시킨다. 더불어 한 단계 한 단계를 해내면서 얻게 되는 성취감도 싹뜨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이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

앞의 여러 방법 중에 어느 한 가지만을 미리 정해 차기도 하고, 삼세가지라고 하여 위의 세 가지를 모두 차서 합계를 내어 승부를 짓기도 한다. 잘 차는 사람은 한 가지만으로 몇 백까지 차는데, 차올린 제기를 머리 위나 어깨로 받아서 한참씩 다리를 쉬거나 발 안쪽과 바깥 쪽은 물론이고 발등과 발뒤축 또는 무릎으로 차는 재주를 부리기도 한다. 진 쪽에서는 종들이기라는 벌칙을 받는다. 종들이기는 진 사람이 상대의 서너 걸음 앞에서 제기를 발 앞뒤리에 던지면, 이긴 사람은 이것을 앞으로 멀리 차낸다. 진 쪽이 그것을 잡지 못하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제기를 드려야 했다. 이긴 쪽에서는 찬 제기를 잡히거나 헛발질을 하면 죽는데, 이때 진 쪽은 종의 입장에서 벗어나게 된다.

차는 쪽에서는 죽지 않으면 혼자서 몇 번이고 차다가 주위에 서 있던 자기편에게 넘기기도 한다. 진 쪽에서는 이것을 받아 찬 사람에게까지 종들이기를 한다. 그러므로 종이 된 사람은 상대방이 제기를 차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몸을 손으로 쳐야 했다. 제기를 받은 사람은 종이 된 사람이 차기 전에 제기를 차야 했다. 만일 차기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편끼리 제기를 손으로 주고받으며 기회를 본다. 제기를 서로 주고받는 과정은 서울에서는 ‘왔따리 갔따리’라고 한다. 종이 된 술래는 제기를 잡든지 아니면 제기를 잡고 있는 상대방을 몸을 쳐 만져야 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종들이는 사람은 가능한 제기를 던지는 헛시늉을 하거나 일부러 다른 데로 던져서 상대의 헛발질을 유도한다.

또 세 사람 이상이 칠 때에는 갑이 을에게 차 넘긴 것을 다시 병이 받아 차면서 순서대로 다음 사람에게 넘기기도 하며, 여러 사람이 둥글게 둘러서서 순서 없이 아무나 차기도 한다. 이때에는 헛발질을 한 사람이 종을 들이게 된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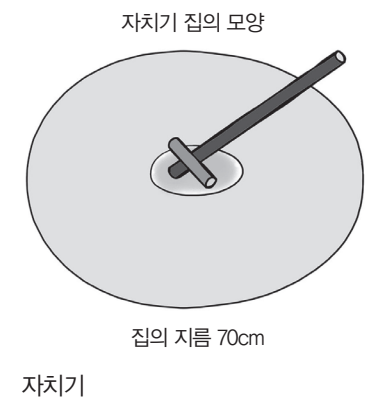
자치기

- 원 자치기: 원을 그려 놓고 하는데 구멍 자치기와 달리 단계 없이 새끼자를 쳐서 멀리 보내 거리를 재는 것이 주된 활동이다. 놀이하기 전에 500자 또는 1,000자에 먼저 도달하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정하고 시작한다.
- 지름 1m 정도 되게 원을 그리고 원으로부터 3~4m 정도 거리에 던지는 선을 그린다.
- 가위바위보로 공격과 수비를 정한다.

〈필요한 도구〉

작은 만대(새끼자, 알)
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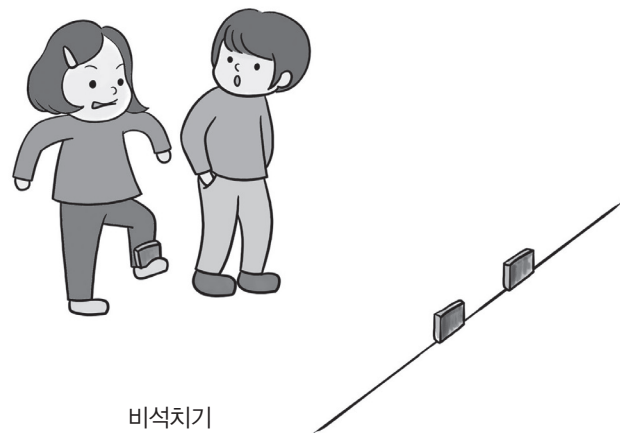
큰 만대(어미자, 차)
50cm



- 수비자는 던지는 선에서 새끼자를 원 안으로 던지는데 공격자는 던지는 자를 칠 수 있다. 따라서 수비자는 공격자가 치지 못하게 하면서 원 안에 넣는다. 새끼자가 원 안에 들어가면 한 번, 금에 닿으면 두 번, 원 밖으로 나가면 세 번 칠 수 있다.
- 치는 횟수가 정해지면 공격자는 어미자로 새끼자를 쳐 올려 떠 있는 상태에서 세계 쳐서 멀리 보낸다. 이때 여기저기 포진해 있던 수비가 새끼자를 잡으면, 죽고 잡지 못하면 새끼자가 멈춘 곳에 가서 처음 정해진 횟수대로 위와 같이 한다.
- 만약 어미자로 새끼자를 치는데 헛 쳐서 땅바닥을 치거나 새끼자가 위로 올라왔는데 헛 치면 그것도 한 번 친 것으로 간주한다.
- 정해진 횟수가 끝나면 원으로부터 새끼자까지 거리를 어미자로 잰다. 친 사람이 30자를 불렀는데 30자가 더 될 것 같으면 '먹어라.' 하고 재지 않고 30자를 주고, 만약 안 될 것 같으면 '재라.'라고 한다. 이때 30자가 넘으면 30자의 두 배인 60자를 먹게 되고, 30자가 안 되고 25자가 되면 0자가 되고 죽게 된다. 따라서 너무 많이 부르지 않고 알맞게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 자로 잰 경우 새끼자로 재는 경우도 있는데 위로 튀어 오른 새끼자를 어미자로 한 번은 자기 자리에서 위로 치고 두 번째 떨어지는 새끼자를 쳐서 멀리 보낸 경우이다.
- 점수를 얻었으면 그 사람이 탈락할 때까지 계속한다. 만약 한 편이 네 명이면 네 명이 차례로 위와 같이 해서 먼저 정한 점수를 내는 편이 이긴다. (한국민속예술사전 : 민속놀이)

비석치기

7~15세에 이르는 아이들이 어른 손바닥만한 직사각형 돌인 비석을 던지며 노는 놀이로 비석까기, 비석차기, 비사치기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 놀이는 일정한 자리에 선을 그은 뒤 선 위에 상대방의 비석을 세워놓고 일정 거리에서 자기의 비석을 던져 상대방의 비석을 맞춰 쓰러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겨룬다.



비석치기

참가인원은 8~12명 정도이다. 놀이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4~5m 폭으로 길게 두 줄을 긋는다. ② 두 편으로 나누고 각자 손바닥만한 말(비석)을 준비한다. ③ 각 편 대장은 가위, 바위, 보로 공격을 결정한다. ④ 진 편은 건너편 선 위에 각자의 말을 세워놓고 이긴 편이 차례로 말로 비석을 맞힌다. ⑤ 맞히면 계속 던지고 못 맞힌 사람은 실격한다. ⑥ 세워진 돌이 한 개라도 남아 있고, 던질 사람이 없으면 던지던 편은 수비를 맡는다. 그리고 앞서 던지던 편이 다음 차례에는 실격하였던 단계부터 시작한다. ⑦ 단계가 점점 올라가서 장님까지 먼저 통과한 편이 이긴다.

놀이단계는 ① 던지기 : 선 채로 그냥 던지기, 한 발 뛰어 던지기, 두 발 뛰어 던지기, 세 발 뛰어 던지기 ② 세 발 뛰어 차기 : 망을 던져놓고 세 발 뛰 다음 네 발째 차서 쓰러뜨림 ③ 발등 : 망을 발등 위에 올려놓고 가서 쓰러뜨림 ④ 발목 : 망을 발목 사이에 끼워놓고 짱충짱충 뛰어가 쓰러뜨림 ⑤ 무릎 : 망을 무릎 사이에 끼우고 걸어가 쓰러뜨림 ⑥ 가랑이 : 망을 가랑이에 끼우고 걸어가 쓰러뜨림 ⑦ 배 : 망을 배 위에 올려놓고 걸어가서 쓰러뜨림 ⑧ 손등 : 손등 위에 망을 올려놓고 뛰어가 쓰러뜨림 ⑨ 신문팔이 : 망을 겨드랑이에 끼우고 가서 쓰러뜨림 ⑩ 어깨 : 어깨 위에 망을 올려놓고 가서 쓰러뜨림 ⑪ 목 : 어깨와 목 사이에 망을 끼우고 가서 쓰러뜨림 ⑫ 머리 : 머리 위에 망을 올리고 가서 쓰러뜨림 ⑬ 장님 : 돌을 던져놓고 눈을 감고 걸어가서 망을 찾아 눈을 감은 채로 던져 쓰러뜨림 등이며 상황에 따라서 단계를 줄일 수 있다. 돌을 이용한 놀이 중에서 가장 발달된 놀이이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행하여져 왔다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인터뷰 3

- 일시 : 2022년 5월 25일
- 장소 : 군산시 경암동
- 대상 : 김광남(80세)
- 조사내용 : 강통차기, 팽이돌리기

낡은 리어카에 폐신문지와 빈 상자, 공병을 모아서 1일 용돈으로 고물상에 매매, 주변 상가 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2만 원가량 용돈이 된다면서 상가 주변에서 박스 상자를 모으고 계셔서 대화를 시도해 보았는데 성실하게 응대해 주시고 사진도 찍자고 제안하니 문화추적단과 추억도 남겨주셨다. 5년 전에는 과일 행상으로 생계를 하셨다며 연세가 있지만, 근면 성실한 모습이었으며, 피부결도 좋고 인상도 남다르게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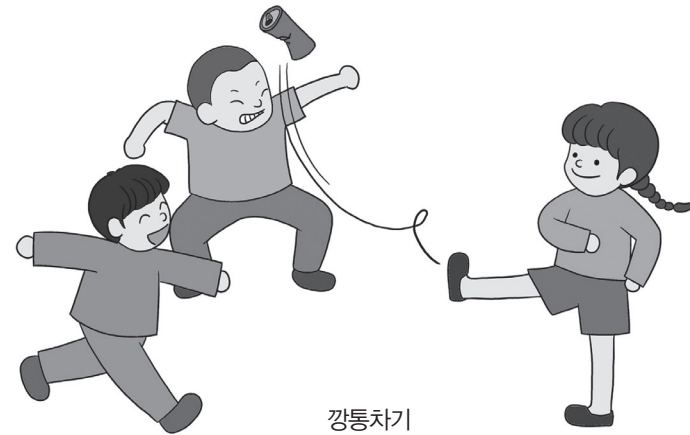
인터뷰 장면

강통차기

차기라고도 하며 주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자 아이들이 마당이나 공터에서 찌그러뜨린 빈 강통을 발로 차며 노는 놀이이다. 강통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근대 이후에 생긴 놀이이다.

참가인원은 5~10명 정도이다. 놀이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땅바닥에 지름 30cm 정도의 원을 그려놓고 그 가운데에 강통을 놓는다. ②

가위, 바위, 보를 해서 꼴찌를 한 사람이 술래를 맡는다. 술래는 강통 옆에 서고 다른 사람들은 술래 주변을 둘러선다. ④ 발 힘이 좋은 사람이 강통을 연속하여 세 번 차서 멀리 날려보낸다.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달아나 숨는다. ⑤ 술래는 재빨리 강통을 주워서 제자리에 갖다놓고 사람들을 찾는다. ⑥ 술래가 사람을 찾으면 "아무개 팡" 하고 이름을 부르며 강통을 찌르면 된다. 발견된 사람이 먼저 뛰어와서 "팡"이라고 외치며 강통을 찌르면 술래를 면한다. ⑦ 술래가 숨은 사람들을 모두 찾으면 처음에 발견된 사람이 술래가 된다. 술래에게 들킨 사람들끼리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술래를 정하기도 한다. 술래가 사람들을 찾는 동안 숨어 있던 사람이 몰래 뛰어나와서 강통을 찌르면 그때까지 실격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살아난다. 술래가 사람들을 찾기 어려운 경우 "못 찾겠다. 피꼬리" 하고 외치면 그 사람들은 술래를 면한다.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강통차기

팽이치기

팽이치기의 놀이 방법은 다양하지만 주로 중심축을 통해 동체가 회전운동을 하도록 한다. 혼자서 하거나 여럿이 하지만 여럿이 노는 경우에는 팽이가 넘어지지 않고 오래 도는 내기를 많이 한다. 팽이를 누가 더 오래 돌리는지 겨루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놀이 방법이다. 놀이 장소는 주로 마당이나 골목이며, 얼음 팽이치기의 경우 공간은 따로 없고 겨울의 강가, 연못, 논바닥의 얼음판에서 한다.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팽이를 잘 돌리려면 팽이채를 적절하게 쳐주어야 한다. 팽이를 손으로 돌린 다음 팽이채로 쳐서 계속 돌아가게 한다. 멀리 던져 돌리기는 팽이끈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지런히 감은 다음 바닥에 힘차게 던지는 놀이이다. 이 외에도 목표지점을 설정해놓고 팽이 허리를 쳐서 빨리 돌아오기, 돌고 있는 팽이를 맞부딪쳐서 상대방의 팽이를 쓰러뜨리는 싸움놀이, 아래위에 심이 박힌 팽이를 팽이줄로 감아 머리위로 또는 팔을 옆으로 비켜



팽이치기

심으로 돌아가는 팽이를 잘 돌리려면 팽이채를 적절하게 쳐주어야 한다. 팽이를 손으로 돌린 다음 팽이채로 쳐서 계속 돌아가게 한다. 멀리 던져 돌리기는 팽이끈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지런히 감은 다음 바닥에 힘차게 던지는 놀이이다. 이 외에도 목표지점을 설정해놓고 팽이 허리를 쳐서 빨리 돌아오기, 돌고 있는 팽이를 맞부딪쳐서 상대방의 팽이를 쓰러뜨리는 싸움놀이, 아래위에 심이 박힌 팽이를 팽이줄로 감아 머리위로 또는 팔을 옆으로 비켜

서 마치 야구공을 던지듯이 팽이를 던져 돌려 서로 맞부딪치게 하는 팽이찍기가 있다. 이때 팽이가 먼저 쓰러지면 지게 된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인터뷰 4

- 일시 : 2022년 5월 28일
- 장소 : 군산시 중앙로 군산노인복지회관 2층
- 대상 : 최규상(86세)
- 조사내용 : 문지기놀이, 말타기

군산 노인복지회관으로 문화추적단이 출동하여 찾아갔는데, 어르신께서 TV를 보고 계셨고, 매일 군산노인복지회관으로 출근하신다고 했다. 삼삼오오 바둑과 장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말동무를 우리가 해드리니 좋아하시는 표정이었으며, 즐겁게 인터뷰에 응대해 주셨고, 사진도 가까이 함께 추억으로 남겨주셨으며, 우리에게 칭찬도 해주시는 멋진 어르신이었다.



인터뷰 장면

문지기 놀이

두 어린이가 양팔을 뻗쳐 서로 잡아 문같이 만들고 그 밑을 어린이들이 꿰어가는 놀이. 문지기놀이는 지역에 따라 문열어라 놀이, 대문열기, 대문놀이, 남대문놀이라고도 한다. 먼저 두 사람이 마주 서서 팔을 벌려 문을 만든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일렬로 서서 앞사람의 허리를 두 팔로 껴안고 구부린 채 "문지기, 문지기, 문열어주소"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문 밑을 꿰어간다. 이때 문지기가 된 두 사람은 "열쇠없어 못열겠네"라고 대답한다. 아이들 전원이 꿰어 가면 그 다음 사람이 문지기가 되어 놀이가 계속된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문지기 놀이

놀이 방법은 크게 말이 움직이는 형태의 마부놀이와 고정된 형태의 말타기가 있다. 마부놀이는 가위바위보로 마부와 말을 정한다. 보통 맨 끝까지 진 사람이 말이 되고, 그 전 사람이 마부가 된다. 마부는 말을 오른쪽 옆구리에 머리를 대고 오른손으로 말의 눈을 가려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 이는 말을 타려고 달려오는 것을 보고 차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놀이가 시작되면 말은 탈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계속 뒷발질을 한다. 이때 채이면 그 사람이 말이 되고 말을 했던 사람은 마부가 된다. 말이 움직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재빨리 말 등에 올라탄다. 한 명이 탈 수도 있고 겹쳐 탈 수도 있는데 만약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다시 말이 되어 계속해야 한다. 말에 올라타면 말은 몸을 이리저리 틀어서 탄 사람을 떨어뜨리려 하고 말 탄 사람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말을 꼭 잡고 있다.

말타기 놀이

말 타기놀이'라 부르기도 한다. 여자보다는 남자아이들이 많이 했으나 1990년대 여고생들도 간혹 했다. 그러나 주로 남아나 남자 청소년들이 많이 한 놀이다. 옛날에는 말이 최상의 교통수단이었다. 특히 아이들은 타고 싶지만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런 욕구가 놀이로 구현된 놀이로 아주 오래전부터 행해진 놀이이다. 한 소년이 등을 구부리고 다른 두 소년이 각각 양쪽에서 서로의 한쪽 손을 잡은 다음, 네 번째 소년이 등에 올라탄다. 말타기는 두 편을 나누어 공격과 수비를 정한다. 수비 편은 벽이나 나무에 기대어 서고 나머지 사람은 허리를 굽혀 머리를 가랑이 사이에 넣고 두 손으로 허벅지를 잡고 선다. 나머지 사람도 마찬가지로 앞 사람의 다리 사이에 머리를 끼고 다리를 잡고 길게 말을 만든다. 이긴 편은 멀리서부터 달려오는 힘을 이용해 두 손으로 등을 잡고 올라탄다. 이때 깊숙이 타지 않으면 뒷사람이 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먼저 탄 사람은 되도록 앞 쪽으로 타야 한다. 말을 타다가 중간에 떨어지거나 발이 땅에 닿으면 공격과 수비가 교체된다. 반대로 수비하는 말이 힘이 없어 중간에 무너지면 다시 말을 만들게 하여 계속 공격한다. 다 탈 때까지 무너지지 않으면 맨 앞사람끼리 가위바위보를 한다. 이기는 편이 공격의 역할을 하여 놀이가 계속된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



말타기 놀이

4. 옥구 들노래

개요

조사자	이영애 · 조소현	
조사 동기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구 들노래는 조상들의 삶과 예술, 그리고 협동의 의미를 찾아 듣고 전수해야 하는 문화유산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함.• 1974년 문화공보부장관상까지 수상했던 옥구 들노래가 전수자인 고판덕옹이 돌아가시고 부르기를 멈추게 됨.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아시는 생존하고 계시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기에 탐동 들노래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탐동의 어르신들과 들노래를 불러보며, 그들의 의지를 북돋움• 탐동 들노래를 이어가기 위해 전라북도 내 타 지역에서 불러지는 들노래의 선진지 견학을 감.• 시간여행 축제 참여를 위한 제안서 쓰기	
활동 개요	컨설팅 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에서 방향성 체크를 위한 컨설팅• 전문위원과의 방문 상담• 전문위원과 전화 상담
	현장 방문과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5월 12일, 7월 11일• 활동 : 탐동 어르신 대상 인터뷰, 탐동 노인정에서 옥구 들노래 부르기
	선진지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5월 20일, 6월 12일, 7월 10일,• 활동 : 민속예술진흥회 고창군 모정마당참여 순창 금과들 소리잔치 참여, 김제 징개맹개 외에밋들문화재 준비단계 참여
	문헌자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5월 2일 ~ 6월 28일• 조사 문헌 사이트 : 지역N 문화, 디지털군산문화대전 향토백과
	보고서 작성 및 워크샵 자료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6월 6일 ~ 7월 21일• 보고서 10회 분 발송.• 워크샵 중간발표, 최종 발표 위한 ppt 발송
	워크샵에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 발표 (6월 16일)• 최종 발표 (7월 28일)

참고자료
홍양자(1997), 『빼앗긴 정서 빼앗긴 문화』, 다림 출판사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민속예술사전 : 민속놀이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인터뷰

INTERVIEW

인터뷰 1

- 일시 : 2022년 5월 12일
- 장소 : 탑동마을 이장님 댁
- 대상 : 고성구(58세)

Q.이장님께서 언제부터 탑동마을에 사셨나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여그서 살았죠.

Q.탑동 들노래에 대해 알고계시는게 있으시면 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집앞 모퉁에서 어른들이 연습하는 것을 맨날 봤죠. 노래를 어떻게 부르더라 이~~ 하문서 불렀는데.

Q.마을 어른들중에 함께 옥구 들노래를 부르신 분들을 알고 계신가요?

없어, 작년까지 한분이 살아계셨는데 11월엔가 돌아가시고 이제 노래 부르는 분이 한분도 안계시지.

Q.옥구 들노래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들이 마을에 꼭 있으실거라고 믿어요. 잘떠올려 보시고 소개 부탁 할게요.

부녀회장님이 장구치고 대회에 나갔던거 같은디. 그때 장구를 잘쳐서 술산초등학교에 장구 가르치러 다니기도 했어.

Q.고판덕 어르신에 대해 알고 계신게 있으시면 좀 들려주세요?

그 어르신이 90살 넘게 오래사셨지. 소리도 좋아가지고 방송국에서 찍으러도 오고 그랬어. 그분이 무덤에서 해골물 먹고 오래살았던 소리가 있어. 소리를 엄청 잘했어.



고성구 이장집



고성구 이장과 인터뷰

옥구 들노래에 대한 조사활동을 위해 마을 이장님께 인사를 하는 것이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여 고성구 이장님을 만났다. 이장님의 회고는 다음과 같다.

- 팔각정(모정) 앞에서 옥구 들노래를 연습을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 지금은 노래를 부르셨던 분들이 모두 돌아가셔서 마을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어르신들이 안계십니다.
- 부녀회장님이 90년대 대회에 나갈 때 장구를 친 것이 기억납니다.
- 탑동마을 사업을 통해 박물관이 만들어 졌습니다.
- 1974년 10월 20일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받은 상장이 탑동 박물관에 있습니다.
- 박물관 외부에 멀티스크린을 설치하여 유물들을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하고 싶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탑동마을 박물관에는 당시 대회에서 입었던 옷들과 사용되었던 물품들이 있습니다.

고성구 이장님을 통해 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탑동마을 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박물관 내부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다. 탑동마을에서 옥구 들노래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더 떠올려 보겠다는 이장님의 말에 한줄기 빛을 찾은 듯했으며 다음 방문에 어르신들을 찾아뵙기로 하였다. 어르신들의 기억의 조각은 옥구 들노래 재현 방향을 설정하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터뷰 2

- 일시 : 2022년 7월 11일
- 장소 : 탑동 마을 여자 경로당
- 대상 : 남영자(83세)
- 주소 : 탑동마을

옥구 들노래의 살아있는 기록을 찾고자 옥구 들노래의 근원지인 대야 탑동경로당을 방문하였다. 탑동에는 남자경로당과 여자 경로당이 2곳이 있으며 여자 경로당에서 남영자 경로회장님을 통해 옥구 들노래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장면

Q.어르신께서는 언제부터 탑동마을에 사셨나요?

23세 익산 팔봉에서 시집을 오셨으며 결혼해서 지금까지 탑동마을에 살고 계심

Q.탑동 들노래에 대해 알고계시는게 있으시면 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시 옥구 들노래에 참여하셨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아무도 없다. 당시에 대회 나간다고 연습들을 열심히 하는 걸 봤다. (음원을 들으며) 이 노래 부를 때 호미로 메는 거여 라며 호미로 논을 메는 행동을 보여주심.

Q.옥구 들노래에 대해 알고 계실만한 분들이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여자경로당의 회원수는 50명이 넘으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잘 나오지 않고 오후 3시나 되어야 나오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3시 이후에 오라고 하심.

Q.고판덕어르신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생전에 고판덕 어르신을 기억하시며 고판덕 어르신 자손들이 잘 되어서 군산에서 살고 있다고 하심.

인터뷰 3

- 일시 : 2022년 7월 10일
- 장소 : 김제 덕성정보고 강당
- 대상 : 박보현(60세)

Q.들노래 전수를 하시면서 가장 힘드신 점이 있다면 어떤점일까요?

전수를 동참하는 사람들을 모으기가 힘든 점을 가장 크게 손꼽을 수 있습니다. 노동요를 재현하는데 인원이 적어도 60~80명 정도는 필요한데 인원이 너무 부족하지요.

Q.문화재심사를 준비하시면서 있었던 일들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재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제는 민원이 제기되어 심사가 원할이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김만경 외애밋들노래 전수자라며 우리팀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거죠. 그런데 이게 우수운계 민원이 들어가면 진실을 파악하면 되는데 민원이 들어온거 자체가 문제로 보이나 보더라고요. 옥구 들노래도 이런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Q.들노래 전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연습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우리 김만경 외애밋들은 문화재심사를 2년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 전에 심사를 나오기로 하고 준비를 마쳤는데 코로나로 인해 심사일정이 취소가 되어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과의 단체모임이 불가능한 시기가 있어 연습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모일수가 없으니 연습도 할 수 없는 거지요.

Q.논에서 모심기재현을 하는데 논은 대표님 논이신가요?

그렇리가요. 다행히 우리보존회 회원님 중에 농사를 짓는 분이 있으셔서 논을 허락해주셨으니까 가능한거죠. 실제 논에서 모심기를 재현하려면 논의 일부를 사서 합니다.

현장 방문

현장방문 1차

- 일시 : 2022년 5월 20일
- 장소 : 고창읍 송암마을 모정



모정 문화재 장면

- 전북민속에술진흥회 연합회와 고창군민예술킨흥회 주관으로 고창송암마을에서 모정문화마당을 진행
- 모정문화마당에서는 고창지역 마을단위의 당산제 줄다리기의 무형문화재 가치를 발견하고, 각 마을 단위의 모정과 당산제 줄다리를 고창군 향토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 열림
- 천룡당산제의 무형문화제적 가치에 대하여 송화섭교수의 발표
- 고창 송암마을 천룡당산제 줄다리기 향토문화유산 지정방안에 대하여 김진 고창군청 문화재전문위원은 문화재 지정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문화재 지정이 어려움을 제기하여 자료를 명확하게 마련하도록 함
- 옥구 들노래의 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하여 종목조사의 지정지표에 대해 현실적인 파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지정지표에 맞도록 조사, 연구하여 옥구 들노래가 문화재 지정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보존과 전수활동에 더욱 힘써야 함
- 문화재등록으로의 기준은 문화재의 연혁, 특징, 학술, 고증자료에 따라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건축학적 가치등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해당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 신청이 권고된 문화유산, 도지정 문화재 지정을 위해 향토문화유산 지정이 필요한 유산을 말함
- 대상문화재 추천 및 접수는 신청전 시, 군과 협의, 관련 전문가 및 향토유산문화유산위원의 현지조사, 무형문화재로서 서류평가 및 실기능력 평가 병행

현장방문 2차

- 일시 : 2022년 6월 12일
- 장소 : 순창농요 금과 들소리 전수관

순창 농요 금과 들소리



- 6월 12일 순창 농요 금과 들소리 현장공연이 있어 선진지답사를 다녀왔다.
- 순창 농요 금과 들소리는 문화재지정을 받은 단체로 옥구 들노래가 나아갈 방향에 많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 옥구 들노래보존에 앞으로도 꾸준한 교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순창 농요 금과 들소리의 시작은 마을사람들이 모여 한바탕 노는 것으로 시작한다. 흥을 돋운 후 논으로 가서 모를 심는다. 선창자의 메김 후에 다함께 받는 노래를 부르며 논에서 모를 심는데 허리 숙여 모를 심는 힘들도 풍장을 치고 노래를 부르다보면 어느덧 논 한배미 모가 심어져 있다. 모를 심고 논에서 나와 농제를 지내고 마을 사람들에게 오늘은 축제가 된다. 마을사람모두가 풍장에 흥이 나고 흥은 절로 춤을 부른다. 춤도 추어본 사람이 추는것인지 손을 들고 어깨를 들썩이는 소소한 흥과는 차원이 다른 순창팀이다.
- 막걸리가 한잔 들어가니 흥이 더욱 오르는데 막걸리를 마시지 않아도 현장에 함께 하는 사람은 누구나 어깨며, 허리며, 엉덩이가 덜썩이고 박수가 절로 나온다. 풍장을 치는 사람도 추을 추는 사람도 축제의 마지막 대동놀이는 온몸의 기운이 빠질만큼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지만 끝난 후 더욱 기운이 남을 느낀다. 진정한 축제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생각으로 옥구 들노래가 마을에서 울리며 대동단결하는 모습을 빨리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 힘든 논일을, 혹은 함께하는 노동을 함께 노래를 부르며 흥이 나게 일을 하는 우리 선조들의 옛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대동단결이 저절로 되는 것이다. 순창 금과 들소리의 구성원은 금과마을 주민들이 함께 한다. 마을부녀회에서 함께 음식도 준비를 하는데 집안 잔치치루 듯 기쁘고 즐겁게 손님을 맞이 한다. 이장님, 청년회장님 등 함께 이야기를 나눈 분들 역시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장년층들이다. 들노래를 부르시는 평균연령층이 높은 편인 것은 전국의 노동요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해야할 과제인 것이다.

현장방문 3차

- 일시 : 2022년 7월 10일
- 장소 : 김제 덕성정보고 강당
- 활동 : 김만경 외에밋들 들노래 재현 행사 참여

덕성정보고 강당과 김제 들판



- 6월 12일 순창 농요 금과 들소리 현장공연이 있어 선진지답사를 다녀왔다.
- 순창 농요 금과 들소리는 문화재지정을 받은 단체로 옥구 들노래가 나아갈 방향에 많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 옥구 들노래보존에 앞으로도 꾸준한 교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순창 농요 금과 들소리의 시작은 마을사람들이 모여 한바탕 노는 것으로 시작한다. 흥을 돋운 후 논으로 가서 모를 심는다. 선창자의 메김 후에 다함께 받는 노래를 부르며 논에서 모를 심는데 허리 숙여 모를 심는 힘들도 풍장을 치고 노래를 부르다보면 어느덧 논 한배미 모가 심어져 있다. 모를 심고 논에서 나와 농제를 지내고 마을 사람들에게 오늘은 축제가 된다. 마을사람모두가 풍장에 흥이 나고 흥은 절로 춤을 부른다. 춤도 추어본 사람이 추는것인지 손을 들고 어깨를 들썩이는 소소한 흥과는 차원이 다른 순창팀이다.
- 막걸리가 한잔 들어가니 흥이 더욱 오르는데 막걸리를 마시지 않아도 현장에 함께 하는 사람은 누구나 어깨며, 허리며, 엉덩이가 덜썩이고 박수가 절로 나온다. 풍장을 치는 사람도 추을 추는 사람도 축제의 마지막 대동놀이는 온몸의 기운이 빠질만큼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지만 끝난 후 더욱 기운이 남을 느낀다. 진정한 축제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생각으로 옥구 들노래가 마을에서 울리며 대동단결하는 모습을 빨리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 힘든 논일을, 혹은 함께하는 노동을 함께 노래를 부르며 흥이 나게 일을 하는 우리 선조들의 옛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대동단결이 저절로 되는 것이다. 순창 금과 들소리의 구성원은 금과마을 주민들이 함께 한다. 마을부녀회에서 함께 음식도 준비를 하는데 집안 잔치치루 듯 기쁘고 즐겁게 손님을 맞이 한다. 이장님, 청년회장님 등 함께 이야기를 나눈 분들 역시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장년층들이다. 들노래를 부르시는 평균연령층이 높은 편인 것은 전국의 노동요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해야할 과제인 것이다.

문헌조사_옥구 들노래⁹⁾

정의

전라북도 옥구군(현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탑동마을에 전승돼온 농요.

구성 및 형식

옥구 들노래는 만경산타령, 오호타령, 자진산타령, 외양소리 등 일련의 논매는소리 로 구성되어 있다. 가창방식은 한 사람이 소리를 메기면 여러 사람이 후렴을 받는 방식이다.

내용

논매는 소리의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끝부분의 ‘외양소리’는 논 한 배미를 거의 다 매어갈 때 일꾼들이 둥글게 모여서 마무리하는 소리다.

만경산타령

(후렴)
나아하헤 헤헤이에헤에 오호온들 히에헤
헤헤헤이가 산아지로고나 아하아
바람 부네 바람이 부네
농촌 한가에 풍년 바람 부네 아하아
일락서산 해 떨어지고
월출동녘 달 솟아온다 아하아
산천초목 다 속잎 나고
이 논배미는 장잎이 날렸네 아하아

오호소리

(후렴) 에헤야하 허허야 나허언들 오호오야
가네 가네 나도나 가네
저 잡놈 따라 나도나 가네
저녁을 먹고오 오오 썩 나서보니
미친 놈 생객이 또 나는구나
근장산 꼭대기 실안개 들고
이 논배미서 지심을 매세

자진산타령

(후렴1) 에헤라뒤야 에헤헤에야 에야뒤여 산이로고나
(후렴2) 헤 에헤헤헤야 에야뒤여 산이로고나
에야라뒤야 에헤헤헤야
에야뒤여 산이로고나 (후렴1)
헤 에헤헤헤야
에야뒤여 산이로고나 (후렴2)
오라는 딜랑 밤이나 가고
동네 술집이 머실떨이 갈까 (후렴1)
가는 임 허리를 꼭 쥐여 안고
적여라 살려라 통사정현다 (후렴2)

외양소리

(후렴) 위야 허허
위야 허허
히야차 소리가 나거든
소코리장사 테 두리득기
망건장시 골 두리득기
괴기쟁이 그물 치득기
위야차! / 위야차!

현황

옥구 들노래는 일찍이 1974년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한 바 있고, 1984년에는 ‘뿌리깊은 나무 팔도소리’ 음반, 1993년에는 문화방송의 한국민요대전에 수록되어 널리 알려졌으나, 주요 소리꾼이었던 고판덕 어르신(1989년생)이 1992년에 작고한 뒤에는 거의 연행되지 않고 있다. 옥구 들노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평야지역인 만경평야를 배경으로 하여 생겨난 일련의 논매는 소리로서 음악적으로 매우 고형(古型)의 선율과 리듬을 간직한 농요로서 의의가 크다.

음원

〈뿌리깊은 나무 팔도소리〉_전라도 소리(22분 54초 ~ 29분 50초)
https://www.youtube.com/watch?v=s3EQCJKry2g&list=PLcwZxVREilJXnO9TM4uOR1Q6whP_wsQuN&index=9

참고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옥구 들노래)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옥구 들노래&ridx=0&tot=37](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옥구%20들노래&ridx=0&tot=37)

9)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옥구 들노래(沃溝—)),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옥구 들노래&ridx=0&tot=37](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옥구%20들노래&ridx=0&tot=37)

5. 70년 개인사를 통해 본 군산의 경제와 문화

개요

조사자	전진희 · 전정주	
조사 동기 · 목적	• 한 개인의 삶은 그 개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다. 그러므로 개인의 삶을 추적하다보면 지역의 굵직한 격변의 역사를 만날 수도 있음. • 개인의 삶을 인터뷰를 통해 개인이 함께 했던 교육기관, 직업 등을 확장 연계해서 확장 조사함.	
활동 개요	컨설팅 받기	• 센터에서 방향성 체크를 위한 컨설팅 • 전문위원과의 방문 상담 • 전문위원과 전화상담
	인터뷰 활동과 현장조사	• 일시 : 5월 5일, 10일, 14일, 20일, 24일, 6월 6일, 18일, 24일, 7월 23일, 24일 • 활동 : 인터뷰와 현장 방문
	문헌자료 조사	• 일시 : 5월 2일 ~ 6월 28일 • 조사 문헌 : 군산 지형, 새만금 공사도 및 활용계획
	보고서 작성 및 워크샵 자료만들기	• 일시 : 6월 6일 ~ 7월 21일 • 보고서 10회 분 발송 • 워크샵 중간발표, 최종 발표 ppt 발송
	워크샵에서 발표	• 중간 발표 (6월 16일) • 최종 발표 (7월 28일)

인터뷰

INTERVIEW

인터뷰 1

- 일시 : 2022년 5월 10일, 20일, 6월 24일
- 장소 : 사무실
- 이름 : 전경수(71세)
- 주소 : 군산시 청소년회관로 52, 305
- 거주기간 : 70년

Q.군산이 고향이신데, 부모님의 고향은 어디이고 어떤 분이셨나요?

저희 부모님의 고향은 지금의 성산 쪽이었고 미면으로 이사를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은 군산시로 편입이 되

어있지만 태어나고 자란 곳은 옥구 미면입니다. 옥구군의 미면은 지금의 소룡동 근방으로 왜정 때 매립(개관)된 땅으로 쌀미(米)를 사용하여 미면이라고 하였습니다. 지역명으로 사용된 쌀미(米)의 미면이지만, 갯벌을 매립한 땅이어서 수확할 때면 땅의 간기(소금기) 때문에 소출량이 좋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장면

Q.우리 부모님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희 어머니는 음식솜씨가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잔치가 있을 때면 늘 어머니를 불러 음식을 하여 일을 치렀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이장이었지만 한량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안에 큰 도움은 되지 못했지만 한춤(한국 전통 춤)을 잘 추시고, 풍류를 즐길 줄 아셨거든요. 그래서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 전날이면 근립(건립)을 하러 다니시고는 했습니다.

Q.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아들 넷에 딸 하나지만, 지금은 삼형제만 살아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장남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두 살 위의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당시 저희 동네는 교통도 불편했고, 의료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홍역 등에 걸리면 많이들 좋지 않은 결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Q.어린 여동생을 업어 키우셨다면 학교는 어떻게 하셨나요?

농번기에 그 시절에는 봄/가을로 약 1달 정도씩 농번기였는데, 그때는 모두가 다들 그런 환경이어서 학교에서도 등교하지 못해도 그때만큼은 결석처리 하지 않고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주었습니다.

Q.그 당시 친구들과 했던 놀이들은 무엇이 있었나요?

저는 어릴 때 놀게 많이 없어서 벚짚으로 새끼를 꼬고 그 끈 새끼를 돌돌 말아 공처럼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공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고, 콩 따먹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콩 따먹기는 구슬치기와 똑같은데, 구슬이 비쌌기 때문에 대신해서 콩으로 하는 놀이입니다. 또 그때는 콩서리, 닭서리 등 서리를 많이 하며 놀았으며, 닭서리를 해서 먹었던 기억 많이 나네요. 참 맛있었어요.

Q.어르신께서 다니신 학교들은 어떻게 되나요?

문창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왜정(일제시대)때부터 있던 학교입니다. 중학교는 북중을 나왔는데, 지금의 중앙중학교입니다. 그 후 고등학교는 중앙상고를 나왔습니다. 현재는 중앙고라고 하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구간은 중앙고, 야간은 중앙상고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대학을 가기가 어렵고, 상고는 졸업하면 은행 등에 취업이 용이해서 상고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Q.졸업 후에는 어떤 직업을 가지셨나요?

졸업 후에는 부산으로 군대를 다녀왔고, 그 후 미원을 다녔습니다. 당시 미원은 본사가 서울에 있고, 전주에는 지사가 군산에는 출장소가 있었는데, 저는 영업파트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의 대상그룹은 미원에서 분리되어 나온 회사입니다. 그러나 미원을 계속 다닌 것은 아니고 결혼 3개월 전에 그만 두고 곧이어 보다 작은 회사에 영업 과장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투잡으로 슈퍼마켓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영업 과장 일은 오래하지 않았고, 다시 미원 대리점 일을 했습니다. 미원 대리점은 업소용 대리점과 가게(일반)용 대리점이 있었는데, 다시 일을 할 때에 업소용 대리점에서

영업 일을 했습니다.

Q.결혼은 같은 회사 분과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현재 저의 처형되시는 분 소개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내도 군산 사람인데, 당시에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결혼으로 인해 다시 군산으로 내려왔습니다.

Q.그럼 슈퍼마켓은 어디에서 하셨나요?

제가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슈퍼를 냈는데, 그로 인해 시내로 분가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래 부모님과 살던 집은 시골이었기 때문입니다.

Q.당시의 시내는 어디였나요?

당시도 영동, 영화동, 현재의 이성당 사거리가 가장 변화가였습니다.

Q.그럼 슈퍼와 영업 투잡을 하시면서 자녀들을 다 기르신 건가요?

아니요. 그 일들을 하면서 자녀들이 태어나기는 모두 태어났지만 저는 슈퍼를 5년 정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낳기 때문입니다.

Q.'슈퍼가 부모 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저는 80년대 초반에 슈퍼를 하면서 미원 도매 영업도 같이 했습니다. 당시 저는 장사를 좀 크게 해서, 군산시의 거의 모든 술집과 음식점에 슈퍼에서 파는 술과 담배부터 미원의 물품까지 다 납품을 했습니다. 그때는 슈퍼가 많이 생기고, 부도도 많이 나던 시절이고, 가게 수표로 결제를 곧잘 했는데, 업주가 10만 원 짜리 가게 수표에 200만원도 끊었습니다.

Q.10만 원 짜리 가게 수표에 200만원을 끊으면 어떻게 거래가 처리 되는 건가요?

물건 200만 원 어치를 납품하고, 가게 수표에 200만원을 적어서 결제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가게 수표는 10만 원 짜리이기 때문에 200만 원을 적은 가게 수표는 은행에서도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 100% 상대가 갚아주겠거니 하는 신 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의 어음은 기재된 금액을 은행에서 지급해주지만 200만 원 적은 10만 원 짜리 가게 수표는 어음처럼 처리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많아서 많은 슈퍼가 생기고 부도도 많이 났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가정 형편도 어려워졌습니다.

Q.자녀들 키우며 가장 잊혀지지 않는 에피소드는 무엇입니까?

큰 딸이 돌이 되기 전까지 낮밤이 바뀌어서 밤이면 잠을 안 잤습니다. 때문에 아이를 재우기 위해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다니다가 새벽 4시가 되면 잤는데 그런 생활을 근 1년간 했습니다. 그렇게 재워놓고도 아침이면 8시 반까지 회사에 출근해야 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Q.슈퍼 부도 후에는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타지에 가서 몇 년 생활하다가 군산에 돌아와서는 시골에 다시 들어가 살며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새만금 공사 현장도 3년간 다녔습니다.

Q.새만금 공사 현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야미도 부근에서 장비 관리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새만금 공사는 밑에서 뿔을 파서 올리고, 바지선에 돌을 싣고 가서 돌을 붓는 식으로 해서 땅을 메웠습니다. 그러기 위해 바지선이 접안하여 다리를 내리면, 20톤 트럭에 돌을 가득 싣고 가서 중장비를 이용해 그 돌을 배에 실었는데 물때에 따라 그 배들이 어디에 접안을 하고 어디에 다리를 내려

야 하는지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본래는 도선사들이 하는 일이지만, 새만금 현장에서는 장비 관리라고 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당시 근무는 24시간 근무 후 하루 쉬고 또 하루 근무하는 식으로 일했는데, 밤이나 비오는 날에는 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Q.어르신께서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나는 아직 영업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 젊은 시절도 다시 간다면 영업왕을 해보고 싶습니다.

Q.그렇게 바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말을 좀 잘하고 좋아해서인지,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는 매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Q.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문화를 하나 다시 살린다면?

지금은 사라진 품앗이 문화를 다시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사는 문화로 사회가 정감 있게 돌아갔으면 합니다. 여담으로 한 1975년도 쯤 정도 됐을 때에, 지금은 벼농사 지을 때 다 이앙기라는 기계로 모를 심지만, 예전에 사람이 기계적으로 모를 움직여 모를 심었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군산 최초로 이앙기로 모를 심어서 20일 일하고 48만원을 벌었습니다. 그제 들어오기 전에는 한 10명이 조를 짜서, 남자들 2명이 줄잡이를 하고 여자들 8명이 한 줄이 돼서 집집마다 그 조가 돌아다니며 모를 심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듯이 아파도 줄을 들어올리기 전에는 허리를 못 펴도 모를 심었는데, 이앙기가 들어오고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Q.지금 현재 군산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과대학이 있는 군산대학교와 공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신공항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불어 군산의 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항간에 갯벌에 공항을 지으면 지반이 침하되어 항공기 이착륙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할거라 생각하지만, 인천공항처럼 갯벌이 굳으면 일반 시멘트보다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환경도 좋고, 자연도 좋지만 군산에 꼭 공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Q.지금껏 군산에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장소, 남들에게 추천할만한 아름다운 장소가 있다면 어디인가요?

특별하게 추천할만한 곳은 딱히 생각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먹고살기 바빠서 아름다운 곳에 눈을 두고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Q.그래도 선생님께서 특별히 좋게 기억되는 공간이나 시간은 없을까요?

꼭 군산만의 장소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골목이 저에게 추억의 장소입니다. 그때의 골목은 지금의 놀이터였고, 어른들의 수다공간이었습니다. 골목에는 항상 아이들이 놀고 있어서, 이 아이가 낯익은 아이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 아이인지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알고 지냈습니다. 골목은 그 골목사람들한테 평등 했습니다. 그리고 공평했고, 재미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골목문화가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골목대장을 아십니까? 그 골목에서의 대장을 말합니다. 학교에는 반장이 있었고 동네 골목에는 골목대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골목대장을 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한 번도 못해보고 다 자란 것 같습니다. 선양동, 해망동, 흥남동 등 말랭이들도 지금가보면 그때의 느낌은 많이 지워졌지만, 추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Q.군산시에서 실버세대를 위한 편의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인이 동사무소(주민 센터)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과 댄스교실을 다니는데, 매우 재미있다고 함께 다니자고 제안했는데, 저도 한번 다녀볼 생각입니다. 다른 도시들의 실버문화를 잘 알지 못해서, 현재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실버들

을 위한 문화 활동이 크게 아쉽거나 서운하지 않습니다.

Q.선생님께서 이런 인터뷰가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인터뷰해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즉흥적으로 질문하는 것 같아 조금 힘들었습니다. 저는 질문지를 먼저 주어서 답변을 미리 생각해보고 인터뷰를 했으면 더 좋은 인터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내용 속에 나오는 군산 산업의 역사

- 1960~1990년대에 이루어진 경부·경인라인 중심의 경제 개발로 인해, 해운으로 운송되는 화물들이 교통 인프라가 좋은 부산항과 인천항으로 집중되어 교통 인프라가 열악했던 군산항은 화물 운송량이 급속도로 줄어들었고 군산항에 의지한 군산시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고 한동안 정체에 빠져 있었음
-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군산시는 군산국가산업단지, 군산2국가산업단지, 군장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성장세를 회복하였음.
- 새만금 사업 이전에 개발된 군산국가산업단지 및 군산2국가산업단지에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속속 들어선 영향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7년부터 현대중공업의 조선소 폐쇄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인구가 정체하였다가 결정타로 2018년에 제너럴 모터스 군산공장 폐쇄가 결정되면서 큰 타격을 받은 상태임.
- 시대별 군산의 대표 산업체
 - 1950년대 이전 : 경성고무, 백화양조
 - 1960년대 : 고려제지, 세대제지, 세풍제지, 페이퍼코리아
 - 1970년대 : 미원
 - 1980년대 : 한국유리, 쌍용시멘트
 - 1990년대 : 두산유리, 유니드, 동양화학, GM대우
 - 2000년대 이후 : OCI, 현대중공업,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타타대우, 천보, 도레이 첨단소재, 대상, 세아베스틸, 테크팩솔루션, 명신 등

인터뷰 내용 속에 나오는 군산의 기업

OCI(Orient Chemistry Industry)

- “동양화학”이란 회사명으로 1990년 군산공장이 준공되었으며, 연 25,000톤 규모로 TDI 사업을 시작했고, 2022년 현재 연 50,000톤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 1990년 군산공장 준공 당시 TDI 원료로 사용하는 포스젠은 섭씨 7도의 낮은 온도에서 끓으며 노출되면 폭발

위험성이 있고 맹독성 살상가스가 발생한다하여 시민단체 및 지역사회에서 많은 반대를 하였음.

- 공장가동 가동 이후에도 각종 유해물질이 발생과 폭사사고 등 끊임없는 잡음이 있었으나, OCI가 태양광 사업에 진출하면서, 2008년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 생산공장이 군산공장에 1,2,3공장이 추가되고, 군산에서의 전성시대를 열어갔음.
- 제4공장 증설이 진행되던 중 중국의 저가공세에 밀려 2020년 증설까지 포기해가며 군산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사업에 철수를 선언하고 군산공장의 생산라인을 말레이시아로 이전 설치 중에 있음.
- 현재는 말레이시아로 이전한 폴리실리콘 공장에 반도체용 폴리실리콘(4,000톤/년) 규모로 가동 중임.

한국지엠과 타타대우상용차

-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로 34(소룡동)에 위치, 1997년에 완공되었고 1997년 당시 (故)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은 현대의 울산처럼 군산시를 '대우시'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갖고 있었다고 함.
- “대우 유니폼만 입어도 외상 줬다”라는 말은 1996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00년 9월 대우그룹역시 IMF를 피하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지금은 아쉬운 추억이 되었음.¹⁰⁾
- 한국GM의 준중형차들이 이 곳에서 생산되었고, 인근에 과거 대우 계열이던 타타대우상용차가 위치해 있고, IMF때 대우자동차에서 상용차부문을 인도의 타타그룹에서 인수해가며 “타타대우상용차”로 사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가동 중에 있음.
- 크루즈의 부진과 올란도의 판매량 감소로 인해 가동률이 매우 저조해져 GM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2018년 2월 13일에 폐쇄가 확정되어 같은 해 5월 31일까지 최종점검을 하고 6월 1일 폐쇄되었는데 폐쇄 이후에도 경비와 시설유지보수 용역은 계속 들어오며, 이후 타 업체에 매각 혹은 대여의 형식으로 활용되었고, 2018년 9월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 부품재고(외장류 부품과 차량 핵심 부품) 생산을 위해 한시적으로 재가동하여 재고 부품을 생산하였음.
- 결국 GM은 군산공장을 매물로 내놓아,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 중 하나인 MS그룹에서 군산공장을 인수하였음.
- 2019년 MS그룹의 명신에 인수된 이후 전기차를 위탁생산한다고 하나 2022년 현재까지 이러타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현대중공업

- 2009년 8월 130만톤급 도크 완공되며 이듬해인 2010년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공식 시작되었으나, 2017년 7월 수주량 감소로 인하여 현재까지 가동 중지중이며, 2023년 1월부터 재가동한다고 함.

10)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51413560394657>

- 군산조선소의 위용은 대단해서 군산시 소룡동 매립지 181만㎡의 부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와 골리앗 크레인(1천650t)을 갖췄고, 도크는 축구장 4배의 크기로, 25만t급 선박 4척을 한꺼번에 건조할 수 있는 규모이며 골리앗 크레인은 한 번에 1천650t, 자동차 400대를 들어 올릴 수 있음.

세이베스틸

- 1993년에 군산특수강공장 1단계를 준공하고 본사를 군산 이전하며 함께 발전하였음.
- 1997년 군산특수강 공장 종합 준공되었으나, 다음해 IMF 한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법정관리로 운영되었으며, 2003년 세아그룹에 인수, 2004년 세아베스틸로 사명을 변경하고 다시 시작하여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며 군산 경제에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나, 철광 및 제련사업을 하다보니, 인명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한국유리

- 한국유리공업 군산공장은 1981년 6월 군산 Float유리공장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이듬해인 1982년 5월 준공하였으며 1986년 3월 제2공장을 준공하였음.
- 1990년 7월 제3공장을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98년 한글라스그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 2004년 5월 군산에 라미네이트[접합 유리] 생산 공장을 준공하였다. 2008년 10월에는 재무회계 Shared Service Center가 설립되었음.
- 2016년에 제2코팅 가공공장 준공되며, 군산에서 사업하는 대기업중 큰불임 없이 꾸준히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기업이며, 2022년 현재는 LX인터내셔널에 인수되어 LX그룹에 편입되었음.
- 어르신이 말씀하신 “한국유리 로고가 붙은 옷만 입으면 외상도 준다”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무리 없이 통용될 듯 씁니다.



1997년 군산에서 최초로 생산된 준준형 누비라



2007년 당시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조감도

새만금국제공항

- 2022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고시 및 발표
- 사업비 총 8,077억을 들여 2028년 완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2024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
- 기본계획에 따르면 새만금국제공항에는 2천500m 길이의 활주로와 항공기 5대가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 1만5천10㎡의 여객 터미널, 750㎡의 화물터미널,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이 설치됨

인터뷰 내용 속에 나오는 군산의 기업

근립(건립)

예전에는 마을 앞 나무 밑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무게가 150근(90Kg) 내외의 둥근 모양의 돌이 놓여 있는 마을이 많이 있었는데, 이 돌이 '들어올리는 돌'이란 뜻의 '들돌'이다. 음력 정월 대보름이나 2월 초하룻날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젊은이가 이 돌을 들어 올리면, 그 때부터 그는 어른으로 인정받았다. 그래서 어른들의 품앗이에 끼게 됨은 물론, 품값을 받을 때에도 어른의 품값을 받을 수 있었다. 머슴들의 경우에는 들돌을 들어 올리면, 어른 몫의 사경(농가에서 머슴에게 주는 일 년치 품값)을 받을 수 있었다. 나이가 스물이 채 안 되었어도 들돌을 들어 올린 사람은 어른 품값을 받았으나, 스물이 훨씬 넘었어도 들돌을 들지 못한 사람은 반 품값 밖에는 받지 못하였다. 일종의 농사꾼이나 머슴들의 성년식인 것이다.

그러나 긴 세월을 지나며 이 같은 풍습은 사라지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들돌놀이'를 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들돌이 질병을 물리쳐 준다는 주술적 의미를 지니게 되어 '들돌제'를 지내는 마을도 있다.(예 : 충남 홍성군 2019년까지 들돌제 축제 시행). 음력 2월 초하룻날 새벽 5~6시에 드리는 '들돌제'는 마을 공동체의이고, 그 목적은 마을의 평안과 풍년 기원이다. 때문에 제사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공동으로 마련하였다.근립(건립)은 이 '들돌제'를 지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농악을 치는 등의 행위를 하며 제사 경비를 걷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근립(건립)으로 내는 경비는 각자 자기 성의와 집안 형편에 따라 달랐고, 모은 것이 대략 쌀 1자루 정도가 되면 그것으로 '들돌제'를 지냈다.

품앗이

일을 서로 거들어 주면서 품을 값는 것을 의미한다. 일을 한다는 뜻의 '품'과 값는다는 뜻의 '앗이'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품앗이는 두레와 함께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동노동 방식으로 대체로 농경사회였던 한반도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농사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이 중 품앗이의 경우에는 두레와 다르게 소규모의 작업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노동 공동체 보다는 개인적 관계에 의해 행해졌다. 두레라는 풍속이 처음 등장한 것이 삼한 시기이므로 품앗이 역시 이 시기 쯤에 생겨났음을 유추할 수 있다.

더 이상 농경사회가 아닌 근래에도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상부상조를 표현하는 관용구로서의 품앗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ex. 문화품앗이, 육아품앗이 등)

어음 거래 유통

어음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치르기로 약속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고유한 전통적인 어음이 있었는데 이는 어험(魚驗) 또는 음표(音票)라고도 하였다. 전통적인 어음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표권(票券)이며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상평통보가 교환수단으로 널리 유통하게 된 이후부터 신용을 본위로 하는 개성상인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뒤 점차로 주로 객주에 의해 본격적으로 발행되어 통용되었다.¹¹⁾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까지 현금이나 어음 수표 등 장표방식 지급수단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은행 공동 전산망”이 구축되며 지급수단의 전자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와 같은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로 관리되고 있으며, 2005년에 처음 도입 되었으며, 2014년 6월부터는 자산총액 10억 이상 법인사업자가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전자어음을 이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 현재의 금융결제 시스템은 어음교환시스템을 비롯해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 매우 다양한 결제시스템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가계 수표(家計手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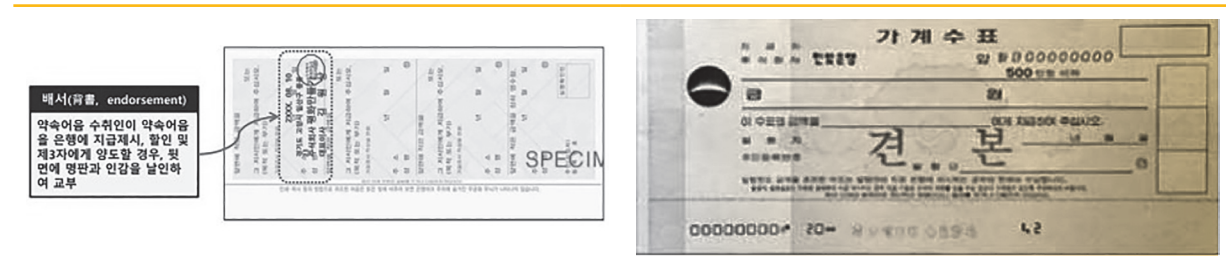
가계종합예금을 예입한 사람이 그 은행 앞으로 발행하는 소액수표이다. 이는 은행에 당좌예금을 예입한 사람(주로 기업체)이 그 예금을 기초로 하여 그 은행 앞으로 발행하는 당좌수표와는 차이가 있으며 약속어음과 달리 그 지급일 전에도 자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가계수표는 대개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발행하여 사용하다 보니 부도사태가 많았다. 가계수표는 발행인이 지급기일까지 약속한 금액을 결제하겠다는 하나의 증서이기 때문에 수취한 사람이 가계수표를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에서는 그 가계수표를 발행한 사람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가계수표 제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단, 지급일 이전에도 자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만약 그 발행인의 은행계좌에 잔액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가계수표는 부도가 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하여 약속어음처럼 지급기일을 정하여 해당기일에 발행인이 계좌에 자금을 예입하는 것이다. 실무에서는 쌍방간의 합의 없이 발행자가 일방적으로 지급기일을 정하여 발행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외상대금으로 받았다면, 이는 쌍방 간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970~80년대 슈퍼마켓 사업

우리나라에 슈퍼마켓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64년 10월 개점한 한국 슈퍼마켓이지만, 1968년 6월 서대문구에 개

11) 네이버 지식백과

점한 뉴서울 슈퍼마켓과 같은 해 8월 을지로 삼풍상가 지하 매장에서 문을 연 삼풍 슈퍼마켓이 본격적인 슈퍼마켓이라 할 수 있다. 뉴서울 슈퍼마켓은 경영 미숙으로 1년여 만에 문을 닫았으나 삼풍 슈퍼마켓은 성공을 거두었다. 삼풍 슈퍼마켓의 성공 이후 미도파, 보광, 제일, 코스모스 등이 잇따라 슈퍼마켓을 개점하였다.¹²⁾



장표방식 거래에 사용하던 어음 1970~80년대 당시 외상 거래시 주로 사용되었던 가계 수표

미면

산북동은 본래 옥구군 미면지역으로 산디 또는 산북이라 하였는데 1910년 군산부(시)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임사리, 석화리, 입이도, 가내도를 병합하여 산북리라 해서 옥구군 미면(미성읍)에 편입되었다. “미성”이라는 명칭은 해당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미룡[미제] 저수지(은파호수공원)에서 유래한 것이다. “미제”라는 지명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미제지(米堤池)[미룡 저수지]는 현의 서북쪽 10리에 있는데, 둘레가 10,910척이다.”라는 기록으로 처음 등장한다. 전라북도 군산시 미성동은 조선 시대에는 옥구현에 속하였다. 1914년 3월 1일 행정 구역을 개편하면서 군산부와 북면 미면, 충청남도 오천군 하남면과 전라남도 지도군 고군산면을 병합하여 옥구군 미면으로 편제했음을 「신구 대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80년 12월 1일에는 대통령령 제10050호에 의해 옥구군 미면에서 미성읍으로 승격되었고, 1983년 2월 5일에는 대통령령 제11027호로 옥구군 미성을 산북리 일부가 군산시에 편입되었다. 1989년 1월 1일에 미성을 전체가 군산시에 편입되면서 미성동으로 개칭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골목문화

골목이란 원래는 차량이 드나들기 어려운 곳을 골목이라고 부른다. 특히 오늘날에는 자동차가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고 없고, 에 따라 접근성이 확 달라진다. 과거 유럽에서는 마차가 버스처럼 오갔기 때문에 말이라는 짐승의 생물학적 특징이 길의 폭을 결정하였다. 뜬금없게도 표준궤 문서에서 유럽 도로의 일반적인 폭에 대한 이야기가 서술되어있다. 표준궤는 1.435m인데 이것이 영국의 일반적인 도로 폭에서 유래했고 그 도로 폭은 고대 로마 시대의 말 궁둥이 2개 들어가는 정도의 길이에서 유래했다는 설. 오늘날 자동차도 대체로 마차

12) 우리역사넷 :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m/view.do?levelId=km_016_0060_0040_0050#ftid_268

의 전통을 따르고 있으니 표준궤에서 약간 넓은 정도 폭이면 딱 일방통행이 가능하게 된다. 이따금 장항선과 같은 단선 열차를 타보면 정말로 딱 골목길이라고 부를 만한 길 사이를 헤치고 지나가기도 한다.¹³⁾

골목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것은 세상이 각박해지면서다.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서로를 경쟁 상대로 몰아가면서다. 서로 이웃이 되어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에 부단한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듬어질 골목문화는 이제 씨앗은 심은 것이다. 문화는 치유에 가깝다. 마음을 정화시켜 선하게 살게 한다. 그러니 문화는 성장해야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힘으로 남아야 한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문화로 사적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은 골목문화의 씨앗들이다. 군산의 골목은 신규택지개발로 만들어진 곳인 나운동, 수송동, 미장동, 조촌동과 디오션시티 등을 제외하면 오래된 도시여서인지 대부분 골목이 발달해있다.



열대자 마을의 골목

인터뷰 속에 나오는 학교들

군산북중, 중앙상고, 주야간 운영

• 군산북중 연혁

- 1956년 “군산광동중학교”가 “군산북중학교”로 교명이 변경
- 1976년 “군산북중학교”가 “군산중앙중학교”로 교명이 변경됨(현재)

• 군산중앙상고

- 1950. 10. 01 “군산광동중학원”을 인수 군산광동학원으로 시작
- 1955. 05. 02 “군산중앙고등기술학교”
- 1966. 11. 17 “군산중앙상업고등학교”
- 1974. 01. 19 “군산중앙상업고등학교와 군산수송고등학교” 통합
- 1974. 01. 23 현재의 “군산중앙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됨(현재)

13) 골목문화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77118>

• 당시 중앙상고의 야간고등학교 학생들은?

- 야간부 고등학교 과정인 군산중앙기술학교에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관공서의 사환, 인쇄 공장의 직공, 상점의 점원, 신문 배달 등 사회 밑바닥에서 온갖 갖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가정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들 학생들은 주경야독하면서도 학열만큼은 그 어느 배움의 현장보다 뜨겁고 진지했다.¹⁴⁾

• 야간고등학교

- 1960~70년대 베이비붐 시대 이후 급속한 학력인구의 증가, 제한된 학교시설, 근로와 학업을 병행하여야만 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기존 학교시설을 주간과 야간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음
- 1970년대생인 자료조사자(전정주)도, 1980년대 국민학교 시절 오전, 오후반이 있었던 기억이 있으며, 당시 근로와 병행하며, 군산여상 야간에 다녔던 형제자매가 있었음

군산대학교 의과대학

• 군산대학교 개요

- 대한민국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미룡캠퍼스) 및 산단남북로 177-1(새만금캠퍼스)에 위치한 4년제 국립 종합대학이다. 1947년 군산사범학교를 모태로 해서 개교 73주년을 맞이했다. 1991년 종합대학교로 개편했고, 현재 7개 단과대학, 10개 학부 20개 전공, 31개 학과를 구비하고 있다. 일반대학원 4개 학부 84개 학과, 산업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 교육대학원 등 특수대학원 21개 학과 48개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 군산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 군산시민의 가장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은 3차병원급의 의료시설이었다
- 500병상 규모의 군산의료원이 있기는 하나,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가 번갈아가며 운영하였기에 군산 시민들 사이에서는 평판이 좋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 군산 시민들의게 3차 의료기관은 절실했는데, 배가,아파 맹장수술 하러 원광대나 전북대병원으로 가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군산대학교의 의과대학 신설 여론은 2010년쯤이며, 군산시청과 군산대학교 등 관련 기관의 지향하는 방향이 달랐던 것 같다. 군산시에서는 전북대학교 군산분원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는 군산대가 직접 의대를 신설해 새만금에 대학병원을 짓자는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¹⁵⁾ 하지만, 1광역자치단체 1국립의대 원

14) 전북일보 <https://www.jjan.kr/article/20011203048651>

칙의 정부방침에 따라 쉽지 않는 상황이었다. 의대를 설치할 희망하는 국립대학이 군산대뿐만 아니라 목포대, 안동대, 창원대 등등 많았기 때문이다.

2017년 서남대학교가 폐지되자 서남대의대를 군산대로 유치하려 했으나, 무산되었고 서남대 의대생들은 전북대와 원광대가 사이 좋게 나누어 편입해갔다. 2019년 약학대학이라도 설립하자고 하였는데, 이 또한 무산되었다. 현재는 전북대학교 병원 군산분원으로 가닥을 잡았고 병원 위치를 선정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군산공설운동장 앞에 부지를 확정하고 2023년, 착공 준비 중이다.

군산의 교회

인구 대비 교회가 매우 많아서 인구 대비 교회 수 최다로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소문도 있지만, 그냥 우스갯소리이다. 어쨌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교회가 많았다. 사실, 전라도가 다른 지역들에 비하면 개신교의 세력이 강력한 동네이기는 하다. 군산이 이렇게 유독 개신교의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조선시대 말, 많은 선교사들이 군산에서 활발한 선교 활동을 한 덕에 전라도의 다른 도시들보다 유독 개신교 신자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인요한 박사의 선친인 휴 린튼이 친조부 윌리엄 린튼의 선교 활동 영향으로 군산에서 출생하기도 하였다. 사실 인구수 대비 군산보다도 개신교의 파워가 더 쎄고 교회도 더 많은 동네는 바로 경기도 광명시인데, 그 이유는 광명이 서울과 붙어 있기 때문이다. 광명에서 서울 경계 지역에는 아예 교회촌이라고 한 건물에 교회가 여러 개씩 뭉텅이로 세워져 있는 곳이 존재한다. 옆 동네 익산시 또한 전라도답게 크리스천의 수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천주교나 불자의 비율은 상당히 낮고 힘을 못 쓰는 편. 그럼에도 한기총은 매우 싫어해서 전 한기총 회장인 전광훈씨가 이 동네에 강의를 왔다는 소문이 돌자, 해당 교회에 개신교 신자들이 몰려가서 쫓아낸 적도 있다.¹⁵⁾ 금강을 통해 예전에는 한양으로 갔는데 논산/ 강경/ 부여로 이동하는 통로였고 예전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가는 관문이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고 군산에는 오래된 교회가 많다. 군산에 교회가 많아 지역 단위로 있는 노회인 “군산노회”가 별도로 있을 정도로 많은 신도가 있다고 한다. 군산노회는 배임과 횡령으로 서해대학을 폐교하게 만든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15)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00289>

16) 나무위키

2022 Gunsan City Culture

III. 군산 시민의 일상생활문화 추적 활동

1 옥산 귀농일지

2 신흥동 말랭이 사람들의 이야기

1. 옥산 귀농 일지

개요

조사자	채정연 · 주형태	
조사 동기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산면은 군산시의 농촌지역으로 농업은 아주 밀접한 산업이며 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이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지는 것• 귀농한 청년 농업인의 일상생활과 농업 외 활동으로 새로운 농업문화 발견• 귀농 생활을 하고 있는 본인의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함	
활동 개요	컨설팅 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에서 방향성 체크를 위한 컨설팅• 문정현 전문위원과의 방문 상담/전화 상담
	활동 조사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05.01. 동네 할머니네 고추심기• 2022.05.11. 밭에서 하는 테잎 컷팅식• 2022.06.08. 조카와 함께 밭일하기• 2022.06.25. 농부친구들과 봉사활동• 2022.07.04. 멧돼지의 고구마밭 습격• 2022.07.08. 축사에서 바이올린 연주회• 2022.07.22. 아기 농부의 선진지 견학
	조사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름 : 채정연(군산시 옥산면)• 특이사항 : 귀농 2년 차, 다양한 농업 외 활동 활발
	옥산 귀농일기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날짜 : 2022년 6월 26일 12시 30분 ~ 2시• 장소 : 옥산 호박터• 내용 : 매일 한가지 이상의 일상을 올림<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산에 오게 된 이유와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기록- 본인이 콘텐츠를 명심할 것이고 본인이 가는 곳이 곧 문화의 현장임을 알림
	조사 장소,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산 일대• 조사방법 : 촬영 > 영상편집 > 유튜브 업로드
	조사 결과 활용 ·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의 다양화를 홍보, 농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 농촌 관광상품의 개발
	보고서 작성 및 워크샵 자료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6월 6일 ~ 7월 21일• 보고서 10회 분 발송• 워크샵 중간발표, 최종 발표 ppt 발송
	워크샵에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 발표 (6월 16일)• 최종 발표 (7월 28일)

활동 결과물

동네 할머니네 고추심기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ZAOfzc5l_vl)

몸이 불편하신 동네 어르신 고추모 정식을 엄마와 함께 도와드리는 내용(농촌 일손 돕기)



[동네문화추적단] 할머니네 고추심기

밭에서 하는 농번기 개막 테잎 컷팅식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2SwD-jqBR_U)

한해 농사의 대풍을 기원하며 로타리 작업전 동네 어르신들과의 작은 이벤트성 테잎 컷팅식



[동네문화추적단] 농번기 테잎컷팅식

조카와 함께 밭일하기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XdLj7bZ36d4>)

어린이들에게 식물에 생장과 수확에 결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기획한 콘텐츠



[동네문화추적단] 조카와 밭일하기

농부친구들과 봉사활동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Gniq3oUZm0k>)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 농업인과 귀농 귀촌인에게 분배 예정인 경작지에 농사짓기 좋게 4H 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돌을 골라내는 봉사활동을 한 내용



[동네문화추적단] 농부친구들과 봉사활동

멧돼지의 습격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8t5XpJT1gPc>)
고구마를 심어놓은 밭을 멧돼지가 습격했고 민원을 넣어 처리하는 내용



[동네문화추적단] 멧돼지의 습격

축사에서 바이올린연주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ZW8dq01N3mU>)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농업인의 축사에 방문하여 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며 엉뚱하고 재미있는 모습을 표현한 내용



[동네문화추적단] 축사에서하는 바이올린 연주

아기농부의 선진지 견학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vQjq9jHqpoo>)
여성, 청년, 농업을 함께하는 주변 친구들과 교류하며 타 지역 농업 선진지에 방문하여, 농업 관련한 체험을 하는 내용



[동네문화추적단] 농부의 농가체험 (선진지견학)

2. 신흥동 말랭이 사람들의 이야기

개요

조사자	박향숙 · 김규리		
조사 동기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군산 신흥동 말랭이마을에 입주작가로 거주하면서 마을의 유래와 마을사람들의 삶의 변화에 대해 탐구하고 싶다. 해방이후 군산의 양대 선창 중 하나인 해망동 선창을 배경으로 생계를 이어왔던 말랭이마을 사람들이 이루어 온 공동체 삶의 현장을 함께 입주한 미술작가님과 같이 직접 인터뷰해서 생생하고 아름다운 에세이 기록물을 남기고 싶다.또한 말랭이마을이 군산시의 문화도시선정에 지표가 되는 작은 도움이 되고자 본 공모에 신청하였다.이전의 말랭이마을의 이야기를 보았고, 회화적인 이미지로 상상이 되었다. 나는 사람들이 이야기에 끌려 모인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의 말랭이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생각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어떤 추상이나 구상적인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실험해보고자 한다.말랭이마을의 삶 그리고 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삶, 말랭이마을속의 이야기를 아카이빙 해 그것을 토대로 그림을 그려 전시회를 열고 나아가 책으로 만들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는 그림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다.		
활동 개요	컨설팅 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센터에서 방향성 체크를 위한 컨설팅전문위원과의 방문 상담전문위원과 전화 상담	
	• 인터뷰 공통질문 준비와 마을주민 인터뷰 날짜 선정	4월	
	• 인터뷰 진행 및 마을역사와 문화에 관한 글과 그림 자료 수집	5월~7월	
	• 에세이 집필 및 그림 제작, 전시회장소 섭외	7월~9월	
	• 에세이 출간 및 그림전시회 홍보	9월~10월	
	보고서 작성 및 워크샵 자료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일시 : 6월 6일 ~ 7월 21일보고서 10회 분 발송.워크샵 중간발표, 최종 발표 위한 ppt 발송	
워크샵에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중간 발표 (6월 16일)최종 발표 (7월 28일)	

프로로그

“어머님들, 이렇게 한술밥을 먹으니 저도 말랭이마을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꽃봄과 초여름이 함께 노니는 이 좋은 날, 우리도 야외로 나가서 맛난 밥 드시게요. 저희 작가들이 삼겹살 가져올게요, 대신 노인정에서 밥이랑

다른 반찬 준비해주시면 좋지요. 특히 제가 마을 어르신들과 인터뷰하면서 말랭이마을 이야기 써야 하는데 얼 굴도 익히고 인사드릴게요.”

6월 첫주, 말랭이마을 어른들과 입주작가들이 처음으로 야외소풍을 갔다. 뒷산에 있는 모정에서 삼겹살구이 잔치가 벌어졌다. 노인회 회장인 태환님과 라틴댄서 덕순님의 오토바이는 반찬공수에 고개마루를 오고 가느라 바빴다. 총무인 경자님은 마을 사람들을 모이라고 홍보했다. 하나 둘 모정으로 올라오는 어른들의 발걸음은 느 리면서 가벼웠다. 간간히 얼굴만 익힌 젊은 작가들과의 만남으로 분명 들뜬 몸짓이었다.

“어서오세요. 오늘 이 자리는 저의 입주작가들이 마을 어르신들과 따뜻한 밥 한끼 대접하고 싶어서 만들었어 요. 부족하지만 맛있게 드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세요.”

“요새 삼겹살 값도 비싸더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초대해줬는가. 우리가 미안하고만. 노인정에 있는 반찬 도 다 가져왔으니 맛있게 먹으면 좋지. 고기는 우리가 구울테니 작가님들은 사진도 찍고 그려요.”

20여 명의 어른들 손발이 움직이더니 번개처럼 점심상이 차려졌다. 한쪽에서는 고기를 굽고, 다른 한쪽에서 는 밀반찬과 밥이 올라왔다. 어느새 상추와 마늘, 썰긴 대파가 접시에 담겨 모듬으로 옮겨지고 나도 모르게 젓 가락을 들고 침이 꼴딱 넘어가고 있었다. 왜 식구(食口)라는 말을 썼겠는가. 함께 밥을 먹어야만 식구가 되는 듯, 서로 밥 먹으라고 챙겨주기 바빴다. 어른들은 밥을 공기에 가득 담고, 접시에 잘 익은 고기만을 골라 자식에 게 주듯 작가들을 먼저 챙겼다. 잔치를 펼친 모정의 세상은 바로 천상의 놀이터 같았다.

즉석 노래자랑이 열리더니 복순님과 정엽님의 구성진 노랫가락을 흘러나왔다. 우리들은 재창 삼창을 연발하 며 따라불렀다. 노래가 있으니 춤도 있어야 된다고 덕순님의 라틴댄스 리듬이 실려나왔다. 얼마나 웃고 웃었는 지 얼굴이 떨릴정도였다. 덩달아 말랭이마을의 나무와 꽃, 새들도 모두 웃음박이 터졌다. 드디어 나도 말랭이 식구가 되었다.

이기철 시인의 시 〈밥상〉에 나오는 구절이다.

산 자들이여, 이 세상 소리 가운데
 밥상 위에 놓이는 수저소리보다 아름다운 것이 또 있겠는가
 (중략)
 산 자들이여, 이 세상 소리 가운데
 밥 술에 물 끓는 소리보다 아름다운 것 또 있겠는가

— 2022.7.28. 박모니카 작가

인터뷰 질문지

○ 박모니카 작가 질문지

- 말랭이에서 일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일
- 근대화 마을 조성사업에서 아쉬웠던 점
- 말랭이에서 동네카페 프로그램 시행된다면 원하는 것?
- 말랭이마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 좋아하는 꽃의 종류
-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루고 싶은 것
- 앞으로 말랭이마을이 어떻게 변했으면 하나요?
- 마음속에 품고 있거나 기억하고 있는 시나 구절

○ 김규리 작가의 질문지

- 보통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고 끝나는지.
- 모으고 있거나 모았던 물건
- 힘들 때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 나를 떠올리며 나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
-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 가장 좋아하는 색깔
- 나의 삶의 터전인 마을은
- 현재 어떤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10년 후의 나와 생활공간은 어떻게 변할 것 같나요
-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공통 질문지

- 마을에서 사라진 것 새로 생겨난 것에 대해 말해주세요.
- 작가들과 협업 원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 내가 생각하는 나와 마을을 만들기 위해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마을에서의 좋았던 추억 안 좋았던 추억은 무엇인가?

인터뷰

INTERVIEW

인터뷰 1

- 일시 : 2022년 5월 6일
- 대상 : 톡톡, 하늘 두드리는 목련꽃 경자님

경자님 : “책방 있음게 좋아. 지금이야 책만 보면 잠이 와서 최고의 수면제지만 그래도 중학교 때는 친구들 대신 연애편지를 써주는 문장력이 있었어. 이제 나이 먹어 눈이 나빠서 책 보기도 어렵지만 지금도 생각나는 책이 그 〈안네의 일기〉 있잖아.”

말랭이마을의 살림꾼이자 마당발인 박경자 어머니는 인터뷰 장소로 책방을 먼저 찾았다. 60년대 여배우들의 헤어스타일로 된 가발을 쓰고 허리 곳곳하니 자신감 있는 뒤통은 젊은 청춘의 나이테에 여군출신이었던 삶의 무늬가 보였다.

말랭이마을 입주작가로 마을주민들과 첫 만남이 있던 3월, 새로 이사 온 작가들의 긴장과 마을 어른들의 호기심이 어우러져 커뮤니티센터는 신선한 공기가 맴돌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맘으로 말랑말랑한 솜털이불이 드리워준 사람 중에 어머니의 리더십이 보였다.

일제강점기 경자님의 부모와 가족은 군산으로 왔다. 항구 일을 하면서도 유리 기술을 배운 기술자인 아버지 덕분에 경자님은 1960년대 고등학교까지 마친 엘리트였다. 졸업 후 세무서에 일하면서 당시 보기 드문 타자기를 치는 등 소위 신식교육을 받은 분이였다.

경자님 : “세무소를 한 1년 쯤 다녔을 땐가, 저기 뽕집 이성당 앞에 멋진 제복을 입은 여자들 그림이 있는 포스터를 봤어. 여군모집을 한다는 거여. 나는 두 번 생각도 없이 친구와 함께 야간열차를 타고 서울로 갔지. 그곳에서도 내 타자기 치는 실력으로 신 세상을 만난 것처럼 재밌게 일했어. 제대 후에는 육군종합행정학교에 취직도 했었지.”

타고난 밝은 성격의 어머니 짝꿍은 어떤 분인지 궁금했다. 부모님이 점지해둔 오빠친구 ‘신정복’. 여군훈련 받을 때 근처에서 군 생활을 한 덕분에 일주일마다 만나 연애 후 결혼했다. 같은 동네사람이라 낯설 것도 없고 친오빠처럼 만나 평생을 해로하고 계신다. 10여년 전 마라톤대회 출전 시 뇌출혈로 쓰러진 후 병상을 돌보고 있어도 늘 마음은 한결같다고 한다. 두 분의 취미는 같다. 레슬링과 뉴스시청에 한 박자로 소리내는 걸 보면 천상 운명적 궁합이라고 했다.

모니카 : “어머님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일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이 좋아요.”

경자님 : “나는 활동적이고 낙천적이야.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아깝고, 뭔가도 해야 사는 것 같아. 하다못해 게임(테트리스)도 하고, 마을 다니며 풀때기도 뽑고 쓰레기도 줌고, 우리 마을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40여 년 전 처음으로 마을 통장으로 임명받아 15년, 동네부녀회장으로 10년을 봉사하면서 누구보다 마을의 대소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정으로 사는 마을의 리더로 활동했다. 처녀 때 공공기관의 행정경험으로 마을 소소한 일도 진행



박경자 어머니
마을 주민협의회 대표

하고 기록하는데 당신의 재능을 맘껏 발휘했다. 지금도 말랭이마을 노인정 총무, 동사무소 주민자치 위원회 재무담당을 맡고 있다.

신흥동 근대마을 조성 시 말랭이에 있던 대부분의 마을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한 핏줄 같은 동네사람들이 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주차장 자리에 초가집들과 탕자나무가 있었다. 수시로 잔치마당을 열어서 박대껍질로 묵을 만들어 먹으니 유명한 군산박대가 되었다.

경자님 : “문화지킴이가 뭐 별건가. 너도나도 동네 깨끗이 해서 외지사람들이 다시 오고 싶다는 맘을 들도록 하면 좋지. 말랭이마을도 부산의 감천마을, 통영의 동파랑 마을처럼 문화마을로 안착되면 좋지. 혼자서는 안되니까 마을 주민, 시 공무원, 문화마을 전문가들이 함께 협동해야지.”

말랭이문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마을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이 중요하니 스스로 문화마을 지기가 되어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에 여기 계셨네요’ 라고 답했다. 군산근대역사길의 유산들과 함께 마을의 모습이 근대부터 현대, 미래까지 품격있는 문화마을로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하루의 일상 중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이나고 묻자, 말랭이주민들이 만드는 공방센터라고 했다. 비즈공예재료로 팔찌, 목걸이, 브로치 등을 만들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판매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요즘에는 말랭이 입주작가 한 복공예팀과 함께 하는 천연염색과 바느질이 즐겁다.

아직도 20살에 보았던 영화 ‘스잔나’의 여주인공이 불렀던 〈만추의 노래〉를 흥얼거리는 멋쟁이 경자님. 봄에 피는 목련이 가장 좋다는 경자님에게 이 시를 들려드리고 싶다.

목련 그늘 아래서는 - 조정인

목련 아래를 지날 때는
가만가만
발소리를 죽인다

마른 가지 어디 물새알 같은
꽃봉오리를 품었었나
톡
톡
껍질을 깨고
꽃봉오리들이
흰 부리를 내놓는다
톡톡,
하늘을 두드린다

가지마다
포롱포롱
꽃들이 하얗게 날아오른다

목련 아래를 지날 때는
목련꽃 날아갈까 봐
발소리를 죽인다

인터뷰 2

- 일시 : 2022년 6월 7일
- 대상 : 너무너무 예쁜 제비꽃 정엽님

‘어머니 완전 동안미인이세요’라고 건네자 ‘어구, 무슨 미인여, 그냥 나는 언제나 바깥에 나갈 때 뭐라도 찍어발려. 사람 만나는데 이왕이면 단정하고 이쁘면 좋지.’라고 화답했다. 전라도 여수의 구수한 고향사투리가 말끝마다 애교스러워서 처녀시절 얼마나 인기가 있었을까 짐작했다.

결혼 후 부산에 거주하다 군산에 있던 친오빠가 있어 말랭이마을로 이사 온 지 어언 47년이 흘렀다. 이주 초기에는 군산의 해망동과 월명동에서 고기잡이배에서 내린 생선을 팔기도 하고 K목재를 다니며 젊은 시절 고난을 헤쳐 나갔다. 25살 시작한 해망동 생선 어판장 일을 40살이 될 때까지 했다.

정엽님의 남편은 기름배(유조선)을 탔는데 55세에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지금까지(현 80세) 정엽님의 간호로 정신력이 강한 남편은 열심히 운동하며 잘 이겨내고 있다. 때때로 남편의 불같은 급한 성격으로 속병도 있었지만 교회생활에 매진하면서 정서적 여유를 가졌다.

10여 년 간의 월세살이 끝에 신흥동 말랭이로 오면서 정엽님은 집이 생겼다. 당시 말랭이의 집값이 700여 만원. 단칸방에 시어머니와 자식들과의 살림은 고되고 고됐다. 애들 울음소리만 나도 ‘방빠’라는 주인집의 위세에 눌러 남의 집 살이에 한이 맺혔다. 허리띠 졸라매고 일해 처음으로 집이 생겼을 때는 온 세상을 다 얻은 듯 했다.

‘니들만 집있냐. 나 정엽이도 집 생겼다. 인자 세상 부러운거 하나도 없다.!!’

그러나 정엽님은 평생의 한이 있었다. 8남매 중 하나뿐인 고명딸이었는데도 동생들 뒷바라지에 다니던 국민학교를 3학년까지만 다녀야 했다. 당시만 해도 학교를 다니려면 등록비와 책값이 필요했다. 한동안 이웃언니들의 헌책을 받아서 공부했는데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되니 겨우 이름 석자 쓰는 신세가 되었다고 말했다.

정엽님 :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소원은 하나뿐이지. 공부하고 싶다네. 책값 낼 돈은 있는 집에 태어나서 공부 많이 하고 싶다네. 그래서 법관이나 정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정치가 뭔가 사람 사는데 공평하게 하는 거 아닌가. 사람답게 살도록 법을 만드는 거 아닌가. 요즘 법 공부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인데도 모두 자기 것만 욕심내는 세상여. 나는 그런 사람들 버르장머리를 다 뜯어고치고 싶네.”

모니카 : “와, 역시 어머니 짱. 그렇지. 우리 말랭이마을처럼 서로 나누고 살아죠. 어머니가 지금부터라도 저랑 함께 사회운동 해볼까요? 하하하”

정엽님의 결기찬 모습은 마치 선거유세를 나온 진짜 정치인의 다짐 같았다. 세상에 정치인이란 이름표 단 사람들이 많아도 정엽님의 이 단단한 마음 하나만도 못한 것이라고 느꼈다.



김정엽 어머니

모니카 : “말랭이마을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정엽님 : “오랫동안 못사는 동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문화마을 조성 사업으로 동네가 깨끗해져서 좋아. 삼년 전부터 이런저런 공사도 하면서 젊은 동네로 만든다고 해서 기대 많이 했지. 올해 예술하는 젊은 작가들이 와서 우리 동네도 젊어진거 같어. 관광객들 수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행정처리해서 이 정표도 만들고 방문객들의 체험공간도 열면 좋겠어. 무엇보다도 여행은 먹거리가 최곤디, 우리 동네도 먹을 수 있는 가게도 생기면 좋겠고, 무엇보다 젊은이들과 떠났던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마을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지.”

천연염색 활동을 하면서 당신이 입고 있는 회색빛 몸빼바지를 보라색으로 바꿔달라는 정엽님. 당신은 충실한 교회신자인데, 사람들이 그 바지를 보면 무슨 절의 보살 같다고 한단다. ‘다른 옷도 있지만 그 옷에 정이 들어서 자주 입으니 염색작가님들이 좀 도와주소’라고 말했다. 아이들 옷, 이불, 베개까지 보라색이라는 정엽님에게서 ‘보라색향기’라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대 모습은 보라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예쁜 두 눈에 향기가 어려 잇을 수가 없었네..정엽님의 큰 눈에 슬며시 비쳤던 젊은 날 회색 추억을 보랏빛 신비로움으로 채워주고 싶었다.

제비꽃 – 정연복

흰색이나 노란색 옷도
가끔은 입지만 대개는
보라색 옷을 즐겨 입는 너
몸은 작지만
키도 무척 작지만
봄의 들판에서
활짝 웃는 네 모습에
반하지 않을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을 거야.

여자도 보라색이 잘 어울리면
미인이라지
수수한 연보랏빛
옷 하나만 걸치고 있으면
예뻐도 너무너무 예쁜 너.

인터뷰 3

- 일시 : 2022년 6월 13일
- 대상 : 아름다다 드릴게요 진달래꽃 정자님

웃음 가득한 눈가를 담은 하얀 얼굴의 정자님은 내 친정엄마와 이름도 나이도 같다. 언뜻 보기에도 말랭이의 다른 어머님들보다 고생한 흔적이 덜 보이고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작년에 사라진 말랭이의 50년 된 감나무 집의 안주인으로 공무원이었던 남편 덕분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사셨다. 10여 년 전 남편의 귀촌 후에도 이사를 고민하지 않은 것은 오로지 말랭이를 품에 안고 있는 월명산이 주는 이 맑은 정기 때문이라고 하신다.

군산으로 흐르는 금강 하구둑의 다리 하나 건너면 친정인 충남 서천군의 철새조망대가 있다. 그곳이 정자님의 고향이다. 면장을 하신 친정아버지, 군산의 유명 중고등학교를 다닌 오빠 언니들 속에서 자란 귀한 막내딸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란 꿈은 나무였다. 학생 때의 꿈도 특별할 것 없이 현모양처를 꿈꾸어서 남편 잘 보필하고 자식들 잘 낳아 키우는 것이 소원이었다.

윗동네인 말랭이마을과 달리 근대건축물인 히로쓰가옥이 있는 아랫동네는 신흥동의 서울이라 불렸다. 정자님은 신흥동에 이사 와서 아랫동네에 살았다. 위 아랫동네 마을이라도 척박한 삶의 윗동네와 달리 평범하지만 안락하게 일생을 보냈다. 지금의 말랭이 어른들과의 교류가 없었는데 신흥동의 마을구역이 바뀌지면서 자연스럽게 윗마을 사람들과 왕래가 시작되었다.

타고난 성격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뿐만 아니라 활동적인 사고성을 가진 정자님은 아랫마을 노인회에 들어와서 재정을 담당했다. 돈을 관리하는 일의 일등 기준인 믿음의 적격자가 되면서 신흥동 말랭이마을인으로서 다시 태어났다. 이제는 마을의 주인이 된 것이 자랑스럽고 마을사람이 없는 정자님의 삶은 생각하지 못한다고 한다.

정자님 : “남편이 돌아가시고 너무도 상심이 컸지. 평생 남편이 벌어다주는 월급에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일하러 나간 적도 없이 편하게 살았거든.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 너무도 허전하고 힘든 거야. 그때 마을 사람들이 위로와 인정이 덕분에 내가 생기를 찾았어. 이 마을 사람들은 사람 냄새나는 유일한 마을 일거여.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곳이지.”

집 앞에 있는 군산시 정원을 내 집 정원마냥 이용하고 운동기구는 말 그대로 자연용 헬스클럽이 되어 매일 운동한다. 또 그 옆 텃밭에 오이, 호박, 가지, 고추 등 식용작물을 키워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재미가 최고라고 한다. 남편 생전에 절대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지 말라는 유지를 받들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말한다.

일상적인 취미로 복지관에서 ‘노노케어’ 활동하면서 노인과 노인 간의 돌봄이 즐겁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꿈쩍 못했지만 한 달에 한번씩 여행도 다녔는데, 중국의 장가계와 원가계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이제 미국이나 한번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다.



김정자 어머님

지난 30년간 꾸준히 해온 에어로빅은 이제 특기라고 할만큼 재밌고 잘한다고 자랑하신다. 월명공원 삼일탑 에어로빅팀에서 대회에 나가 상을 받기도 했다. 더 즐거운 것은 운동후 회원들과 커피를 나눠 마시며 세상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24살에 결혼해서 45년째 마을의 고참으로 사는 재미는 그 무엇도 부럽지 않다면서 말랭이 작가들을 보면서 격정스레 묻는다.

정자님 : “그나저나 어떻게 먹고 살만한거여? 시에서 무슨 보조금이라도 주는건가? 뭘 하든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한디, 경제적 생활이 안정돼야 우리 마을에서 오래 있을거 아닌감.”

마을 어른들이 한결같이 걱정하는 ‘말랭이 작가들의 경제적 안정’을 정자님은 유독 더 하셨다. 책방에서 책 팔아서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옛날에는 이 산말랭이에 집들이 딱딱따닥 붙어서 책이고 뭐고 생각할 여유가 있었겠냐며 이렇게 책방이 들어와서 너무도 좋다고 했다.

모니카 : “어머니, 이 책방에는 시집이 많아요. 혹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시 중에서 생각나는 시 있을까요?”

정자님 : “궁게. 그 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시가 있네디.”

모니카 : “아,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예요. 그 시 좋아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각나시는 부분 있으면 어머니도 함께 하시게요.”

진달래 꽃 –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 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정자님은 분홍빛 작약꽃을 좋아하신다. 그런데 시 한수를 낭송하시더니 이내 분홍색 진달래꽃도 좋다고 하셨다. 곱고 하얀 어머니의 얼굴은 이제 갓 피어난 연분홍 진달래 꽃잎같이 살포시 해서 감히 손대기도 아까웠다.

인터뷰 4

- 일시 : 2022년 6월 13일
- 대상 : 보름달빛에 피어난 박꽃 대순님

대순님 : “내가 무슨 인터뷰를 할 줄 아나. 나는 말도 잘 못하네.”

말씀과 달리 센터로 들어오는 대순님의 발걸음은 노란 펜지꽃잎에 내려앉아 뿜내는 나비처럼 날아와 의자에 앉았다.

모니카 : “어머니 인터뷰라는게 별거 아니예요. 저도 말랭이마을사람이 되었는데, 제가 모르는게 많아서 어른들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속내를 알면 더 빠르게 알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대순님은 22살에 결혼해서 시댁의 큰집과 동거하는 것이 힘들어서 군산으로 왔다. 다른 말랭이 사람들처럼 남편의 첫 직장도 해망동 선창이었다. 남편은 인성을 말할 것도 없이 좋은데 생활력과 끈기가 부족했다. 하는 일마다 길게 하지 못해서 결국 가정주부로만 살던 대순님이 생활전선에 들어섰다.

아들 둘, 딸 둘을 낳고 막내가 세 살 때 밥벌이 세상으로 나갔다. 첫 번째 직장은 해망동의 조개공장이었다. 당시 하루를 나가면 연탄 100장 값을 받았다. 아이들을 놓고 나가면 큰 딸(지금 56살)이 동생들을 데리고 밥을 해 먹이고 살림을 했다. 당신은 무학이었지만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키운 자식들은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모두 개근상을 받았다고 자랑했다. 나도 덩달아 ‘개근상 받은 것이 제일 좋아요.’ 라고 화답했다.

모니카 : “어머니,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주세요.”

대순님 : “나는 누구보다도 내 능력으로 내 삶에 충실했지. 성실하게 살았어. 하루살이 인생처럼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 그게 가장 자랑스러워. 비록 돈도 많지 않고 자식들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모두 건강하고 화목해. 열심히 내 앞길만 보고 남 탓 안하고 살아와서 그런거라고 생각해. 그게 최고 아니었어?”

피부색이 검어서 옷 하나를 입을 때도 노랑 파랑 빨강 등의 단색을 입고 꽃도 셋노란 개나리 꽃이 좋다 하신다.

대순님 : “개나리는 봄에 지천에 피어나니 흔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피어나니 공평한 꽃이지.” 라고 말했다. 과연 삶의 철학자다운 말씀이다.

대순님의 꿈을 물으니, 오로지 자식들이 다 잘 사는 것이라고 한다. 힘든 삶을 살면서도 자식 네 명 모두 결혼시켜서 부모로서 할 일을 다한 책임감이 자랑스럽다.

모니카 :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대순님 : “가족 간의 건강과 화목이지. 그리고 남에게 손가락질 안 받고,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살아야 돼. 불편한 일 있어도 내가 좀 손해 보면 된다는 맘으로 살면 다 편하고 좋지.”



백대순 어머니

모니카 : “말랭이마을에서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을 말씀하신다면요?”

대순님 : “그야 당연히 사람들이지. 특히 33살 때부터 직장에 다녔는데 함께 했던 동료들이 지금까지도 우애하며 건강하게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놀기도 하는 거지. 방자, 정엽, 선심이가 그런 사람들이여. 이 사람들이 없으면 어쩔건능가 싶지.”

지금까지 6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말랭이마을에 영원히 보전되기를 희망한다는 대순씨는 다른 분들과 색다른 정책 안도 말했다.

대순님 : “군산시 정책으로 젊은이들에게 집을 주어서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고 살도록 해야해. 타지 생활하는 우리 자식들만 봐도 사는 거처가 있어야 부모맘도 편하고 당사자도 안정되더라고.”

대순님 같은 분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런 정책 내놓고 실천하는 사람은 선거 때 무조건 뽑힐 거라며 돌이 한참 웃었다. 말랭이마을만 해도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여기야말로 빈집을 고쳐서 젊은이들에게 집을 주어야 된다고 해서 든든한 우군을 만난 듯했다. 마을 어른으로 젊은이들이 와서 살 수만 있다면 청소, 꽃 가꾸기 등 무엇이든 협조하겠다고 말하는 대순님, 박꽃처럼 수줍은 미소가 아름다웠다.

박꽃 - 마중기

그날밤은 보름달이었다
건넌집 지붕에는 흰박꽃이
수없이 펼쳐져 있었다
한밤에 달빛이 푸른 아우라로
박꽃의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박꽃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네.

아버지방 텃마루에 앉아서 나는 한마디
얼마나 또 오래 탄 생각을 하며
박꽃을 보고 꽃의 나머지 이야기를 들었을까

-이제 들어가 자려무나.
-네, 아버지.

문득 돌아본 아버지는 눈물을 닦고 계셨다.

오래 잊었던 그 밤이 왜 갑자기 생각났을까.
내아이들은 박꽃이 무엇인지 한번보지도 못하고
하나씩 나이차서 집을 떠났고
그분의 눈물은 이제야 가슴이 절절이 다가와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 외롭지 않고
내게는 귀하기만 여겨지네

인터뷰 5

- 일시 : 2022년 6월 14일
- 대상 : 빨강 정열의 라틴댄서 덕순님

말랭이 입주작가로 들어와 산 지 석달 만에 처음으로 마을 어른들과의 단합회를 추진했다. 앞으로 있을 인터뷰에 잘 부탁한다는 숙내가 숨어 있었다.

모니카 : “어머니들 위 모정에서 삼겹살파티 한번 하시게요. 고기는 저희 작가들이 준비하고 밥이랑 반찬은 노인정에서 준비해주시면 어때요?”

단번에 모두 ‘오케이’라며 잔치날을 기다렸다.

모정으로 올라오는 오토바이에 앉은 전사와 같은 모습의 덕순님이 눈에 띄었다. 점심상에 놓을 반찬을 노인정으로부터 공수하는 일을 맡은 거였다. 말랭이마을의 막내동이 덕순님은 유일하게 육십대, 소위 젊은 새댁이었다.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나 이곳 군산까지 어떻게 오셨냐는 질문에 큰 눈 가득 눈물이 맴돌았다.

덕순님 : “친정은 아이스계끼(얼음공장)을 했는데 남편이 영월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 참 세상일은 알 수 없지. 남편이 신흥동 옆 송풍동에서 태어났거든. 서른 살에 왔으니 벌써 40년이네.”

덕순님의 말랭이마을 입성에도 역시 슬픈 사연이 숨어 있었다. 처녀 때 친정의 얼음공장 사업을 도와주다가 그곳의 회사에 다니던 남편을 만났는데, 산재사고로 몸을 다친 남편의 귀향을 따라 군산에 왔다. 지금의 월명터널 바로 앞 마을에서 군산생활을 시작했다. 말랭이마을에서 생활전선으로 해망동에 적응 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장에 들어가 새우나 조개를 다듬는 일을 한 반면 덕순씨는 처음부터 어판장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친정에서 사업을 도운 경험이 있는지라 비록 작아도 남 밑에서가 아니라 자기 일터를 갖는 것이 좋았다.

한때 군산의 경제를 주물렀던 안강망 어선이 귀선을 할 때면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지금은 10여 척으로 감척되었지만 한때 300여 척의 배들이 조금 때가 되면 ‘군산어화’를 이루며 거대한 생물처럼 군산을 움직였다. 새벽 4~5시경부터 어판장 경매가 시작되어 소매상으로 생선을 받으면 오후 늦게까지 어판장에서 장사를 했다. 항구도시 군산의 주종이었던 조기, 갈치, 홍어, 꽃게 등을 팔아 아들자식 둘을 키웠다. 술로 일상을 보내던 남편도 10여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들들은 엄마의 고생을 귀히 여기고 효도를 한다.

마을인 : “어, 덕순이, 춤 한번 춰 보소. 세계적인 라틴댄서 이덕순 솜씨 좀 보여주소.”

라는 사람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덕순님의 몸 라인에 요동이 흘렀다. 순간 말랭이 작가들은 무슨 신기루를 본 듯이 놀라서 덕순님의 유려한 동작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덕순님의 취미는 라틴댄스다. 혈액형이 O형이라면서 뒤끝 없는 성격에 외향적이고, 특히 음악과 춤을 좋아해서 그 어려운 시련을 넘겼다고 말했다. 생선장사의 가장 큰 에너지란다. 음악이 나오면 어느 곳에서나 춤을 추고 남들 앞이라



이덕순 어머니

고 창피할 것도 없단다. 동사무소에서 열린 라틴댄스 강좌에서 5년째 춤을 추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팀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지금도 여전히 아침마다 덕순님의 오토바이는 해망동 어판장을 향해 달린다. 라틴댄서 여왕의 율동을 닮아 부릉거리는 소리마저 댄스의 리듬 같이 들렸다. 말랭이를 둘러싼 월명산의 맑은 공기, 꽃과 바람을 따라 해망굴 지나 어판장까지 가는 오토바이 여행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다. 서울사람들은 절대 이런 행복을 알지 못할 거라 장담하며 웃었다.

모니카 : “어머님, 좋아하는 꽃과 색깔은 뭐예요? 제가 어머님께 어울리는 시 한편 선물하려고요.”

덕순님 : “난 정열의 붉은 장미가 좋아. 색깔도 빨강색이 좋고. 이 사진 한번 보소.”

사진 속의 덕순님은 라틴댄스에서 입는 댄스복을 입고 있었다. 아니 누가 어판장 생선장사 주인장이라고 하겠는가. 화려한 무도복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45도 각도의 얼짱미소는 정말 딴 사람 같았다. 빨강 정열의 라틴댄스를 추는 덕순님이 사진 속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았다.

6월의 장미 – 이해인

하늘은 고요하고
땅은 향기롭고 마음은 뜨겁다
6월의 장미가 내게 말을 건네옵니다.

사소한 일로 우울할 적마다
“밝아져라”
“맑아져라”
웃음을 재촉하는 장미

삶의 길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무심히 찌르는 가시를
다시 가시로 찌르지 말아야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낼 수 있다고

누구를 한번씩 용서할 적마다
싱싱한 잎사귀가 돌아난다고
6월의 넝쿨장미들이
해 아래 나를 따라오며
자꾸만 말을 건네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에
내가 눈물 속에 피워 낸
기쁨 한 송이 받으시고
내내 행복하십시오.

인터뷰 5

- 일시 : 2022년 6월 20일
- 대상 : 그대의 이름은 수국꽃 방자님

모니카 : “어머님 혹시 21살로 돌아간다면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방자님 : “당연히 소원 하나 있지. 21살로 돌아간다면 다시 여자로 태어나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싶지. 또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고 싶은 것이 소원여.”

방자님은 말랭이마을에서 최고령의 나이이다. 매실로 유명한 광양에서 태어나 21살에 중매 결혼했다. 결혼 후 시댁이 하도 가난해서 어쩌다 군산으로 오게 되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본 기차가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광양에서 순천까지 나와서 석탄 열차를 타고 익산에 도착. 또 군산까지 참으로 길고 길었던 타지 행이 생각난다고 한다.

자녀는 2남 4녀를 두었는데 선창 부두조합에서 일하던 남편이 막내아들 고등학생 때 뇌출혈로 2시간 만에 돌아가셨다. 하도 급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손도 써보지 못한 것이 내내 한이 되었다. 그 뒤 방자님은 생활은 기타 말랭이 어머니들과 같이 해망동 어판장으로 향했다.

처음 말랭이마을에 왔을 때는 지겟물 장사를 했다. 말 그대로 어깨에 메는 지게에 물을 담아서 한 통 당 5~10원에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그 뒤 해망동에서 18년간이나 수출용 오징어를 다듬었고 새우 만지는 일도 75세까지 했다. 평균 새벽 2시경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만 했다.

자식들과 밥상머리에 모여 제대로 밥 한번 먹은 적 없이 큰딸이 동생들 밥을 챙겨 먹었다. 여행 한번, 극장 한번 가본 적 없이 그냥 일만 하다 보니 자식들을 제대로 공부시키지 못한 것이 한이라고 말했다. 가장 마음 아픈 일은 막내아들이 군산상고 야구선수로 활동하다가 그만둔 것이다. 또 큰딸이 테니스를 잘했는데 메달도 따고 선수로 합숙도 했는데 사는 게 여의치 않아 후원 한번 하지 못했다. 학교에서 많이 도와주어도 결국 그 길을 포기했다. 그래도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지금은 순천에서 요가학원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자식들이 생활전선에서 전투사처럼 일한 엄마를 자식들이 인정해줘서 고맙다.

모니카 : “어머님 좋아하는 꽃과 색깔은 뭡까요?”

방자님 : “꽃은 다 좋지만 수국이 좋더라. 꽃잎이 겹겹이 풍성하니 복 많이 받게 생겼잖아. 요즘은 꽃 색깔도 많데. 하얀색이 변한다네. 분홍색, 연보라색, 파란색으로. 나는 오동나무 꽃 색깔같이 수수한 색이 좋더라.”

모니카 : “아, 마을에서 삼일탑 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오동나무 한그루 있는데, 올해도 꽃잎 색이 참 예뻐어요. 저는 오동나무 꽃을 처음으로 가까이 봤어요. 처음엔 라일락 꽃인 줄 알았어요. 수국의 꽃말이 처녀의 꿈이래요. 어머니 처녀 적 꿈은 뭐였어요?”

방자님 : “꿈이 뭐 있었었어. 옛날에는 누구나 시집가서 잘사는 거였지. 그런데 고생만 했으니 꿈은 못 이룬거여.”



김방자 어머님

방자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예전에 무엇을 생각하고 살았는지는 다 잊었다. 단 지금은 오로지 건강이라고 말한다. 벌써 구십을 코앞에 둔 나이를 먹다 보니 죽음이 코앞에 온 것을 느낌만 든단다. 그래서 살림도 싫고 살아온 인생도 서글프다. 다행스럽게 건강해서 아직까지 치매증상도 없다. 늙고 보니 자식은 꼭 있어야겠다며 자식들의 안부에 고맙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제 하나 더 바란다면 지금처럼 동네사람들과 화목하고 손가락 밥그릇 수도 다 아는 세상이 그대로 이어졌으면 한다. 새벽 4시경 기상해서 운동하고 아침식사 후 노인정에 와서 점심 한 끼 같이 먹는 이 재미가 오래갔으면 한다. 힘만 있다면 옛날처럼 말랭이 사람들과 김장 고추장 된장 담고 집집마다 품앗이도 하면 좋겠다. 올해는 말랭이마을에 젊은작가들이 많이 오고, 또 관광객들이 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느리지만 공예 만들기가 재밌으니, 소소히 브로치랑 장식품들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전했다.

수국 피었다 - 윤춘순

수국 피었다
그리움도 사랑도 한 몸에 지니고
땅심 따라 바람 따라 색을 입는 꽃
새하얗게 지센 밤 텅 빈 머리로
숨사탕 같은 환영으로 몽글거린다

목마름을 참지 못해 흐느끼는 꽃
푸른 물방울 툭툭 떨어 눈물 젖누나
그대 생각에 수줍어서 빨개진 얼굴
무지개 빛으로 꽃물들이고 살랑거린다

해거름에 붉게 물든 하늘가에
그리움만 강물처럼 밀려오누나
시큼한 기분 청보라로 빙그는 수국이
어느사이 빨간 홍조 띠며 활짝 웃는다

그대 꽃 수국 피었다

인터뷰 5

- 일시 : 2022년 6월 09일
- 대상 : 프리지아 꽃 명희님과 그녀의 반쪽 태환

‘연애를 한다는 것은 이런거죠’ 라고 나태주 시인은 말했다.

날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당신 생각을 마음속 말을 당신과 함께
첫 번째 기도를 또 당신을 위해
그런 형벌의 시절도 있었다

명희님은 남편 태환님을 만나면서 아름다운 형벌을 감수해야만 했다. 18세 첫 만남에서 결혼으로 끝낼 만큼 남편은 연애박사였다고 말했다. 친정 피붙이 5남 3녀 중 살림 밀친인 첫째 딸이 어린나이에 연애를 했으니 기가 막힌 친정아버지의 불호성은 눈에 보듯 뻔했다. 결국 태환님과 의 용 기 있는 연애는 첫딸을 낳고 2년 뒤 혼인신고로 이어졌다.

전북 장수가 고향인 태환님 가족은 1950년대 군산으로 왔다. 당시 태환님은 국민학생였으며 말랭이마을을 이렇게 회고했다.

명희님 : “말랭이는 말 그대로 산중의 산동네였지. 완전 초가집으로 달동네였어. 세상에서 가장 못사는 사람들만 모여 드는 듯, 한집에 서너 가구가 넘게 살았으니 사람 수로 따지면 열 닷명이 한집에 살은거지. 동네 전체가 집으로 뻘뻘했어. 골목이고 뭐고 사람으로 치었지.”

명희님이 시댁에 오기 전 시댁은 말랭이의 셋집 방에서 두부장사를 했다. 두부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 식구 모두가 합심해도 부족할 만큼 일이 넘쳤다. 콩 불리기, 물과 함께 콩 갈기, 가마솥에 콩 넣고 끓이기, 끓인 콩물을 하얀 베에 넣고 짜기, 짜낸 콩물에 간수를 넣고 살살 짓기, 저은 콩물을 두부 틀에 붓고 멧돌로 누르기 등등 이런 과정을 거치면 두부가 만들어졌다. 콩 한 말에 보통 두부 24모가 나왔다. 두부 들기에 가장 큰 공력은 바로 물을 나르는 것이었는데, 태환님께 게 샘에서 물을 길러오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다.

시댁에 왔을 때는 두부 대신 떡과 튀김을 장사하고 있었다. 이 일 역시 손이 없어 못할 정도로 힘든 일이었다. 시어머니가 만들어 팔 떡에는 늘 시아버지와 함께 떡을 썰었던 손길이 묻었다. 나이는 어려도 시댁의 주된 경제활동을 열심히 도와서 대 식구의 입을 즐겁게 했던 지난날이 어제처럼 생생하다고 명희님은 추억했다.

로맨틱한 남편 태환님이 1980년대 초, 사우디아라비아로 일하러 갔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이들이 멀고 먼 이역만리에서 하는 노동은 그냥 일이 아니었다. 처자식이 있는 가정의 책무에 새겨진 땀과 피로서 보내오는 돈은 눈물 젖은 빵 그 이상이었다. 명희님은 태환님이 보내오는 이 눈물의 씨앗을 착실하게 모아서 지금의 집에 희망의 저장고를 만들었다.

태환님 : “이 집에 들어있는 역사는 보통 역사가 아니며. 부자들만 가지고 있던 사진기만 있었어도 찍었을텐디 남은 게 없는 것이 아쉽고만요. 가을이 되면 마을의 노인 양반들이 모두 나와서 지붕에 지푸락으로 잇고, 너네 나네 할 것 없이 다 제 집처럼 집을 지었지. 갑자기 그 양반들이 생각나니 보고 싶네.”

지금이야 어른 애 사이 예의가 사라졌지만 그때는 동네 어른들이 가게나 길거리에 앉아 있으면 함부로 들어가지도 지



정명희 · 박태환님 부부

나가지도 못한 시절이었다며, 비록 가난했어도 사람들은 모두 예법을 지켰다고 태환님은 말했다.

현재 말랭이마을의 노인정회장을 하는 태환님의 오토바이 뒷자리는 오로지 한 사람만을 기다린다. 열여덟 꽃 같은 명희님만을 위한 존귀한 자리를 타는 느낌을 물으니, 천상 부끄럼 많은 소녀의 웃음으로 말했다.

명희님 : “특별한 거 있간? 그래도 좋지. 남편 뒤에 있으니 안전하고.”

입주작가로 처음 인사했을 때도 반갑게 맞아주며, 언제든지 노인정에 와서 같이 밥먹고, 불편한 점은 당신에게 다 얘기하라며 천상 친정아버지 같은 포용을 보여주었다. 하루 일과로 매일 마을을 돌아보며 불편한 사항을 살피고 마을 사람들의 소소한 물건을 심부름하신다. 명희님의 나이 칠십은 노인정에서 젊은이다. 이목구비가 뚜렷한 상당한 미인이어서 태환님이 한눈에 반한 이유를 알겠다고 하니 손을 살래살래 흔들었다.

명희님 : “가난 속에서 대식구들과 산다는 것은 본 것도 안 본 듯, 들은 것도 못 들은 체 하면서 살아야 했지. 그러니 힘들 때는 그냥 무표정으로 살았어. 표정이 없으니 처녀 때 인물도 다 사라졌구만.”

모니카 : “아니예요. 지금도 참 곱고 예쁘세요. 짝궁님이 절대 한 눈 팔지 못할 것 같아요. 오토바이에 다른 사람 타는 지 제가 잘 볼게요. 하하하”

명희님 : “나는 평생 남 탓 안하고 소처럼 묵묵하게 내 할 일만 허고 살았어. 그러다보니 표정이 처녀 때 같이 밝지 않아. 그래도 밝은 노랑색이 놓고 노랑 프리지아 꽃이 좋아.”

말랭이마을사람 중 한 집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는 명희님과 태환님, 60여년의 세월이 그들의 몸에 새겨진 살결이 되고 또 그들은 마을의 정화수가 되어 말랭이의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있다.

프리지아 꽃 당신 - 이윤호

애써 당신을
강한부정으로 외면하지 않아도
이 나의 발걸음은
프리지아 꽃향기 가득한
정원으로 조용히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향기가 습관처럼 배어있는 이곳을
절대 나는 우회하여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보란 듯이 즐기며 산책합니다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치장한
당신을 바라보노라면
나는 아, 죽어도 좋을 사랑으로
당신 곁을 또 서성이고 맙니다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어쩌면 그렇게 당신은 한결같이
내게 아련한 그리움을 물들이신지요
장미보다 더 붉게
역시 당신은 바보입니다
나의 진심을 몰라주는
가슴 한쪽을 떼어드리지요
내일은 나의 반쪽마저 내어 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프리지아 꽃 당신을 위하여

인터뷰 5

- 일시 : 2022년 6월 01일
- 대상 : 즐거움이 많은 게스트하우스 '다락(多樂)' 진석님

다락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즐거움 다락(多樂)이 있을까. 소리 없이 책방을 찾아온 첫 번째 마을주민이자 게스트하우스 주인장인 진석님을 만났다. 사전 통화에서처럼 잔잔하고 차분한 첫인상이 충청도 양반의 모습을 떠올렸다.

진석님은 충남 예산이 고향이다. 게스트하우스를 하기 전에는 학원의 수학강사의 이력이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그는 호주에서 지냈던 여행자 숙소가 지금의 게스트하우스 연습장소가 되었다.

귀국 후 국내여행지로 군산에 와서 우연히 말랭이에 왔는데, 마을의 모습과 사람들의 그렇게 친근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이런 것이 인연인가 보다 싶었다. 때마침 나온 지금의 '다락'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군산사람으로, 말랭이마을 사람으로 살아볼 결심을 했다.

게스트하우스 오픈은 크게 힘들지 않았다. 기존의 숙박건물을 인수했기에 진석님이 동네사람으로 적응하여 마을안과 밖 사람들에게 가교역할을 하면 되는 일이 우선이었다. 외형적으로 부산스럽게 다니지 않아도 외유내강의 모습으로 서서히 사람과 마을에 다리를 놓았다. 먼저 말랭이마을주민협의회에 참여해서 젊은 세대를 대표하며 소통했다. 인스타그램의 SNS를 통해 마을 어른들이 주관하는 마을공방의 상품들을 홍보했다. 매주 1회(화요일)의 시간을 내어 마을해설사를 자원봉사로 자처했다.

어느 순간부터 책방의 화요일에는 진석님과 함께 올 누군가를 기다린 때도 있었다. 얼마 전에는 젊은 청년들과 함께 와서 책방주인보다 더 자연스럽게 더 자랑스럽게 마을 책방이라고 소개하는 모습에 감동해서 울컥한 적도 있었다. 책방에서 드릴 수 있는 것, 기껏 책방지기의 마음을 담은 박카스 한 병이었다.

모니카 : “군산시가 문화관광마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데요, 외부인으로 처음에 군산에 왔을 때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어요?”

진석님 : “먼저 군산하면 근대역사가 살아있는 도시라는 이미지가 많아요. 그래서 근대역사박물관을 기준으로 근대마을, 근대역사거리조성 등 다양한 이름으로 군산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용어에 있어서 통일성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근대역사지라는 관점도 방문자들 각각 다른 것 같아요.”

모니카 : “그럼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말랭이마을에도 적용되는 질문이에요.”

진석님 : “일단 말랭이마을만 말씀드리면, 마을지도를 세심하게 만들면 좋겠어요. 골목길과 벽화건물 몇 채가 상품화되어 있어서, 이곳에 오는 분들이 어느 골목에 무엇이 있는지를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골목길에 오르고 내리는 방향표 하나 없어요.”



이진석 님
다락 게스트하우스

진석님 : “또 하나는 마을기업이 하나 생기면 좋겠어요. 그래야 마을사람들이 이 마을에 갖고 있는 애정이 구체화되어 더욱더 마을의 주인으로서 의식이 생기지요. 더불어 기존의 관광루트인 근대역사거리와 그 종점인 히로쓰가옥에서 이어지는 역사스토리도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모니카 : “앞으로 다락의 주인장으로 다락이 이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 바라나요?”

진석님 : “가장 원하는 것은 다락이 '화합의 장'으로 기능하길 바래요. 사람이 살다보면 갈등은 늘 존재하잖아요. 말랭이마을에서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제가 부족하지만 화합을 연결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작년부터 시작한 사회필사업서를 설명하며, 다락에 온 방문객들에게 홍보하여 이왕이면 군산여행을 하면서 시 한편 쓰고 감상하는 시간을 만들어보도록 부탁드렸다. 진석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를 물었다.

너에게 묻는다 - 안도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남에게 뜨거운 사람이 되고 싶은 진석님의 따뜻하고 여유로운 삶의 자세는 코로나 위기도 너끈히 헤쳐나갔을 거란 믿음이 생겼다.

밝은 주황색을 좋아하는 진석님은 군산의 야트막한 시선과 따뜻함을 좋아한다. 무엇보다 가장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사람의 힘'이란 답변에 나의 공감의 농도치가 순 100도를 찍었다. 진석님을 떠올리면 주황색 능소화꽃이 생각나고 능소화를 보면 말랭이 벽을 타고 하늘에 손짓하는 경계 없는 이웃들의 사랑이 생각난다. 그에게 강형철 시인의 〈야트막한 사랑〉을 들려드리고 싶다.

야트막한 사랑 - 강형철

사랑 하나 갖고 싶었네
언덕 위의 사랑 아니라
태산준령 고매한 사랑 아니라
가우뚱한 어깨 서로의 키를 재며
경계도 없이 이웃하며 사는 사람들
웃음으로 넉넉한

사랑 하나 갖고 싶었네
이제 마을대로 마른 뼈
그 옆에 가우뚱 고개를 들고 선 참나리
꿀 좀 훔을까 기웃대는 일벌
한오름 얻은 꿀로 얼굴 한번 훑치고
하늘로 날아가는

사랑 하나 갖고 싶었네
매섭게 몰아치는 눈보라의 사랑 아니라
개운하게 쏟아지는 장대비 사랑 아니라
야트막한 산등성이
여린 풀잎을 적시며 내리는 이슬비
온 마음을 휘감되 아무것도 휘감은 적 없는

사랑 하나 갖고 싶었네
가슴이 뭉 만쯤 다 뛰어서
짱뚱어 한 마리 등허리도 넘기 힘들어
개펄로 에돌아
서해 긴 포구를 찾아드는 밀물
마침내 한 바다를 이루는

인터뷰 5

- 일시 : 2022년 7월 04일
- 대상 : 아름다운 한복의 옷을 지키는 올빼미작가, <아울>

말랭이 입주작가 중 가장 많은 식구로 입성한 <아울>. 전통한복(복식) 연구 제작을 중심으로 천연염색, 한지 및 섬유 공예를 전문으로 하는 작가들, 이현미 작가, 정미옥 작가, 강계순 작가가 그들이다. 아름다운 우리 복식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맘으로 의기투합한 첫 번째 공간으로 말랭이 문화마을을 찾아왔다.

<아울>의 막내둥이 이현미 작가는 한복에 관심을 갖게 된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 딸의 판소리공부를 함께 다니면서 한복을 만질 일이 많았는데, 우연히 유물복식강의를 듣게 되었다. 비로소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찾은 듯이 배우는 것마다 즐겁고 행복했다. 특히 16C-19C 조선시대 출토유물을 만나면서 복식의 변천사를 공부하며 한복 배자의 선과 바느질법 등이 매우 과학적임을 알게 되었다.



아울 한복작가

<아울>은 작가들의 작업이 올빼미처럼 주로 밤에 이루어져 지었다고 했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한복을 만들려면 옷을 맞추는 것이 기본. 기본에 충실한 옷을 만들겠다는 작가들의 바람이 들어있다. 코로나로 어수선했던 지난 2년 동안 한복문화주간행사 중 한지 패션쇼 등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는 다양한 활동을 했다. 2021년에는 <소풍, 배웅>이라는 주제로 전통수의(壽衣) 전시를 진행했다.

<소풍, 배웅>이라는 말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내려놓고 소풍 가듯, 배웅하듯 「혼불」 속 장례 모습을 재현하는 혼례복 일습인 전통수의(壽衣)를 현대수의(壽衣)로 재구성했다. 또한 전시를 준비한 작가들의 생애 마지막이자 최초의 날개, 수의(壽衣)에 담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정미옥 작가는 대학에서 한국복식학과를 전공했고 드레스한복에 자신만의 독창성을 가미하여 한복을 제작하고 있다. '2020 수의 의상전'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전으로, 수의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말을 이었다.

미옥님 : “우리 전통장례문화에서는 고인의 수의는 가장 화려한 옷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삼베수의를 부모를 여의 최인이란 뜻으로 상주가 착용했는데요. 그런데 일제강점기부터 의복 간소화로 인해 고인에게도 삼베를 착용하게 했다고 해요. 아직도 일본잔재가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거죠.”

2022년 올해의 첫 사업으로 '말랭이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쪽 염색 체험'을 시작했다. 활동주제는 말랭이마을을 '색갈 있는 마을'로 변화시키고 싶은 작가들의 소소한 마음이 들었다. 총 12회 차에 걸쳐, 천연염색의 방법, 장단점 등의 이론과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소품을 만드는 천연염색체험을 했다.

여름에 최고의 대접을 받는 인견이불에 감물염색, 스카프와 손수건에 파란 하늘보다 더 파란 쪽염색, 둥그런 양파에서 나온 샛노란 양파염색, 붉은 가을색을 부르는 꼭두서니염색 등이 말랭이마을에 순수하면서도 화려한 색깔이 내려앉았다. 또 책 넓은 여름 모자와 조각보를 이용한 발 만들기엔 한복 옷감 천을 이용해서 바느질을 하며 그 옛날을 떠올리며

추억했다. 가을에는 그동안 만든 모든 작품을 전시하여 정말로 '색갈 있는 말랭이마을'을 선보일 예정이다.

감물들인 인견이불 한 조각을 만들어 덮기에 작가들이 들인 공력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첫째, 원단 물에 담그고 발로 밟아 풀기를 제거하는 정련과정
둘째, 인견을 천연 감물에 담그기
셋째, 감물 목욕을 막 끝낸 인견의 처음 색은 밝은 흰색
넷째,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말리기 과정 후 갈색으로의 색상변화
다섯째, 물기가 마르면 물을 뿌려주고 또 말리고 또 말리고의 과정을 3~5일 정도 진행
여섯째, 진한갈색으로 뽀뽀하게 변한 천연인견을 만나기

활동을 진행한 이현미 작가가 감물인견 이불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현미님 : “감물염색 이불의 매력은 감물로 인해 뽀뽀하게 변한 원단이 통기성, 소취성, 향균성까지 좋아져 여름 침구로 사용하기 딱 좋아요. 햇빛과 물이 만나는 느낌의 자연 염색법이죠. 감물 염색된 원단을 다림질해서 마무리해주면 훌겁 이불이 되요. 감물염색이 들기까지 시간과 정성에 자연 바람과 햇빛을 듬뿍 담은 인견이불은 그야말로 최고의 여름나기죠.”

나도 역시 정련과정에서 온 힘을 다해 활동한 공로로 인견이불 한점을 받았다. 그 날밤 내 몸에 덮어진 이불의 고실 고실한 촉감은 어떤 여름도구로도 설명될 수 없는 천상의 선물 같았다. 선물의 답례로 짙막한 글을 하나 보냈더니 <아울>작가들의 환호성이 울렸다.

감빛물결 속에서 다시 태어나네 - 박모니카

초년의 장마기운 말랭이를 덮었어도
밤사이 나를찾은 고슬고슬 인견이불
소란한 꿈마저도 둘둘말아 말려주니
세상사 이보다더 담백한맛 또있으랴

하양 애기뽕풀같은 들꽃을 좋아하고 부드럽고 고운 말솜씨가 예쁜 현미작가, 모란꽃과 천연색인 원삼색, 두목색을 좋아하는 미옥 작가, 부용화꽃과 청록색을 좋아하는 강계순 작가. 활동체험을 지도한 작가들은 마을사람과 함께 오묘한 빛을 낼 수 있는 시간으로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다.

자연과 사람이 하나인 동네에 와서 행복하다는 <아울>작가들의 희망사항이 있다. 말랭이마을 사람들과 전통한복 만들기의 토대를 만들어서 2년 이내 '주민과 함께하는 한복패션쇼'를 하는 것이다.

미옥 : “한복의 멋은 바로 전통색갈, 인위적이 아닌 천연색갈의 조화에 있어요. 한복의 형태 역시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한복의 세련성을 보여주고 싶구요. 한가지 아쉬운 점은 서양에서는 옷을 만드는 사람을 디자이너라고 하는데 동양에서는 왜 '바느질쟁이' 라고 하대하는 듯한 명칭을 붙이는가예요. 한복디자이너 또는 한복문화지킴이라고 불렸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바람이 분명 이루어질 것이다. 적어도 말랭이마을 어른들은 '한복작가님'이라고 부르기에 말랭이에 뿌리내린 그들의 언어가 민들레 흩씨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인터뷰 5

- 일시 : 2022년 7월 04일
- 대상 : 늘 푸른 사철나무 근영님

작가라는 이름표를 달고 공모전 면접에 나선 첫 마당, '말랭이마을 입주 작가 공모전'. 푸근한 미소로 면접대기자들을 맞이한 분이 근영님이다. 그녀가 밝힌 이력은 내가 살아온 세상과 달랐다. 특히 지역문화에 애정을 갖고 학문적으로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있었다.

대학원에서 지역문화정책을 전공하여 문체부 아시아 문화관련 마케팅을 담당하던 중 2010년 부모님의 병환으로 군산으로 내려왔다. 당시 정부 주도의 근대문화도시에 대한 토론이 잦았고 군산은 이런 과정 속에 있었다. TV에 나오는 패널들마다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의 삶의 대한 얘기가 빠진 탁상공론식 도시계획만 난무했다. 이에 주민역량을 키우는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거절당하면서 전주문화재단으로 옮겨 일했다.

2015년 군산으로 귀향해서 밥집을 오픈했는데, 근대역사가 오롯이 녹아 있는 삶의 현장에서 부대끼면서 근대문화도시 연구자로서 군산을 보았다. 그 당시 전라북도의 '1시군 1대표 관광지사업' 공모에 말랭이마을이 지원하여 마을정비사업이 시작됐다.

2002 월명산 일부 구간의 산사태로 인해 마을주민이 이주했다. 오랫동안 낙후된 마을의 전형이 그대로 지켜지다 2015에서 2016년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조정, 관광지마을로의 타당성조사 등 돈이 주인이 아닌 지역주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마을조성사업을 희망했다. 산 말랭이에 퍼져 있는 마을의 정취와 향기를 잃지 않는 사업이길 바랐다.

근영님은 2017년에 말랭이 문화마을조성사업 총괄기획자로서 참여했다. 2018년에는 말랭이마을이 문화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주민공동체 확립과 주민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근대'라는 용어를 벗어나서 마을의 이름을 짓기로 했다. 새로운 마을로의 탄생을 축원하여 '신흥동 근대마을'이란 이름을 '말랭이마을'로 결정했다. 산봉우리를 뜻하는 '말랭이' 말 속에는 눈물 젖은 사람들이 산을 이뤘던 마을 초기의 사연도 있었지만 지금의 말랭이는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의 언덕이 되었다. 부산의 감천마을, 동영의 동파랑 등의 문화마을 선견지를 견학하면서 말랭이마을이 꿈꾸는 문화관광마을의 모습을 위해 마을 공동체가 힘을 모았다.

이 사업의 결과로 나온 책 3종을 찬찬히 읽어보았다. '마을, 예술로 품다'의 전시자료집 <2018 군산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군산 신흥동 말랭이마을-주민구술기록 및 자료조사보고서>, 마을사람들의 이야기책 <신흥동사람들-배지영 작가>

2020.4월 문화도시 총괄기획자이자 말랭이마을 운영코디로 활동한 근영님은 말랭이마을을 위해 다양한 안을 제시하고 실천했다. 군산의 27개 읍면동 문화도시 기획안 작성부터 2021 말랭이마을 입주작가모집안 기획, 2022 예비문화도시로 선정, 주민협의체 구성 협조, 골목잔치와 마을공방 운영 협조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왕성한 활동을 마을 사람들이 인정했다.



이근영 님
말랭이 마을 총괄 코디네이터

모니카 : “말랭이마을에서 일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근영님 : “무엇보다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대표로서 일하고 마을주민의 권리를 찾게 하는데 도움을 준 점이죠. 또 사람들 간의 대립관계를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 '마을정치'의 주민 정치가로서 스스로가 성장하도록 기여한 것이 좋죠. 또한 다른 문화도시에서 일어난 상업성을 최대한 배제하여 거주민의 온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했어요.”

근영님은 아쉽게도 말랭이와 문화기획자로서의 인연을 접는다. 2022.7월까지가 그녀의 계약기간이다. 가장 아쉬워하는 사람들은 마을 어르신들이다. 마을공방의 구슬 하나를 주문하는 것까지도 근영씨의 손길이 닿았기에 그녀와의 이별은 엄마의 손을 놓친 아이같은 심정이라고 했다. 비록 근영님이 말랭이문화마을의 기획자로서의 역할은 못할지라도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마을기업운동을 위해 함께 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또한 같은 동네사람이 되어 말랭이마을의 변화를 지켜보며 의견을 전할 수 있음도 다행스런 일이다.

모니카 : “혹시 취미나 특기 있으세요?”

근영님 : “취미로 노래를 해요. 양희은의 한계령을 종종 불러요. 이래봐도 대학 때 강변가요제에 나가서 장려상을 받은 가수입니다. 팀 이름이 사철나무예요. <그대 사랑해요>, 유튜브에도 나오니 한번 들어보세요.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요.”

모니카 : “어쩔 신기해요. 이렇게 가까이 가수를 보긴 처음인데요. 노래도 꼭 들어볼게요.”

근영님은 근대 시기의 중심 마을인 영화동을 주제로 한 박사논문을 준비하며 다시 지역마을 연구자로 복귀한다. 영화동 주민들인 구공탄, 안젤라분식, 장터족발 등의 주민들과 생활하며 1990년대 아메리카 타운, 영화동 일대의 전과 후의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주제로 연구하길 원한다. 그 누구보다도 말랭이마을을 사랑하는 근영님. 당당히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때'라고 말하는 진짜 고향배기 근영님의 얼굴이 다시한번 찬란히 빛나기를 소망하며 장정일 시인의 <사철나무 그늘아래 쉴 때는>을 들려 드린다.

사철나무 그늘 아래 쉴 때는 - 장정일

그랬으면 좋겠다 살다가 지친 사람들
가끔씩 사철나무 그늘 아래 쉴 때는
계절이 달아나지 않고 시간이 흐르지 않아
오랫동안 늙지 않고 배고픔과 실직
잠시라도 잊거나
그늘 아래 휴식한 만큼 아픈 일생이
아물어진다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중략)
그대 걸어 나와 서로의 팔목 야윈
슬픔 잡아 준다면
좋을 것이다 그제서야 조금씩
시간의 열레도 풀어져

초록의 대지는 저녁 타는 그림으로
어둑하고
형제들은 출근에 가위 놀리지 않는
단잠의 베개 뽕 것인데
한 칸에서 되게 낮잠을 자 버린 사람들이
나즈막히 노래 불러
유행 지난 시편의 몇 구절을 기억하겠지
바빌론 강가에 앉아
사철나무 그늘을 생각하며 우리는
눈물 흘렸지요

2022 동네문화추적단 활동보고서

총괄편집 군산문화도시센터

발행처 군산문화도시센터 · 군산시

발행일 2022년 9월 01일

주소 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245, 옥산힐빙센터 3층

연락처 063.468.0931~2

홈페이지 <https://www.kunsan.ac.kr/gunsanccc>

I S B N

